

역옹패설

이제현 저 | 남만성 역 신라에 최치원(崔致遠)이 있었다면, 고려에는 이제현(李齊賢)이 있었다. 도덕은 유자(儒者)의 수령이었고, 문장은 선비들의 종장(宗匠)이었다. 여말(麗末) 혼란기 조정의 중심을 잡았던 대학자 익재(益齋) 이제현. 《역옹패설(櫟翁裨說)》은 경사 고증(經史考證)과 문예 비평(文藝批評)이 두루 담긴 잡록 문학의 백미(白眉)이니, 익재 선생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역용패션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역옹패설》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래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친의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남영태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역자 서문

《櫟翁稗說》은 익재 이제현 선생(益齋李齊賢先生)의 수필집(隨筆集)이다.

익재 선생은 고려 말기의 대정치가이며 문장가이며 학자이다.

선생의 정치가로서의 업적은 너무나 위대하다. 그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원(元)나라가 우리나라에 고려라는 국호(國號)를 없애 버리고 한 행정(行省)을 두기로 결정한 일이 있다. 이때에 선생은 원나라의 도당(都堂)에 글을 보내어 그 부당성을 통쾌하고도 명백하게 지적하여 드디어 그 야망을 봉쇄하였다. 그때 만약 선생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한낱 중국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우리의 역사는 말살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길이 그 위대한 공적을 잊을 수 없다.

충선왕(忠宣王)이 원나라에서 토번(吐蕃)이라는 먼 곳으로 귀양을 갔을 때에, 선생은 원나라의 요로에 글을 보내어 왕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 글의 뜻이 슬픔과 충성과 분격으로 차 있어서 사람의 가슴을 치는 바 있었다. 그 때문에 충선왕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또 멀고 험난한 길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소(謫所)에 가서 충선왕을 뵈고 위로하였다. 그는 충신이였다.

충혜왕(忠惠王)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원나라의 의심을 받고 원나라로 불러가게 되었을 때에는 선생은 분격하여, “나는 내가 우리 임금의 신하인 것을 알 뿐이다”고 하고 원나라에 수행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고 악당들의 속에 뛰어들어 문필을 휘둘러 싸워서 드디어 오해를 풀게 하였다. 그는 뛰어난 외교가이기도 하였다.

공민왕(恭愍王)이 즉위한 뒤에 즉시 귀국하지 않고 원나라에 머무르면서 선생을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에 임명하고 권단정동성사(權斷征東省事)라는 직책을 주어 사실상의 왕권을 대행하게 하였다. 선생은 적절하고 과감한 행정을 시행하여 국왕 부재중(不在中)의 국정을 훌륭하게 처리하였다. 그는 탁월한 정치 역량을 지녔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로서의 선생의 위대성에 못지않게 문장가로서, 학자로서 선생의 위치와 공적은 높다.

《익재선생집(益齋先生集)》을 보면, 시(詩) · 사(詞) · 표(表) · 서(書) · 의(義) · 서(序) · 기(記) · 책문(策問) · 논(論) · 송(頌) · 찬(贊) · 잠(箴) · 비명(碑銘) · 묘지명(墓誌銘) 등 광범위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그 어느 부분에도 일가(一家)를 이루지 않은 것이 없으며, 뛰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사(詞)는 우리나라에서 선생만이 사다운 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의 시는 너무나 유명하다. 기(記)가 그러하고 명(銘)이 그러하고 서(書)가 그러하다. 선생의 문장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뛰어났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또 그는 문학비평가였다. 우리나라에 평론문학이 존재(健在)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그는 이재(頤齋) 백이정(白頤正) 선생에게서 정주학(程朱學)을 배워 우리나라 성리학(性理學)의 선구자적 공적을 남겼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선생은 묘지명에서 선생을 도덕의 으뜸이요 문장의 종장(宗匠)이라고 하였고, 또 “공덕(功德)은 사직(社稷)에 머물러 있고, 은택은 생민(生民)에게 흘러 내리네”라고 하였다.

이러한 익재 선생의 수필집이 바로 《櫟翁稗說》이다. 이 수필은 선생의 56세, 인생과 문장이 난숙한 때의 작품이다.

거기에는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경사(經史)의 견해가 나오고, 왕가의 세계(世系)가 나오고, 저명한 공경(公卿)들의 언행이 이야기되는데 하면, 해학(諧謔)이 나오고, 시문(詩文)의 평론이 나온다. 그야말로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일정한 주제(主題)도 없이 자유자재하게 쓰고 싶은 것을 쓰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수필이

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익재의 체온을 느끼고 문장가 익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익재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櫟翁稗說》은 소중한 것이다.

끝으로 《櫟翁稗說》의 이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 한마디 덧붙인다.

그 서문에, ‘櫟之從樂 聲也’, ‘稗之從卑 聲也’라고 하였다. 필자는 ‘聲也’라는 말을 발음한다는 말로 풀이한다. 그래서, 《낙옹비설》이라고 읽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또 많은 인사들이 《역옹패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또 ‘櫟’과 ‘稗’의 발음이 고려 때에는 어떠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꼭 《역옹패설》은 잘못 읽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대가(大家)들의 판정이 있기를 기다리기로 한다.

많은 오역과 견해의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두렵다. 기탄없는 질정(叱正)을 바란다.

1970년 12월

무학산장에서 남만성 씀

일러두기

- 1 이 번역은 고증이나 훈고(訓詁)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 2 이 번역의 원문은 〈隆熙紀元後五十四年庚子冬十月 湖西之大田興文社重刊〉에 의한 《익재선생집(益齋先生集)》을 저본(底本)으로 하였다.
- 3 번역은 힘써 쉬운 말을 사용하였으며, 원문은 따로 일괄하여 뒤에 붙였다.
- 4 《櫟翁稗說》 이외에 부록으로 연보(年譜) · 본전(本傳) · 묘지명(墓誌銘) 외에 몇 편의 글을 더 붙인 것은 선생의 경력과 업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意圖)에서이다.
- 5 특히 난해한 어귀에는 바로 밑에 간단한 주석을 붙였다.

차례

역자 서문.....	5
일러두기.....	8
전집 서문 (前集 序文).....	11
전집 1.....	13
전집 2.....	36
후집 서문 (後集 序文).....	65
후집 1.....	67
후집 2.....	88
부록.....	114
대도에 있으면서 원나라의 중서도당에게 보낸 편지.....	115
원나라의 승상 백주에게 보낸 편지.....	119
문하시랑 평장사 판이부사 증시위열공 김공행군기.....	121
익재선생 본전.....	134
익재선생 연보.....	40
익재선생 묘지명.....	152

전집

전집 서문 (前集 序文)

지정(至正) 임오년(壬午年) 여름, 비가 달포 동안 계속 왔다. 문을 닫고 들어앉았으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답답함을 이길 수 없었다.

처마의 낙수를 받아 벼룩물을 삼고, 벼들 사이에 왕복(往復)한 편지조각들을 이어 붙인 다음, 기록할 것을 닥치는 대로 그 종이의 배면(背面)에 적고, 그 끝에 제목(題目)을 붙여 《櫟翁稗說》이라고 한다.

그 ‘櫟’을 ‘樂’과 같이 읽기도 한다. 그것은 樂의 음(音)을 따라 ‘낙’으로 발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뜻이 있다. 재목(材木)감이 못되기 때문에 베어지는 피해(被害)를 멀리할 수 있다면 나무로서는 즐거워할(樂) 일이다. 그런 까닭에 ‘櫟’을 ‘낙(樂)’으로 읽으려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벼슬아치 노릇을 하였으나 스스로 사면(辭免)하고 우拙(愚拙)함을 지키면서 호(號)를 낙옹(櫟翁)이라고 한 것은 재목감이 못되니 장수(長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이다.

‘稗說’의 ‘稗’을 ‘卑’와 같이 읽기로 한다. 이것 또한 ‘卑’의 음을 따라 ‘비’로 발음하기 위함이다. 그 뜻을 살펴본다면 稗(피)라는 것은 벼(禾) 중에서 비천(卑賤)한 것이다. 내가 어려서는 독서(讀書)할 줄 알았으나 장성하여서는 폐지하였으며, 지금 늙어서는 도리어 체계 없는 잡문(雜文)을 즐겨 써놓았으니 실(實)이 없어서 피(稗)와 같이 천(卑)하다. 그런 까닭에 그 기록한 것을 이름하여 비설(稗說)이라고 한다. 중사(仲思)가 서문(序文)으로 쓴다.

전집1

전집 1

의조(懿祖)와 세조(世祖)의 휘(諱)의 아래 글자가 고려 태조(太祖)의 휘자(諱字)인 ‘건(建)’과 모두 같다. 김관의(金寬毅)가 고려 개국(開國) 이전의 풍속은 아직 순박하여서 혹시 그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왕대록(王代錄)》에 그렇게 쓴 것이다.

의조(懿祖)는 육예(六藝)에 능통하였는데, 특히 글씨와 활쏘기는 그 신묘(神妙)함이 한 시대에 뛰어났으며, 세조(世祖)는 젊어서부터 기국(器局)을 간직하고 있어서 삼한(三韓)에 웅거(雄據)할 뜻이 있었다. 그들이 어찌 조부나 아버지의 이름을 범(犯)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그 이름 글자를 가져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쓰게 하였겠는가. 더구나 태조는 왕업(王業)을 창시하고 전통(傳統)을 남기는 데 있어서 언제나 선왕(先王)의 제도를 본받았는데 어찌 마지못하여 비례(非禮)의 이름에 태연하였겠는가.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신라 때에는 그 임금을 마립간(麻立干)(마립(麻立)은 표목(標木)의 방언(方言)이다. 신라 초기에 임금과 신하가 한 곳에 모일 때에는 표목을 세워 그곳을 임금의 위치로 하였다. 따라서 임금을 마립간(麻立干)이라고 불렀다. 표목 세운 곳에 위치하는 자라는 뜻이다. 간(干)은 신라의 풍속에서 서로 높이는 말이다.)이라고 일컫고, 신하를 아간(阿干)·대아간(大阿干)이라고 일컬었으며, 시골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간(干)을 그 이름에 붙여서 부르는 것을 상례(常例)로 하였다. 대체로 서로 존칭(尊稱)하는 말이다.

아간(阿干)을 아찬(阿飡)이라고 쓰고 혹은 알찬(關粢)이라고 쓰기도 한다. 간(干)·찬(餐)·찬(粢)의 세 글자는 발음이 서로 비슷한 것이다. 의조(懿祖)·세조(世祖)의 휘(諱)의 아래 글자인 ‘건(建)’자도 또한 干·餐·粢의 음과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 그것은 곧 이른바 서로 존칭하는 말로서 이름에 붙여 부르는 것이 변전(變轉)한 것이고 그것이 이름은 아닌 것이다. 태조가 마침 이 글자로 이름을 삼았을 뿐이다. 호사자(好事者)가 드디어 억지로 갖다 붙여서 “삼대(三代)가 한 이름을 쓰면 반드시 삼한(三韓)의 임금이 된다”는 설(說)을 만들어 내었다. 아마 믿을 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다.

관의(寬毅)가 또 말하기를, “도선(道詵)이 세조(世祖)의 송악(松嶽) 남쪽에 있는 제택(第宅)을 보고 말하기를, ‘제(稹)를 심을 밭에 삼을 심었다’ 하였다. 제(稹)는 왕(王)이라는 말과 방언(方言)이 서로 비슷하였다. 그 까닭에 태조가 성(姓)을 왕씨(王氏)로 하였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그 성을 고친다니 천하에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겠는가. 아, 그것을 우리 태조가 하였다고 하는가.

태조는 세조에 뒤이어 궁예(弓裔)에게 벼슬하였다. 궁예같이 의심과 시기(猜忌)가 많은 자 밑에서 태조가 까닭 없이 홀로 왕(王)이란 글자를 성(姓)으로 한다면 어찌 화(禍)를 자초(自招)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삼가 《왕대종족기(王代宗族記)》를 고찰(考察)하여 보니, “국조(國祖)의 성은 왕씨(王氏)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태조에 이르러 처음으로 왕씨를 성으로 한 것은 아니다. 종제지설(種稹之說)이라는 것도 또한 거짓이 아니겠는가.

또 말하기를, “성골(聖骨)인 장군(將軍) 호경(虎景)이 아간(阿干) 강충(康忠)을 낳고, 강충이 거사(居士) 보육(寶育)을 낳았으니 이 보육이 국조(國祖) 원덕대왕(元德大王)이 되었다. 보육이 딸을 낳았는데, 당귀성(唐貴姓)에게 시집가서 의조(懿祖)를 낳고, 의조가 세조(世祖)를 낳았으며 세조가 태조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가 말한 바와 같다면 당귀성(唐貴姓)이란 자는 의조(懿祖)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보육(寶育)은 아버지의 장인(聘父)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계(母系)인 보육을 국조(國祖)라고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그는 말하기를, “태조가 삼대(三代)에 걸쳐 조(祖)와 고(考)와, 그들의 후비(后妃)를 추존(追尊)하여 고(考)를 세조 위무대왕(世祖威武大王), 모(母)를 위숙왕후(威肅王后)로 하였으며, 조(祖)를 의조 경강대왕(懿祖景康大王), 조모를 원창왕후(元昌王后)로 하고, 증조모를 정명왕후(貞明王后)로 하였으며, 증조모의 아버지 보육(寶育)을 국조 원덕대왕(國祖元德大王)으로 하였다”고 하였다.

부계(父系)인 증조(曾祖)는 빼버리고 증조모의 아버지를 써(書)서 삼대조고(三代祖考)라고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상고하여 보니 《왕대종족기(王代宗族記)》에 말하기를, “국조(國祖)는 태조의 증조이고 정명왕후(貞明王后)는 국조(國祖)의 비(妃)이다”고 하였고, 《성원록(聖源錄)》에는 말하기를, “보육성인(寶育聖人)이라는 이는 원덕대왕(元德大王)의 외조(外祖)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국조 원덕대왕은 당귀성(唐貴姓)이란 이의 아들로서 의조(懿祖)의 아버지가 되며, 정명왕후는 보육(寶育)의 외손부(外孫婦)로서 의조(懿祖)의 비(妃)인 것이다. 보육을 국조 원덕대왕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또 말하기를, “의조(懿祖)가 아버지 당귀성이 남겨둔 활과 화살을 얻어가지고 바다를 건너 멀리 가서 근친(覲親)하였다. 그러니 그의 뜻은 깊고 절실한 것이다. 용왕(龍王)이 그에게 하고 싶은 것을 물으니, 그는 즉시 동방의 우리나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였다”고 하였다. 아마 의조(懿祖)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원록(聖源錄)》에 말하기를, “흔강대왕(昕康大王), 즉 의조(懿祖)의 아내 용녀(龍女)라는 이는 평주(平州) 사람 각간(角干) 두은점(豆恩沾)의 딸이다”고 하였다. 그러니 김관의(金寬毅)가 기록한 것과는 다르다.

《왕제(王制)》에, “천자(天子)는 7묘(廟)를 모신다. 3소(昭)와 3목(穆)¹과 태조(太祖)의 묘를 합하여 7묘인 것이다. 제후(諸侯)는 5묘(廟)를 모신다. 2소와 2목과 태조의 묘를 합하여 5묘가 된다”고 하였다.

《제법(祭法)》에 말하기를, “왕(王)은 7묘(廟)와 1단(壇), 1선(塹)²을 세우며, 제후는 5묘와 1단, 1선을 세운다”고 하였다.

한(漢)나라의 위현성(韋玄成) 등은 말하기를, “나라에 7묘(廟)를 모시는 것은, 후직

- 1 소(昭), 목(穆) :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순서. 중앙에 시조의 신주를 모시고, 시조 신주의 왼쪽 줄을 소(昭), 오른쪽 줄을 목(穆)이라고 한다. 소에는 2세 · 4세 · 6세를, 목에는 3세 · 5세 · 7세를 모신다.
- 2 단(壇), 선(塹) : 단이나 선이나 다 제사지내는 곳이니 단은 흙을 쌓아 단을 모은 곳이고, 선은 땅바닥을 닦아서 제터를 만든 곳이다.

(后稷)이 처음 ‘제후’로 봉하여졌고, 문왕(文王)·무왕(武王)은 처음 천명(天命)을 받아 왕(王)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사당인 3묘(廟)는 훼손(毀撤)하지 않고, 거기에 친묘(親廟)를 합하여 7묘가 된다”고 하였다. 유흠(劉歆)은 말하기를, “7묘(廟)라는 것은 천자가 모시는 사당의 바른 수(正數)로서 변할 수 없는 몇몇한 수(數)인 것이다. 그밖에 종(宗)³이라는 것이 있다. 종(宗)은 예외(例外)로서 일정한 묘수(廟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공덕(功德)이 있는 임금이면 그를 높여(宗之)서 묘(廟)를 훼손하지는 않는 것이니, 특히 높여 받드는 묘(廟)의 수는 미리 그 수를 정할 수 없다. 은(殷)나라에는 특히 높여서 받드는 묘가 셋(三宗)이 있었다. 주(周)나라의周公(周公)이 이 제도를 거론(擧論)하여 성왕(成王)에게 권(勸)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에 따라 말한다면 종(宗)은 일정한 수가 없는 것이다. 위씨(韋氏), 즉 위현성(韋玄成)의 설(說)과 같은 묘(廟)의 제도는 오직 주(周)나라의 제도일 뿐인 것이다. 《상서(商書)》에 이윤(伊尹)이 말하기를, “7세(世)의 묘(廟)에서 ‘조상’의 덕(德)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니 7묘(廟)의 제도는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 반고(班固)가 유흠(劉歆)의 설을 옳다고 한 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소(昭)와 목(穆)의 위치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회암(晦菴) 주자(朱子)는, 《좌씨전(左氏傳)》에서, “주나라 태왕(太王)의 신주(神主)는 소(昭), 그의 아들인 왕계(王季)의 신주는 목(穆), 문왕은 소(昭), 무왕은 목(穆)”이라고 한 것과, 안사고(顔師古)가 말한, “부(父)는 소(昭), 아들은 목(穆), 손자는 다시 소(昭)가 된다”고 한 것을 들어 반복(反復)하여 논(論)하였다.

지금 상고하여 보니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묘(廟)에 옮겨가는 신주(神主)는 소목(昭穆)으로 두 조묘(祧廟)⁴ 안에 합하여 간직한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소(昭)

3 종(宗) : 종은 높인다는 뜻이다.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예법은 일정한 대수(代數)가 정하여 있다. 가령 천자는 태조묘(太祖廟) 외에 3소 3목(三昭三穆)이고, 제후는 태조묘와 2소 2목이고, 대부(大夫)는 시조묘와 1소 1목이다. 이렇게 시조의 사당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대수(代數)가 다하게 된 신주는 옮긴다. 그러나 특히 공덕이 있는 조상의 사당은 제한을 받지 않고 영구히 옮기지 않는다. 이른바 불천위(不遷位)의 사당인 것이다. 이 불천위의 사당을 종(宗)이라고 한다.(宗 尊祖廟也, 廟號不遷最尊者曰祖次曰宗)

4 조묘(祧廟) : 대가 다한(代盡) 신주를 옮겨다가 모시는 사당, 천묘(遷廟).

와 목(穆)은 각각 그 차례대로 두 조묘(祧廟)에 간직한다”고 하였다.

그가 말한, ‘합하여 간직한다’는 것은 여러 소(昭)의 신주를 좌조(左祧)에 합하여 간직하고, 여러 목의 신주를 우조(右祧)에 합하여 간직한다는 것이고, 소·목(昭穆)의 신주를 다 한 데 합하여 우조(右祧)에 합하여 간직하였다가 좌조(左祧)에 옮긴 뒤에 단(壇)에 가고, 선(壇)에 가고, 그리하여 귀(鬼)로 간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공영달(孔穎達)이 말하기를, “예(禮)는 3년상(三年喪)을 마치면 친대(親代)가 먼 조상은 차례로 조묘(祧廟)로 옮기고, 새 신주가 사당에 들어간다. 소·목(昭穆)의 차례를 헤아려서 소(昭)의 차례에 해당하는 신주는 소묘(昭廟)에 들어가고, 목(穆)의 차례에 해당하는 신주는 목묘(穆廟)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 설명이 매우 분명하여서 다시 더 의심할 것이 없다.

민묵헌(閔默軒) 지(漬)가, “소(昭)는 마땅히 옮겨서 목(穆)이 되어야 하고, 목(穆)은 마땅히 옮겨서 소(昭)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드러내 놓고 주자(朱子)를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또 그의 《세대편년(世代編年)》이라는 저서(著書)를 상고하게 하였더니, “소·목(昭穆)은 만세(萬歲)에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찌 그의 논설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었을까.⁵

형제(兄弟)가 서로 임금의 대(代)를 이은 것을 《공양전(公羊傳)》에, “소목이 반열(班列)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

공영달(孔穎達)이 말하기를, “형제가 서로 임금의 대(代)를 이은 것을 따라 소목(昭穆)을 다르게 한다면, 가령 여기 형제 넷이 모두 차례로 대를 이어 임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죽은 삼형제의 사당과 아버지의 사당, 거기에 태조(太祖)의 사당을 합하면 5묘가 되므로 조부의 사당은 곧 휘철해야 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그 사리(事理)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공양자(公羊子)는 다만 그 소목의 반열을 같이 한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공씨(孔

5 민공(閔公)이 경릉(慶陵 : 忠烈王) 때에 《세대편년(世代編年)》을 저작하고, 뒤에 덕릉(德陵 : 忠宣王)의 명령을 받들어 또 저서 하나를 내었으니 이름을 《편년강목(編年綱目)》이라고 하였는데, 위의 두 가지 저서 속의 소목론(昭穆論)이 서로 같지 않다.

氏)는 그 형제가 서로 이은 세대(世代)의 수(數)를 아울러 논(論)하였다. 아깝게도 미진(未盡)한 것이 있다. 만약 형제 다섯이 모두 차례로 임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차 그들의 사당 중에서 하나는 혈어야 하는가. 그것은 혈지 않는 것과 친등(親等)이 같은 것이므로 혈지 말아야 할 것일까. 소(昭) 혹은 목(穆)이 4묘(廟)가 된다면 이것은 형제가 반열을 같이 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다섯이 모두 서로 이어 임금이 되었을 때에는 5세(世)가 된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동반(同班)이라고 하여 차례로 휘철하는 것을 논의(論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나의 어리석은 의견에는 형이 죽고 아우가 대신 임금이 된 경우, 입묘(入廟)하는 것은 친묘(親廟)에 비교하면 그 뜻이 본래부터 강쇄(降殺)됨이 있다. 친묘(親廟)는, 천자(天子)는 7세(世)에, 제후는 5세에 차례로 휘철한다. 형제의 경우에는 3세에 휘철하는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억단(臆斷)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선대의 임금으로서 형제가 서로 왕위(王位)를 이은 이는 태조(太祖)의 아들인 혜종(惠宗) · 정종(定宗) · 광종(光宗)과, 현종(顯宗)의 아들인 덕종(德宗) · 정종(靖宗) · 문종(文宗)이 있고, 문종(文宗)의 아들인 순종(順宗) · 선종(宣宗) · 숙종(肅宗)이 있으며, 인종(仁宗)의 아들인 의종(毅宗) · 명종(明宗) · 신종(神宗)이 있다. 묵헌(默軒)은 여기에 대하여는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통감(通鑑)》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 고려 태조가 호승(胡僧) 말라(機羅)를 통하여 진(晉)나라의 임금 고조(高祖)에게 말하기를, “발해(渤海)는 우리와 통혼(通婚)한 사이인데 그 임금이 거란(契丹)의 포로가 되었으니 청컨대 진나라의 조정(朝廷)과 함께 거란을 치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고조(高祖)가 듣지 않더니, 소제(少帝) 때에 이르러 거란과 진(晉)나라가 원수가 되었으므로 말라(機羅)가 다시 말하니, 소제(少帝)가 우리로 하여금 거란(契丹)의 동쪽 변경을 요란(擾亂)시켜서, 그 병세(兵勢)를 나누어 놓고자 하여 곽인우(郭仁遇)를 우리나라에 사자(使者)로 보냈었다. 우리나라의 병력이 매우 약한 것을 보고, “전일의 말라(機羅)의 말이 특히 과장(誇張)된 허튼 것이다”고 하였다.

그 말은 이리하나, 후당(後唐) 청태(淸泰) 3년에 거란(契丹)이 석경당(石敬瑭)을 세

위서 진제(晉帝)로 삼았으니 이 이가 진(晉)의 고조(高祖)이다. 거란의 임금과 부자(父子)의 의를 맺고, 해마다 금 30만 냥(兩)과 명주 30만 필을 바치기를 서약하였다.

이 해에 후백제(後百濟)의 왕(王) 견훤(甄萱)이 우리나라로 도망해 와서 반역(反逆)한 그의 아들 신검(神劍)을 토벌하기를 청하므로 우리 고려 태조가 친히 정벌하여 신검을 잡아 죽이매 후백제가 멸망하였다. 그리고 신라왕(新羅王) 김부(金溥)도 또한 국토(國土)를 바치고 입조(入朝)하였다.

삼한(三韓)이 이미 통일되었으므로 드디어 싸움을 그치고 백성을 안식(安息)하게 하여 문교(文教)를 닦았으니, 발해 장군 신덕례(申德禮), 예부경(禮部卿) 태화균(太和鈞), 공부경(工部卿) 태덕예(太德譽) 등 수천만 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와서 귀화하였다. 그 발해(渤海)와 서로 혼인하였다는 것과 같은 일은 국사(國史)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태조의 심원(深遠)한 지모(智謀) · 책략은 공명(功名)을 힘쓰지 않았는데 어찌 오계(五季)의 시대에 중원(中原)이 온통 혼란에 빠져서 함께 손잡고 일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겠으며, 석경당(石敬瑭)과 제포(帝堧)⁶와의 친교(親交) 관계는 이간할 수 없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였겠는가. 또 어찌 한 사람의 사신(使臣)을 보내지 않고 이역(異域)의 중(僧)을 통하여, 바다를 건너서 새로 이루어 아직 채 성취(成就)하지 못한 진(晉)에 모의(謀議)하여 발해를 위해, 한창 강성(强成)한 거란에게 원수를 만들려고 하였겠는가. 또 객인우가 와서 과연 우리나라 군사의 허실(虛實)과 강약(强弱)을 죄다 볼 수 있었겠는가. 진(晉)나라의 군신(君臣)들이 전에는 말라(襍羅)의 말에 미혹하고 뒤에는 인우(仁遇)의 말을 믿어서, 드디어 우리 태조(太祖)가 과장(誇張)된 허튼 말을 하였다 하는 것이 어찌 그릇됨이 아니겠는가.

지금의 중국 조정의 《경세대전(經世大典)》에서 규장각학사(奎章閣學士) 우집(虞

6 제포(帝堧) : 옛날에 야율덕광(耶律德光)이 난성(鑾城)에서 호림(虎林)을 죽이니 거란(契丹) 사람들이 그 시체의 내장을 빼내어버리고 소금을 쳐서 싣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한(漢)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제포(帝堧)라고 하였는데 임금의 포(脯)라는 뜻이다. 따라서 거란을 제포라고 불렀다고 한다.

集) 등이 우리나라 일을 찬술(撰述)하여 말하기를, “태조 황제(太祖皇帝) 12년에 중국의 군사가 거란(契丹)의 배반한 무리를 토벌하여 고려에 이르렀을 때에, 고려 국 사람 홍대선(洪大宣)이 항복하여 중국 군사의 향도(嚮導)가 되어 함께 그 나라를 치니 그 나라의 임금이 항복하였다”고 하였다.

소위 배반한 사람이란 것은 금산왕자(金山王子)를 말한 것이다. 그가 참람스럽게 하삭(河朔)에서 황제(皇帝)라고 일컫고 연호(年號)를 천성(天成)이라고 하였다. 조금 뒤에 석권(席捲)의 기세로 동쪽으로 달려 나와 우리나라의 북쪽 변경에 함부로 침입하였다. 몽고의 태조가 합진찰랍(哈真札臘)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토벌하게 하였다.

그때는 고려 충현왕(忠憲王)⁷ 5년인 무인(戊寅)년 겨울 12월이었다. 날씨가 몹시 춥고 비와 눈이 내려서 군량을 운반할 수 없었다.

적(賊)이 성벽(城壁)을 깊게 하여 몽고의 군사를 피로하게 만드니, 우리의 충현왕이 군사와 식량을 제공하여 왕사(王師)를 도와 금산왕자의 머리를 베고 그의 무리들을 무찔렀던 것이다. 그때에 우리나라와 몽고의 두 나라는 형제지국(兄弟之國)의 맹약(盟約)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공(虞公)의 기록은 마치 황제가 우리나라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 오니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것 같이 하였으며, 두 나라 군사가 적(賊)을 협공(挾攻)한 공(功)이라든가, 우호의 맹약을 맺은 것은 빼어버리고 쓰지 않았다. 그리고 홍대선(洪大宣)이란 자는 변경의 고을에 있는 한낱 서리(胥吏)로서 몸을 빼쳐 도망하여 항복하였으니, 어찌 한 부대의 군대인들 임시로 꾸며댄 그의 협력으로 우리나라를 함께 칠 수 있었겠는가.

또 말하기를, “태종(太宗) 3년에 살탐(撒答) 등을 보내어 토벌하니 그 왕(王)이 또 항복하였다. 거기 경(京)·부(府)·현(縣)에 72명의 다루하치(達魯花赤)를 두고 회군(回軍)하였더니 4년에 다루하치를 죄다 죽이고 배반하여 해도(海島)를 확보(確保)하였다”고 하였다.

그가 말한 바 다루하치라는 것은 중국 조정이 임명한 것이란 말인가, 장수가 제명

7 충현왕(忠憲王) : 고종(高宗).

(制命)을 받들어 자신이 설치한 것이란 말인가. 부(府)나 현(縣) 같은 작은 곳은 논하지 않고라도 두 서울(二京)의 다루하치는 지위가 미소(微小)한 것이 아닌데 또한 그 이름도 쓰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다루하치가 이렇게 많다면 그들을 두는 일도, 죽이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닌데 국사(國史)에 이미 그러한 기록이 없으며 옛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도 또한 알지 못하니 이것은 더욱 의심할 만한 것이다.

혼자서 가만히 그렇게 ‘사실이 왜곡(歪曲)된’ 까닭을 찾아보니, 그때 천자(天子)는 북정(北庭)에 있어서 우리나라와의 거리는 만리(萬里)가 넘는 먼 곳이었으니 일의 사실과 허위를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며, 살탑(撒塔)이 요좌(僚佐)에서 군사로서 자신을 둘러싸 호위시켜 놓고는 홍대선(洪大宣)과 함께 노략질과 약탈을 탐해서 우리의 공(功)을 덮어 숨기고 우리에게 죄를 씌워 무고하여, 중국의 조정을 격노시켜서 제멋대로 침략과 살육을 함부로 하였던 것이다. 우집(虞集)이 자세히 고찰하지 못한 것이다.

아, 예로부터 장수된 자가 임금을 속이고 군사들을 노고하게 만들어서 부귀를 도둑질하는 일이 있건마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자신이 직접 변백(辨白)하지 못하여 뜻밖의 도륙(屠戮)을 당한 것을 어찌 이루 다 셀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말하기를, “대신(大臣)으로서 일찍이 귀양살이를 한 일이 있거나 담당관의 탄핵(彈劾)이 있어서 파면된 자는 종묘(宗廟)에 배향(配享)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은 근거 없는 말이다. 《제법(祭法)》에 말하기를, “법을 백성에게 베풀어서 죽음으로써 부지런히 일하고 노고하여 나라를 안정하였거나, 능히 큰 재앙을 막았거나, 능히 큰 환난(患難)을 물리쳤으면 이런 사람은 종묘에 배향한다. 이러한 등류(等類)의 무리가 아니면 《사전(祀典)》에는 국가에서 제사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지금 종묘에 배향된 이들이 비록 이러한 무리에 비할 바는 못 되나, 요(要)는 다 국가에 공로가 있고 백성에게 덕이 있는 자라면, 설혹 한 때에 임금의 노여움을 촉발

(觸發)시켜서 귀양살이를 하였거나, 일을 당하여 시행착오를 저질러서 탄핵을 만나 파면되었다고 한들 장차 그를 버리어 종묘에 배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간사하게 비위를 맞추고 구차하게 잘 보여서 제 한 몸을 안전하게 하고 지위를 보전하면서 기록할 만한 공로도 덕행(德行)도 없는 자를 추켜서 종묘 배향을 시킬 수 있겠는가.

국사(國史)를 고찰(考察)하여 보니 유금필(庾黔弼)은 일찍이 곡도(鵠島)에 귀양 간 일이 있었으나 태조(太祖)의 묘정(廟庭)에 종사(從祀)하였고, 윤관(尹瓘)은 구성(九城)의 역사(役事) 때문에 탄핵을 받았으나 예종(睿宗)의 사당에 배향(配享)하였으니, 이 말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의 공적(功績)이 그의 죄과(罪過)를 덮기에 부족한 자는 저절로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이부(吏部)에서는 문관(文官)의 전선(銓選)을 맡고, 병조(兵曹)에서는 무관(武官)의 고선(考選)을 주관한다. 고선을 받는 자의 시험 합격, 또는 출사(出仕) 연월(年月)의 순서와 노고(勞苦)함과 안일함을 구분하고, 그들의 공과(功過)를 표기(標記)하며 그들의 재능을 평가하여 구체적으로 서면(書面)에 기재한다. 이것을 정안(政案)이라고 한다.

이 정안(政案)은 중서(中書)에서 승진과 파면 등의 시안(試案)을 작성하여 임금께 주청(奏請)하고, 문하(門下)에서 제칙(制勅)을 받들어 이것을 시행한다. 이러한 국가의 법(法)은 대체로 중국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최충헌(崔忠獻)은 임금을 폐하고 세우는 것을 제 마음대로 하였으며, 항상 관부(官府)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보조자들과 함께 가만히 정안(政案)을 가져다가 벼슬을 제수(除授)할 후보자로 자기의 당파에 속하는 자를 추천하는 문안(文案)을 작성하고, 승선(承宣)이란 벼슬아치에게 주어서 임금께 들어가 사죄게 하면 임금이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쫓았다. 그리하여 충헌(忠獻)의 아들 이(怡=璘), 손자 향(沆), 향의 아들 의(鎭) 4대가 정권을 잡아 뒤틀린 관습이 되어버렸다.

이 인사(人事) 사무에 관계하는 승선(承宣)을 정색승선(政色承宣)이라고 하고, 속

료(屬僚)로서 이 일을 담임하는 자 중 삼품(三品)인 자를 정색상서(政色尙書), 사품(四品) 이하인 자를 정색소경(政色少卿)이라고 하며, 필기도구(筆記道具)를 가지고 그 밑에서 종사(從事)하는 자를 정색서제(政色書題)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곳을 정방(政房)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관부(官府) 안에서 사사로이 부르는 칭호이다.

평장사(平章事) 금의(琴儀), 수상(首相) 김창(金敞), 상서(尙書) 박환(朴暄)과 같은 여러 명사(名士)들도 다 이 계통을 거쳐서 승진하였는데, 그때의 세상에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유문정공(柳文正公) 경(璣)이 김인준(金仁俊)과 협력하여 최의(崔瑗)를 베고 정권을 왕실(王室)로 돌린 뒤에도 그 정방(政房)이란 것은 그냥 두고 혁파(革罷)하지 아니하여, 왕실(王室)의 중요한 직임(職任)을 최충현 일가(一家)의 권문(權門)에서 사사로이 지어 부르던 정방의 칭호를 습용(襲用)하였으니 탄식할 만한 일이었다.

덕릉(德陵)이 처음으로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문전(文銓)·무선(武選)을 모두 선충부(選物部)에 맡겨서 수상(首相)과 아상(亞相)이 주관하게 하니 거의 옛날의 아름다운 상태를 회복할 가망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의 복심(腹心)의 신하로서 전선(銓選)의 사무에 익숙한 자들에게, 다른 관직(官職)에 있으면서 이 일을 겸임하게 하여 오래도록 바꾸지 아니하니 이에 완둔(頑鈍)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자와, 경박(輕薄)하고 무리하게 승진하려고만 날뛰는 무리들이 기회를 타고 허물을 본받아서, 위를 속여서 자신을 봉(封)하게 만들었다.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는 아름다운 뜻으로 하여금 한갓 문구(文具)⁸가 되게 할 뿐이니 이 또한 한스러운 일이었다.

이 타성(惰性)이 나아가서 의릉(毅陵)⁹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하루하루 더 심하여져서 붉은 인주(印朱)로 인(印)을 찍어 봉함한 정안(政案)의 문자(文字)가 환시(宦寺)¹⁰의 손에서 뭉개지고 지워지니 흑책정사(黑冊政事)라는 비방(誹謗)이 부녀자(婦女子)와 어린아이들의 입에까지 유파(流播)되었다.

8 문구(文具) : 형식만 꾸민 것.

9 의릉(毅陵) : 충숙왕(忠肅王).

10 환시(宦寺) : 환자(宦者).

《좌전(左傳)》에 말하기를, “자신을 박(薄)하게 하는 정신에서 법을 만들어도 그 폐단은 오히려 탐욕(貪慾)한 것인데 탐욕의 정신에서 법을 만든다면 그 폐해는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한 것은 이걸 두고 한 말인가.(아이들이 두꺼운 검은 종이를 여러 겹 붙여서 거기에 기름을 먹여 가지고 글씨연습을 하는 것을 흑책(黑冊)이라고 한다. 의릉(毅陵)이 봉자산(奉子山) 이궁(離宮)에 있을 때, 병 때문에 사람 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안과 밖이 막혔다. 용사자(用事者)들이 비목(批目)이 내려오면 다투어서 서로 뭉개고 지우고 하여 인주와 먹을 구분할 수 없기에 이르니, 그때의 사람들이 이것을 흑책정사(黑冊政事)라고 말하였다.)

신종조(神宗朝)에 기홍수(寄洪壽)와 차약송(車若松)이 같이 평장사(平章事)가 되어서 중서(中書)에 합좌(合坐) 하였다.

차(車)가 기(寄)에게 묻기를, “공작(孔雀)이 잘 있는가”라고 하였다. 기(寄)도 또한 모란(牧丹) 배양(培養)하는 법을 물었다.

그때의 사람들이, “한 나라의 평장사 두 사람이 의식을 갖추어 합좌한 자리에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이것인가” 하고 비웃었다.

국가가 도병마사(都兵馬使)를 설치하고 시중(侍中) · 평장사(平章事) · 참지정사(參知政事) · 정당문학(政堂文學) ·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판사(判事)를 삼고, 판추밀(判樞密) 이하로 사(使)를 삼아서, 큰 일이 있으면 모여서 의논하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합좌(合坐)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

합좌(合坐)의 예의(禮儀)는 먼저 온 자가 자리를 떠나서 북쪽을 향하여 서고, 뒤에 온 자가 그 위치에 따라 한 줄로 서서 읍(揖)한 다음, 같이 좌석 앞에 이르러 남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자리를 떠나 북쪽을 향하여 엎드려서 서로 안부를 묻는다. 다시 좌석의 앞에 와서 남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자리를 떠나서 북쪽을 향하여 한 줄로 서서 읍한 뒤에 비로소 앉는다. 지침의(知僉議) 이상이 도착하면, 밀직(密直)은 다 뜰에 내려가서 북쪽을 상석(上席)으로 하고 동쪽을 향하여 서서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낮게 가진다. 첨의(僉議)가 그 위쪽에 서서 두 줄로 읍하고 마루에 올라가 절하고, 읍하고, 앉는 것을 앞에서 설명한 예의(禮儀)와 같게 한다.

이미 침의 일원(一員)이 출석하여 같이 앉게 된 뒤에는 비록 지침의 이상이 도착하더라도 밀직(密直)이 다시 뜰에 내려가 맞는 예의(禮儀)는 없다. 다만 수상(首相)이 도착하면 아상(亞相) 이하가 다 뜰에 내려가서 북쪽이 상석이 되도록 동향하여 서서 영접(迎接)한다. 그리하면 수상은 서쪽을 향하여 마주 읍한다. 그렇게 한 뒤에 마루에 올라가 절하고, 읍하는 것은 또한 앞의 예의(禮儀)와 같다.

수상(首相)은 혼자 동쪽에 앉는다. 그것을 곡좌(曲坐)라고 한다.

아상(亞相) 이하는 한 줄로 앉는다. 수상이 정승(政丞)(여기에 정승이라고 한 것은 옛날의 시중(侍中)이다.)이 아니면 곡좌(曲坐)도 하지 않고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뜰에 내려가 맞는 일도 하지 않는다.

녹사(錄事)가 회의사항(會議事項)을 앞에 가서 보고하면 각기 자기의 의사대로 그 가부(可否)를 말한다. 녹사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회의사항으로 하여금 일치한 결정이 지어지게 한다. 그렇게 한 뒤에 시행하는 것을 의합(議合)이라고 한다.

그 외에는 단정하게 앉아서 말을 하지 않는다. 바라보면 의젓하고 엄숙하여서 진정 경건한 생각과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었다.

지금은 침의(僉議)·밀직(密直)을 증원(增員)하고, 또 각각 상의(商議)하는 관원이 있다. 판삼사사(判三司事)가 아상(亞相)의 윗자리에 앉고 좌사(左使)·우사(右使)가 평리(評理)의 윗자리와 아랫자리에 앉았으며, 무리를 이루어 나아가고 떼를 지어 물러나며, 가끔씩 높은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웃으며, 규방(閨房) 안의 부부(夫婦) 사이의 사사로운 일과, 장터의 쌀값, 소금값의 사사로운 이해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었다. 이것을 위에서 이야기한 기홍수(奇洪壽)·차약송(車若松) 두 평장사의 공작(孔雀)·모란(牧丹)의 문답과 비교한다면 또 각기 그것도 한 때, 이것도 한 때인 어스비슷한 것이다.

옛 제도에 이부(二府)에서 지공거(知貢舉)¹¹가 되고, 경(卿)·감(監)이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된다.

11 지공거(知貢舉) : 과거의 장시관(掌試官), 시관.

과거(科擧)를 보이는 날에는, 날이 밝기 전에 지공거(知貢擧)가 북쪽 의자에 앉아 남쪽을 향하고 동지공거는 서쪽 의자에 앉아서 동쪽을 향한다. 감찰(監察)은 왕명을 받들고 와서 남쪽의 조금 서쪽에서 동쪽을 상석(上席)으로 하고 북향하여 앉고, 장교(將校)는 기(旗)를 들고 계하(階下)에 나누어 선다.

거자(擧子)¹²가 모이고 나면 즉시 문을 잠그고 공원리(貢院吏)가 거자(擧子)의 이름을 불러서 동무(東廡)·서무(西廡) 두 곳에 나누어 수용(收容)하고, 동·서에 나무를 세우고 시험보이는 문제를 써서 그 나무 위에 걸어 놓는다.

시간이 옹중(禺中)¹³에 이르면 승선(承宣)이 금인(金印)을 받들고 도착한다.

동지공거(同知貢擧)가 그를 뜰 가운데서 영접하여 서로 읍하고 나아가면, 지공거는 북쪽 벽(壁) 뒤로 자리를 피한다. 승선이 동지공거와 함께 마루에 올라가 두 번 절하고 서로 안부를 묻은 뒤에 또 두 번 절한다. 지공거가 나와서 북쪽 평상 아래의 자리 위에 앉으면 승선이 북향하여 두 번 절한다. 지공거도 또한 두 번 절한다. 승선이 지공거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안부를 묻으면 지공거는 그 앉은 자리에서 답례한다. 승선이 물러나와 또 두 번 절하면 지공거도 또한 두 번 절한다. 그렇게 한 뒤에 서로 읍하고 앉는다.

승선은 동쪽의 의자에 앉아서 서향하여 동지공거와 마주 대한다. 아전(吏)이 거자(擧子)들이 바친 답안지(答案紙)를 안고 와서 올리면 승선(承宣)이 금인(金印)을 열어서 시험 답안지에 인(印)을 찍는다.

내시(內侍)가 황봉(黃封)의 선온(宣醢)¹⁴을 가져오면 지공거와 동지공거가 승선과 함께 하사(下賜)한 것을 절하고 받아서 평상에 나아가서 마시고 끝나면 또 절하여 사례(謝禮)한다. 승선이 돌아가면 동지공거가 뜰에 내려가 읍하고 보낸다. 삼장(三腸)을 다 이렇게 한다.(제1장과 제2장에는 승선(承宣)이 와서 인(印)이 찍힌 시권(試券)의 봉(封)한 것을 열어 시원(試院)에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제3장에서는 왕의 엄전(簾前)에서 방방(放榜)한다.)

김문정(金文貞) 구(丘)가 지공거(知貢擧)였을 때에 홍충정(洪忠正) 자번(子藩)이 승

12 거자(擧子) : 응시자.

13 옹중(禺中) : 사시(巳時)니 지금의 오전 10시쯤이다.

14 선온(宣醢) : 관(官)에서 빛은 술로서 임금에 주는 것.

선(承宣)이 되어 문(門)에 버티고 서서 힐책(詰責)하기를, “아무개가 왕명을 받고, 금인(金印)을 받들고 왔으나 지공거(知貢舉)가 뜰에 나와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개는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고 하니 문정(文貞)이 말하기를 “승선(承宣)이 재상(宰相)에게 나아가면 재상은 앉아서 접대하는 것인데 지금 드디어 기립(起立)하여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예(禮)가 지나치는 것이다. 더구나 뜰에 내려가 맞는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홍충정이 말하기를, “시간이 장차 늦어지겠습니다”고 하니, 문정(文貞)이 부득이 하여 계단을 내려갔으나, 한 층을 남기고 다 내려가지 않았다. 충정(忠正)이 비로소 들어왔다고 한다.

어떤 이가 “누가 옳은가” 하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문정의 말은 선왕(先王)의 정한 제도가 대신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이고, 충정의 말은 임금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의 임금으로 하여금 선왕(先王)의 법을 본받아 대신을 존경하게 하는 것도 또한 임금을 높이는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덕릉(德陵)¹⁵이 일찍이 신(臣) 제현(齊賢)에게 묻기를, “우리 태조 때에, 거란이 탁타(駱駝)를 보낸 것을 다리 밑에 매어두고 풀이나 마태(馬太)를 주지 아니하여 굶어죽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 다리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 낙타가 비록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나 중국에도 또한 일찍이 양축(養畜)하지 않은 때가 없고, 나라의 군주(君主)는 수십 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있으나 그 폐해가 백성을 상하게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다. 또 물리치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 어찌 받아가지고 굶겨서 죽이는 데에 이르게 하였을까”라고 하였다.

신은 대답하기를, “왕업(王業)을 창시(創始)하여 왕통(王統)을 자손에게 영원히 전하는 임금은 그 보는 것이 멀고, 그 생각하는 것이 깊어서 후세(後世)에서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송(宋)나라의 태조(太祖) 같은 이는 궁금(宮禁) 안에서 산돼지를 기르게 하였는데 인종(仁宗)이 그것을 놓아 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뒤에 요인(妖人)을 얻었을 때에 도리어 피(血)를 채취(採取)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송

15 덕릉(德陵) : 충선왕(忠宣王).

태조의 생각이 또한 여기까지 미쳤던 것일까요. 이것도 또한 정론(定論)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송 태조의 돼지를 양축(養畜)한 뜻이 피를 채취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태조가 이러한 일을 한 까닭은 장차 오랑캐들의 흘계(謠計)를 꺾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또한 후세(後世)의 사치심을 억제(抑制)하려 한 것인지, 아마 반드시 미묘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殿下)께서 공손히 묵묵히 생각하여 힘써 행하여 몸소 본받을 것이고 어리석은 신이 감히 경솔하게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고 하였다.

또 물기를,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문물(文物)이 중화(中華)와 같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 학자(學者)들이 다 승려(僧侶)를 따라다니며 장구(章句)나 익히는 것으로 일삼고 있어서 조충전각(雕蟲篆刻)¹⁶의 무리는 번성하고, 경서(經書)에 밝고 덕행(德行)을 수양(修養)하는 선비는 매우 적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신(臣)은 대답하기를, “옛날 우리 태조(太祖)가 거칠고 어두운 세상을 다스려 바로 잡느라고 날마다 겨를이 없었건마는, 제일 먼저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한 번 서도(西都)에 거동하셔서 드디어 수재(秀才) 정악(廷鶯)을 명하여 박사(博士)를 삼고, 육부(六部)의 학생을 교수하게 하였습니다. 비단과 명주를 상으로 내려 주어 이를 권장하고 창고의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이들을 양성하였으니 그 마음 쓰는 것이 절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종(光宗) 이후로는 더욱 문교(文教)를 닦게 되어 안으로는 국학(國學)을 높이고, 지방에는 향교(鄉校)·이상(里庠)·당서(黨序)가 벌여 있어서 거문고를 타며, 글을 읽는 소리가 서로 들리었고,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함양(涵養)하고 감화하여, 마치 띠풀뿌리가 서로 얽힌 것처럼 연결되어 가면서 초창(草創)하고 윤색(潤色)하였으니 이른바 문물(文物)이 중국과 비등하다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 의종(毅宗) 말년에 무인(武人)의 난(亂)이 일어나 문신(文臣)들을 멸살(滅殺)하는 데에 훈(薰)¹⁷과 유(猶)¹⁸가 냄새를 같이 하고, 옥(玉)과 돌이 함께 불타는 것처럼 선악(善惡)의 구별

16 조충전각(雕蟲篆刻) : 벌레의 모양을 새기고 전자를 조각하는 것처럼 자질구레하게 문장의 자구(字句)를 수식(修飾)하는 작은 기교.

17 훈(薰) : 향기가 나는 풀.

18 유(猶) : 악취가 나는 풀.

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몸이 호구(虎口)를 벗어난 자는 깊은 산중에 종적을 숨겨, 유자(儒者)의 차림인 갓과 띠를 벗어 던지고 가사(袈裟)를 입고 살아 있는 남은 동안을 보냈으니 신준(神駿)·오생(悟生)과 같은 무리가 그것입니다. 그 뒤에 국가가 차츰 문교(文教)의 정치를 다시 쓰게 되니 선비들이 비록 배우기를 원하는 뜻이 있으나 도리어 쫓아가서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깊은 산중에서 가사를 입고 숨어 사는 자를 발을 싸매고 멀리 찾아가서 강습(講習)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준(神駿)이 자기에게서 배우던 자를 서울로 보내어 과거(科擧)에 응시하게 하는 시(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릉공자(信陵公子) 정병을 통솔하고, 멀리 한단(邯鄲)에 가서 큰 공을 세우니, 천하의 영웅들이 모두 다 본받아 쫓았으나, 눈물 흘리며 그를 보내던 늙은 후영(侯嬴)¹⁹ 가없어라(信陵公子統精兵 遠赴邯鄲立大功 天下英雄皆法從 可憐渾涕老侯嬴).”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까닭은, 신은 생각하기에, 학자(學者)들이 중을 따라다니며 장구(章句)를 익히는 풍습은 그 근원이 대체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진실로 학교를 넓히고 지방의 학교를 삼가 일으키며 육예(六藝)를 존중히 여기고 오교(五敎)를 밝혀서 선왕(先王)의 도(道)를 천명(闡明)한다면 누가 참 선비를 배반하고 승려를 따라가며, 실천의 학문을 버리고 장구(章句)나 익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장차 자질구레한, 장구를 다듬는 무리가 다 경서(經書)를 밝히고 행실을 닦는 선비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더니 덕릉이 말씀하기를, “경의 말이 그럴 듯하다”고 하셨습니다.

문종(文宗)은 왕위(王位)에 있는 것이 38년이나 되었다. 나이 많은 대신(大臣)들을 임금이 총애(寵愛)하였다. 이자연(李子淵)은 나이가 많고 덕(德)이 높았으므로 임

19 후영(侯嬴) : 전국시대의 위(魏)나라의 은사(隱士). 위나라 신릉군(信陵君)의 지위를 받은 사람. 그때 진(秦)나라가 조(趙)나라를 포위하니 조나라가 위왕(魏王)과 신릉군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위나라 장수 진비(晉鄙)가 진나라를 겁내어 머뭇거리므로 후영이 신릉군에게 헌책(獻策)하여 진비를 죽이고 자기가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진나라를 물리치고 조나라를 구제하게 하였다. 처음에 후영이 신릉군에게 이르기를, “신은 늙어서 중군하지 못합니다. 날짜를 계산하여 공께서 진비의 군중에 이르는 날 북쪽을 향하여 스스로 목을 찢어 죽으리다”고 하였다. 그날 과연 후영은 자살하였다.

금이 매양 편전(便殿)에서 인견(引見)하여 정사를 묻고, 그치면 술자리를 벌여, 밤이 되면 등촉(燈燭)의 광선이 교차하는 가운데에 임금과 신하는 다 백발(白髮)과 방미(龐眉)²⁰로 마주 앉아 마시는 광경은 바라보면 신선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충헌왕(忠憲王)²¹은 옛날에 유승단(俞升旦)에게서 배웠는데 50년 가까이 국왕의 지위를 향유하였다. 아마 학문으로써 그 덕을 기르고,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 지위를 보전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좋아하고 하늘이 그를 보우(保佑)한 것일 것이다.

충경왕(忠敬王)²²이 세자(世子)로서 중국에 입조(入朝)하였을 때에 중국의 황제 헌종(憲宗)이 남쪽으로 정벌을 나가서 조어산(釣魚山)에 머물렀다. 세자가 장차 황제의 행재(行在)로 가려는데, 길이 경조(京兆)의 여산(驪山)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의 수령이 세자에게 온천(溫泉)에 입욕(入浴)하기를 청하였다.

세자가 사양하여 말하기를, “이 곳은 당명황(唐明皇)이 일찍이 입욕한 곳인데,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어찌 더럽힐 수 있겠는가” 하니 사람들이 듣고 그가 예의(禮儀)를 안다고 감탄하였다.

조금 뒤에 천자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곧 수레를 돌려 세조(世祖)를 양초(梁楚)의 들에서 맞이하였는데, 세자가 연한 빛, 모난 겹정 비단의 두건(軟角烏紗幘)과 넓은 소매가 달린 붉은 비단 도포(廣袖紫羅袍)와 무소뿔로 만든 띠, 상아(象牙)로 만든 홀(笏)을 잡은 차림으로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의(禮儀)가 볼 만하였다.

세조(世祖)가 놀라고 즐거워하여 말하기를, “고려는 만 리 밖에 있는 나라이다. 당 태종(唐太宗)이 친히 정벌하여 굴복시키지 못하였는데, 지금 그 세자(世子)가 스스로 와서 나에게 돌아왔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고 하였다.

충렬왕(忠烈王)이 세자(世子)로 있을 때에 학사(學士) 김구(金丘) · 이송진(李松縉)과 중 조영(祖英)과 함께 지은 시(詩)가 있어서 《용루집(龍樓集)》이라는 시집을 내었으며, 왕위(王位)에 오른 뒤에는 날마다 문신(文臣) 최옹(崔雍) 등으로 하여금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진강(進講)하게 하니 많은 아랫사람들이 감화(感化)되어

20 방미(龐眉) : 희고 검은 눈썹.

21 충헌왕(忠憲王) : 고종(高宗).

22 충경왕(忠敬王) : 원종(元宗).

무부(武夫) · 환관(宦官)들까지도 글을 읽고 시(詩)를 잘 짓는 자가 있기에 이르렀었다.

덕릉(德陵)²³이 중국 조정에 입시(入侍)하였을 때에 명사(名士)들을 초대하여古今(古今)의 일을 강론(講論)하여 종일토록 게을리하는 일이 없었다. 삼대(三代)로부터 오계(五季)에 이르기까지 임금과 신하의 잘잘못과, 국가의 잘 다스려진 것과 어지러웠던 일을 어제의 일처럼 자세하게 말하였다.

연우(延祐) 초년에 선비족(鮮卑族)인 한 중이 상언(上言)하기를, “황제의 스승 파사팔(巴思八)이 몽고(蒙古)의 글자를 제작(制作)하여 세상에 공로가 있으니 빌건대 온 천하에 명령하여 고을마다 나라마다 사당을 세워 공자(孔子)를 향사하는 것과 비기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인종(仁宗)이 대신과 여러 원로(元老)들에게 모여서 의논하게 하였다.

이때에 충선왕이 국공(國公) 양안보(楊安普)에게 말하기를, “공자는 모든 임금의 스승으로서 그가 천하를 통하여 향사(享祀)를 받는 것은 그의 덕(德) 때문이고 공로(功勞)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파사팔이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여 그를 가져다가 공자에 비한다면 후세(後世)에 이론(異論)이 있을까 두렵습니다”고 하였다.

파사팔을 향사하는 일이 비록 마침내 시행되고 말았지만, 충선왕의 말을 듣는 자는 그를 훌륭하게 여겼다.

항상 보좌관을 시켜 《송사(宋史)》를 읽게 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듣다가 이항(李沆) · 왕단부(王旦富) · 한기(韓琦) · 범중엄(范仲淹) · 구양수(歐陽修) · 사마광(司馬光) 등 여러 명신전(名臣傳)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우러러 사모하는 뜻을 보였으며, 정위(丁謂) · 채경(蔡京) · 장돈(章惇) 등 간신전(奸臣傳)에 이르러서는 언제나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지 않는 때가 없었다.

그분이 어진 이를 좋아하고 악(惡)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마 하늘에서 타고난 성질일 것이다.

문정공(文正公) 유경(柳暉)이 찬성사(贊成事)로 해면되고, 문순공(文純公) 원부(元

23 덕릉(德陵) : 충선왕(忠宣王).

傳)가 찬성사로 전임(轉任)되어 판군부(判軍簿)가 되었다. 그 뒤에 문정공 유경이 판판도(判版圖)가 되어 다시 재상이 되니 지위가 문순공 원부의 아래에 있게 되었다.

문순공이 말하기를, “내가 유공(柳公)에게는 문생(門生)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그의 윗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문정공이 말하기를, “판군부(判軍簿)는 옛날의 병부(兵部)이고, 판판도(判版圖)는 옛날의 호부(戶簿)로서, 판병부(判兵部)가 제2위의 재상이 되고, 판호부(判戶部)가 제3위의 재상이 되는 것은 그 유래(由來)가 오래된 것입니다. 어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서로 사양하여 두어 달을 끌고 있었다.

충렬왕이 그것을 문정공(文敬公) 허공(許珙)에게 옮기고 그름을 물으니 공(珙)이 대답하기를, “유경(柳敬)의 말은 예전 제도이고 원부(元傅)의 말은 사사로운 은정(恩情)입니다. 후진(後進)이 선배에게 양보하는 것은 예의(禮儀)이니, 원부의 말이 또한 옳은 것입니다. 지금 만약 유경(柳敬)을 감수국사(監修國史)를 시킨다면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그 말에 좇아 임명(任命) 사령을 내리니, 문정공이 드디어 문순공의 윗자리에 앉게 되었다. 대체로 문순공이 그때에 수국사(修國史)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사대(事大)한 이후로 적제(狄鞮)²⁴인 자가 벼슬에 임용(任用)되는 일이 많아서 재상에 임명되는 일이 있었다.

홍충정공(洪忠正公) 자번(子藩)이 항상 말하기를, “사신(使臣)인 사람이 까다롭지 않고 솔직하면 비록 아홉 번 통역을 거치더라도 서로 일을 의논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고 면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자신을 궁지(窮地)에 빠지게 만드는 데 알맞은 노릇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사자(使者)가 우리나라 재상들이 합좌(合坐)한 곳에 도착한 일이 있었다. 고흥부원군(高興府院君) 유청신(柳淸臣)은 자신이 몽고어(蒙古語)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元)나라의 사자(使者)와 더불어 몇 마디 말을 하였더니, 홍충정공이 통역관을 불러 꾸짖기를, “너는 어디에 가 있어서 재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느냐”고 하니, 고흥부원군이 부끄러워하여 낮을 붉히고 땀을 흘렸다.

고흥부원군이 수상(首相)이 되었을 때, 그가 빈객(賓客)과 접촉할 때에는 비록 술잔을 나누며 담소(談笑)할 경우일지라도 또한 통역하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 한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도 손과 주인의 의사를 환하게 알게 되어 적절하게 대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홍충정공의 말에 스스로 훈계되었기 때문일까.

중관(中官) 이대순(李大順)은 원나라 황제 세조(世祖)의 총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교동(喬桐) 사람이다.

그때 충렬왕이 중국 조정에 들어가니 대순(大順)이 황제에게 충렬왕에게 조서를 내려 자기의 형인 교위(校尉) 공세(公世)로 하여금 별장(別將)을 삼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벼슬을 시키는 것은 법과 제도가 있고 고려의 나라에는 임금이 있는데 짐(朕)이 어떻게 간여할 수 있느냐” 하고 이어 대관(大官) 양상존(羊上尊)에게 술잔치를 하사하고 그곳에서 대순 자신이 충렬왕에게 사죄게 하였

24 적제(狄鞮) : 몽고말을 통역하던 사람.

다.

대순의 말을 듣고 왕이 말하기를, “너의 형은 교위(校尉)이다. 산원(散員)을 뛰어 넘어서 별장을 제수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하였다.

대순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뒤에 황제의 말이 그러하였다는 것을 듣고 비로소 제수(除授)하였다.

강경룡(康慶龍)이 집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더니, 대덕(大德) 을사(乙巳)년에 그의 문도(門徒)로서 성균시(成均試)²⁵에 합격한 자가 10인이나 되었다.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제자들이 나와서 경룡(慶龍)에게 뵈오니, 벽제 소리가 밤새도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종실(宗室) 익양후(益陽侯)의 제택(第宅)이 그 근처에 있었다.

다음날 익양후가 궁중에 들어가 뵈오니, 충렬왕이 민간(民間)의 일들을 물었다. 후(侯)가 그 일을 이야기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노인이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남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서 성취(成就)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세상을 보익(補益)함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칙명을 내려서 아전에게 곡식을 싣고 그의 집에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25 성균시(成均試) : 진사를 뽑는 과거.

전집2

전집 2

국초(國初)에 서신일(徐神逸)이 들에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사슴이 몸에 화살이 쏜 채 뛰어 들어왔다. 신일이 그 화살을 뽑아 버리고 숨겨 주었더니, 사냥꾼이 와서 사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꿈에 한 신인(神人)이 감사하는 말이 “사슴은 나의 아들일세. 자네의 힘을 입어 죽지 않았으니, 마땅히 자네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재상이 되게 하겠네”라고 하였다.

신일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필(弼)이라, 필이 희(熙)를 낳고, 희가 눌(訥)을 낳았는데, 과연 서로 이어 태사(太師)가 되고 내사령(內史令)이 되었고, 묘정(廟廷)에 배향하였다.

근세(近世)에 통해현(通海縣)에 거북같이 생긴 큰 생물이 조수(潮水)를 타고 포구(浦口)에 들어왔다가 조수가 빠지니, 가지 못하였다. 백성들이 장차 그것을 도살(屠殺)하려고 하였다. 현령(縣令) 박세통(朴世通)이 금지시키고 큰 새끼로 쌍배(雙舟)를 만들어 가지고 끌어들다가 바다에 놓아 주었다.

꿈에 늙은이가 앞에 와서 절하고 하는 말이, “나의 아이가 날을 가리지 않고 나가 놀다가 하마터면 술에 삶김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공(公)께서 다행히 살려 주셔서 음덕(蔭德)이 큼니다. 공과 아들 손자 3대(代)가 반드시 재상이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세통과 아들 홍무(洪茂)는 모두 재상(宰相)의 지위에 올랐으나, 손자 감(臧)은 상장군(上將軍)으로 치사(致仕)하게 되니, 마음에 불만하여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거북아, 거북아 잠에 빠지지 말라. 삼세재상(三世宰相)이라고 한 것은 빈 말뿐이로구나(龜乎龜乎莫耽睡 三世宰相虛語耳)”라고 하였더니, 이 날 밤에 거북이 꿈에 보여 말하기를, “그대가 주색(酒色)에 빠져서 스스로 복을 감한 것이고, 내가 감히 은덕을 잊은 것은 아니오. 그러나 장차 한 가지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니 잠깐 기다리시오”라고 하였다. 두어 날 뒤에 과연 치사(致仕)가 해제(解除)되고 복야(僕射)가 되었다고 한다.

의종(毅宗)의 말년에 정중부(鄭仲夫) · 이의방(李義方) · 이고(李高)가 난(亂)을 일으켜, 임금을 거제(巨濟)로 옮겨 놓았으며, 조신으로서 화(禍)를 당한 자가 매우 많았다.

또 장차 그들의 가족을 무찌르려고 하니, 대장군 진준(陳俊)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미워하고 원망하던 자는 한뢰(韓賴) · 이복기(李復基) 등 4, 5인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 또한 이미 많다. 더구나 그들의 처자(妻子)까지 죽일 수야 있는가” 하고 힘써 금하였다.

그 뒤 4년에 김보당(金甫鎭)이 군사를 일으켜 반정(反正)을 기도하다가 실패하며, 또 문사(文士)들을 일체 수색하여 무찔러 다 없애니, 중앙과 지방의 인심이 소란하고 어지러워져서 아침이 어떨지 저녁이 어떨지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낭장(郎將) 김부(金富)가 정중부, 이의방에게 말하기를,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으며 인심(人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믿고 의(義)를 지키지 않아서 의관(衣冠)한 문사(文士)들을 풀 베듯 죽였으니, 세상에 어찌 김보당(金甫鎭) 같은 사람이 적겠는가. 우리들 중에 아들딸이 있는 자는 죄다 문관(文官)들의 집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오래 부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좇았다. 그렇게 한 뒤에 그 화난(禍難)이 수그러지게 되었다.

진준(陳俊)의 손자 식(湜) · 화(渚) · 온(溫)은 다 등과(登科)하여 식(湜)은 벼슬이 추밀사(樞密使)에 이르렀고, 화(渚)와 온(溫)은 문장(文章)으로 세상에 이름을 드날렸다.

김부의 아들 취려(就礪)와 손자 전(詮)은 두 대(代)가 수상(首相)이 되었으며, 그 뒤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달(顯達)한 이가 많았다.

몽고의 군사가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침입하여 장차 경기를 범하려고 하니, 진양공(晉陽公) 최이(崔怡 : 瑀)가 도읍을 강화(江華)로 옮기고자 하여 여러 중신들을 청하여 의논하니, 문안공(文安公) 유승단(俞升旦)이 홀로 말하기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도리(道理)입니다. 예(禮)로써 섬기고 신(信)으로써 사귀다

면 저들인들 또한 무슨 명분(名分)으로 번번이 우리를 곤고(困苦)하게 하겠습니까. 성곽(城廓)을 버리고, 종묘사직을 남겨둔 채 바다 섬 속으로 도망해 가 었드려서 구차하게 세월을 끌어가는 사이에 변경의 백성들로 하여금 장정(壯丁)들은 칼날에 다 쓰러지고 노약(老弱)은 붙잡혀 종이 되고 포로가 되게 만드는 것은 나라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진양공이 듣지 않고 자기의 족당(族黨)을 거느리고 먼저 성남(城南)의 경천사(敬天寺)에 이르러 유숙(留宿)하였다. 이 날 따라간 자는 다 차레를 뛰어넘어 포상하였다. 고종(高宗)이 부득이 하여 드디어 강화로 수도를 옮겨가니, 수십 년 동안에 북방(北方)의 주(州)·군(郡)들은 다 폐허가 되어 버렸다. 식자(識者)들이 지금까지도 한스럽게 여긴다.

합진찰랍(哈真札臘)이 금산왕자(金山王子)를 토벌할 때에 동진국(東眞國)의 군주(君主) 만노(萬奴)가 군사 2만 명을 출동시켜 완안자연(完顏子淵)으로 하여금 장수를 삼아 합세(合勢)하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그에게 장군의 부월(符鉞)을 주고 조문정공(趙文正公) 충(忠)과 김위열공(金威烈公) 취려(就礪)로 부장(副將)을 삼아, 협공(挾攻)하게 하였다.

합진(哈眞)이 우리에게 병력과 식량을 청구하고 또 서로 만나보기를 청하므로 김위열공이 먼저 그의 병영에 가니 합진이 말하기를, “과연 힘을 같이 하여 역적을 토벌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몽고(蒙古)의 황제를 향하여 요배(遙拜)하고 다음은 동진황제(東眞皇帝)에게 절하시오”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백성에게는 두 사람의 임금 이 없는 것인데, 어찌 황제가 둘씩이나 있단 말이오. 우리나라가 비록 작으나 두 황제에게 신하 노릇 할 수는 없소”라고 하고 드디어 만노(萬奴)에게 절하지 않았다.

공(公)은 신장(身長)이 7척이고 수염의 길이는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서 정장(正裝)을 할 때마다 반드시 두 사람의 비자(婢子)를 시켜서 그 수염을 양쪽에서 나누어 들게 한 뒤에 띠를 매었다.

이때에 합진(哈眞)이 그의 얼굴을 위대하게 보고, 그의 말을 기이하게 여겨 드디어 형제(兄弟)의 맹세를 맺었다.

추밀(樞密) 한광연(韓光衍)이 집을 수리(修理)하는데 음양설(陰陽說)에 구애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웃사람 꿈에 검은 빛 의관(衣冠)을 갖춘 자 10여 명이 구석에 섰는데 얼굴빛이 좋지 않는 것 같았다.

서로 말하기를, “우리 주인공은 집에 공사(工事)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있지 못하게 만드니 어찌할까”라고 하였다.

“어째서 화(禍)를 주지 않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청렴함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의 수행자(隨行者)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한공(韓公)의 집 토신(土神)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장원(壯元) 유석(庾碩)이 안동(安東)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 온 고을 백성들이 그를 부모처럼 친애하고神明(神明)같이 존경하였다.

뒤에 수령으로 박(朴)(이름은 잊었다.)이란 자가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정치하는 것이 유석(庾碩)에게 못지않다고 생각하였다.

한 작은 아전으로서 성질이 근신(謹慎)한 자가 일찍이 홀로 군재(郡齋)에 앉았는데 것을 보고 말하기를, “지척(咫尺)의 가까운 곳에서도 울타리나 담으로 막으면 귀로 들을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한 곳 마루 위에 거처하고 있으면서 고을의 관내(管內)를 골고루 살피고자 하니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간사한 아전이 법을 농간하는 자가 없고 억울한 백성이 원한을 삼키고 있는 자가 없는지 너는 숨김없이 말하라”고 하였다.

아전이 말하기를, “사또께서 고을에 오신 뒤로는 백성들이 아전을 보지 아니하니 아전이 법을 농간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오며, 백성이 원한을 삼키고 있다는 것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수령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나를 유사군(庾使君)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하는가”

하니, 아전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유사군을 칭찬하다가 여가가 있으면 말이 또한 사포의 일에 미치기도 합니다”고 하였다.

수령이 부끄러워하고 감복하였다고 한다.

지추(知樞) 손변렴(孫忭廉)이 경상도의 안찰사(按察使)가 되었을 때에, 아우와 손위 누이가 서로 소송(訴訟)하는 자가 있었다.

아우가 말하기를, “딸 하나, 아들 하나가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어찌 손위 누이만이 홀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아들에게는 나누어 줌이 없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손위 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임종(臨終) 때에 전 재산(家産)을 나에게 주었고, 네가 얻은 것은 검은 색 옷과 갓(冠) 각각 한 개, 미투리 한 켤레, 종이 한 권뿐이다. 아버지가 쓰신 증서가 갖추어 있는데 어찌 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송사는 여러 해를 두고 판결이 나지 않았다. 공(公)이 두 사람을 앞에 불러 놓고 묻기를, “너희들의 아버지가 죽을 때에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니, “먼저 죽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너희들은 그때 나이는 각기 몇 살씩이었느냐.”

“손위 누이는 시집갔고 아우는 일곱 살인가 여덟 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공(公)이 타이르기를, “부모의 마음은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균등한 것이다. 그 어찌 장성하고 시집간 딸에게는 후(厚)하고 어머니도 없는 다박머리 어린 아들에게는 박(薄)하겠느냐. 돌아보건대 어린아이가 의지할 곳은 손위 누이뿐이다. 만약 유산을 누이와 동등하게 남겨준다면 아마 그를 사랑함이 지극하지 않아지고, 그를 양육(養育)함이 혹은 온전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아이가 이미 장성한 뒤에 이 종으로 소장(訴狀)을 작성하여 검은색 갓과 검은색 옷을 착용하고, 미투리를 신고, 관(官)에 고소(告訴)하면 장차 이 일을 판단하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다만 그 네 가지 물건만을 남겨준 뜻은 대체로 이러한 것이다”고 하였다.

두 사람이 듣고 감복(感服)하고 깨달아서 서로 마주 보며 울었다. 공이 드디어 재

산을 반씩 나누어 주었다.

진양공(晉陽公)의 열자(孽子)인 선사(禪師)는 이름을 만전(萬全)이라고 하였다. 진도군(珍島郡)의 한 절에 살았는데, 그의 무리가 횡포하고 방자(放恣)하여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이름을 통지(通知)라고 부르는 자가 가장 심하였다. 영헌공(英憲公) 김지대(金之岱)가 전라도 안찰사(全羅道 按察使)가 되어서 그의 청알(請謁)을 모두 눌러 버리고 들어주지 않았다. 공(公) 일찍이 그 절에 갔더니 만전(萬全)이 업신여겨 함부로 매도(罵倒)하면서 나와 보지 않았다.

공(公)이 바로 들어가 마루에 올라가니 마루 위에 악기(樂器)가 있었다. 곧 거문고를 잡아 두어 번 타고, 피리를 가져다가 가로 대고 부니 음절(音節)이 비장(悲壯)하였다.

만전이 흔연(欣然)히 나와서 말하기를, “마침 약간 병이 있어서 공이 여기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고 하고 서로 해가 지도록 함께 즐기며 술을 마셨다. 그리고는 10여 가지의 일을 청탁하는 것이었다.

공이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것을 들어주기를 허락하고, 두어 가지를 보류(保留)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행영(行營)에 가야 할 수 있는 것이니 통지(通知)라는 자를 보내어 서로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공이 돌아간 며칠 뒤에 통지라는 자가 과연 찾아왔다. 공이 아전을 시켜 포박(捕縛)하고 그의 불법한 행위를 수죄(數罪)한 다음 강물에 던져버렸다.

진양공(晉陽公)이 죽고 만전(萬全)이 이어 정권을 잡으니 즉 진평공(晉平公) 항(沆)이다. 비록 전감(前憾)을 품고 있었으나 영헌공(英憲公)은 청렴하고 근신(謹愼)하여 과실(過失)이 적으니 그를 해칠 수가 없었다.

문도공(文度公) 유천우(俞千遇)에게 아우가 있었으니 이름을 보(甫)라고 하였다. 권신(權臣) 김인준(金仁俊)을 제거하고자 하여 공(公)에게 그 음모를 이야기하였으나 공은 호응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일이 미연에 발각되었다. 인준(仁俊)이 공에게 묻기를, “공은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준이 말하기를, “알면서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그 음모에 참여한 것이지요.”

공이 말하기를, “고발하면 자신은 죄를 면할 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늙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 두려워서 하지 않았습니다”고 하였다.

인준(仁俊)이 말하기를, “전일에 나의 아우의 집에서 음식 대접을 할 때에 홍시(紅柿)가 있어서 좌중(座中)에 있던 손(客)들이 다 그 맛이 좋다고 칭찬하였으나 공이 홀로 먹지 않기에 그 까닭을 물었더니,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공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고 하고 드디어 그 죄에 연루(連累)시키지 않았다.

문정공(文正公) 유경(柳暉)이 네 번이나 문형(文衡)¹을 맡았다.

그가 선비를 뽑을 때에는 먼저 기국(器局)과 식견(識見)이 있는 자를 가리고 그 뒤에 글의 잘되고 못된 것을 뽑았다. 그러므로 그가 뽑은 사람은 다 이름이 알려진 인사(人士)가 되었으며 지위가 재상(宰相)에 오른 자가 잇달아 있었다.

찬성(贊成) 유천우(俞千遇)가 일찍이 유 문정공의 아래에서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된 일이 있는데 그의 성질이 스스로 정문(程文)² 쓰기를 즐겨하여 답안(答案)의 문장에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반드시 버리고자 하였다.

문정공이 맡겨 두고 다루지 않았다가 합격자 발표를 보니 다 과거의 시험장에서 늙은 정문(程文)을 일삼아 온 자들이었다. 그 뒤에, 그때의 합격자 중에서는 달관(達官)에 이른 자가 소수(小數)에 지나지 않았다.

남쪽 지방의 적도(賊徒) 이가당(李家黨)³이란 것은 처음에는 산림(山林) 속의 도둑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시골 부락을 위협, 약탈하더니 그 도당(徒黨)이 점점 성대(盛大)하여지게 되자 주(州)·군(郡)에 격문(檄文)을 보내고는 군사를 인솔하고 곧 그 뒤를 따라가니 관리(官吏)가 혹은 그들을 영접하여 호궐(犒饋)하거나 숨어서 도피(逃避)할 뿐 그의 세력을 감히 막아내는 자가 없었다.

1 문형(文衡) : 대제학(大提學).

2 정문(程文) : 과거 볼 때에 쓰는 일정한 형식의 문장(文章).

3 이가당(李家黨) : 이지순(李至純) 일가(一家)와 내통(內通)한 무리라는 뜻.

추밀(樞密) 김경손(金慶孫)이 순문사(巡問使)가 되어 나주(羅州)에 들어갔는데, 그 이튿날 적도(賊徒)가 이르렀다.

공(公)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성문을 닫고, 스스로 지키게 한 다음 자신은 성밖에 진(陣)을 치고 일산을 받고 호상(胡床)에 의지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적도 중에 한 명의 용력(勇力)과 사나움이 남보다 뛰어난 중(僧)이 있어서 그들의 무리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내 저 미소년(美少年)을 사로잡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겠다”고 하고 먼저 조두(刁斗)(군에서 냄비와 징의 겸용으로 쓰던 기구)를 치고 휘파람을 불며 뛰어오는 것이었다. 함양(咸陽) 사람 박신유(朴臣蓀)가 뛰어어나가 서로 마주 싸우는데 두 사람의 칼이 서로 교차(交叉)하여 먼저 찌을 수가 없었다. 박(朴)이 중을 발길로 차서 쓰러뜨리고 이어 그 머리를 베어 버리니 적도(賊徒)가 경악(驚愕)하였다.

관군(官軍)이 이 틈을 타서 수십 리를 추격(追擊)하여 드디어 평정하였다.

위득유(韋得儒)·노진익(盧進義)가 한희유(韓希愈)와 공(功)을 다투어 서로 구타(毆打)하고 원수(元帥)인 수상(首相) 김방경(金方慶)에게 고소(告訴)하였다.

김공(金公)이 위(韋), 노(盧) 두 사람을 바르지 않다고 판결하였더니, 두 사람이 이것을 마음에 끼고, 공(公)이 한희유와 더불어 큰 일의 거사(舉事)를 음모하고 있다고 무고(誣告)하였다. 다루하치(達魯花赤) 혼두(忻豆)가 공을 구속(拘束)하고 중국 조정에 보고하였다.

홍다구(洪茶丘)가 황제의 명령으로 경릉(慶陵)⁴과 함께 신국(訊鞠)하기를 청하였다.

공(公)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원나라를 우러러 받들기를, 하늘처럼 하고, 친애하기를 어버이와 같이 합니다. 어찌 하늘을 배반하고 어버이에게 반역하여 스스로 멸망할 화를 취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니, 다구(茶丘)가 반드시 복죄(服罪)시키고자 하여 참혹하고 악독한 형벌을 가하니 몸에 성한 곳이 없고 기절하였다가 다시 소생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4 경릉(慶陵) : 충렬왕.

경릉이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말하기를, “경(卿)이 비록 죄를 지었다고 자수(自首)하더라도 천자(天子)는 어질고 착하니 장차 그 실정과 허위를 밝혀서 죽게 버려두지는 않을 것인데 어찌 스스로 고통함을 이와 같이 하는가”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신이 몸을 줄병의 항오(行伍) 속에서 일으켜서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습니다. 간(肝)과 뇌(腦)를 깨뜨려 땅에 바르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라의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어찌 몸을 사랑하여 거짓으로 복죄(服罪)하여 사직(社稷)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구(茶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죽으려면 곧 죽여라. 나는 불의(不義)로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황제의 조서(詔書)가 있어서 공(公)과 위(韋), 노(盧)가 함께 중국의 서울로 불려가게 되었는데, 득유(得儒)는 허가 타서 중로(中路)에서 죽고, 진의(進義)는 도성(都城)에 도착하였으나 역시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충정공 홍자번(洪子藩)이 아상(亞相)이 되었을 때에, 일을 의논할 때마다 번번이 꼭 수상 문경공(文敬公) 허공(許琬)과 의견의 시비(是非)를 다투게 되어, 문경공이 어떤 때는 강작(強作)히 그 의견을 좃곤 하였다.

일찍이 양제(兩制)⁵가 찬선(撰選)한 사(詞)·소(疏)를 열람(閱覽)하는데 충정공이 그 하자(瑕疵)를 하나하나 지적하여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아전들이 결재 서류를 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이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다.

문경공이 문첩녹사(文貼錄事)에게 말하기를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인 것이다(猫能捕鼠足矣)”라고 하였다.

대체로 충정공에게 문필(文筆)에 대한 일은 그의 임무가 아님을 조롱하는 말이다. 충정공이 성내어 얼굴빛이 변하면서 말을 그쳤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두 상공(相公)이 서로 용납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경공이 사망하였을 때에 충정공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그는 공정(公正)하고, 근신(謹愼)하고, 정직하며,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세상에 어

5 양제(兩制) : 한림학사(翰林學士)와 중서사인(中書舍人).

찌 다시 허공(許公) 같은 이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충정공이 수상(首相)이 되었을 때에 조공(趙公) 인규(仁規)가 아상(亞相)이 되고 염공(廉公) 승익(承益)이 그 차석(次席)이 되었다.

염공(廉公)은 방술(方術)로 양궁(兩宮)에게 총행(寵幸)을 얻어 항상 금중(禁中)에 있고 도당(都堂)에 오는 일은 드물었다.

하루는 충정공이 먼저 일어나 나간 뒤에 조공이 염공에게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홍공(洪公)은 참 재상이라고 일컫고, 나는 늙은 통역⁶이라고 이름 짓고, 공(公)은 이름 하여 늙은 주술사(呪術師)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참 재상의 지목을 받지 못하니 오직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당직이나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고 하였다.

염공은 즉일(即日)로 자원하여 해면(解免)하고 말았다.

대덕(大德) 말년에 왕유소(王惟紹) 등이 폐적(廢嫡)하려는 음모(陰謀)로 경릉(慶陵)을 의혹하게 만들어서, 장차 중국 천자에게 주청(奏請)하여 서흥후(瑞興侯)로 후사(後嗣)를 삼으려고 하였다.

이때에 대녕부원군(大寧府院君) 최유엄(崔有滄)공이 나아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어찌 경령전(景靈殿)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조(太祖)와 친묘(親廟)의 진용(眞容)⁷은 실로 여기에 모시고 있어서 전하께서 일찍이 그 제사를 거행하셨습니다. 만일 서흥후(瑞興侯)가 세자로 서게 된다면 저 뒷날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장차 그의 조부와 아버지, 두 후(侯)를 왕(王)으로 추존하여 신주가 경령전에 입묘(入廟)하게 되면 고종(高宗)과 원종(元宗)의 신주는 옮겨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종도 원종도 다 신(臣)이 몸소 섬긴 임금입니다. 지금 신(臣)은 늙었으나 차마 저 버릴 수 없습니다”고 하니, 충렬왕이 오래도록 슬퍼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내었다. 유소(惟紹) 등이 비로소 알고 스스로 두려워하였다.

임연(林衍)이 임금을 제 마음대로 폐위(廢位)시키고, 새 임금을 세우고 하는 일을

6 조인규는 몽고말에 능통하였다.

7 진용(眞容) : 초상화.

자행(恣行)하여 원종(元宗)을 서궁(西宮)에 유폐(幽閉)시키고, 또 세자(世子)가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파견하여 압록강에서 기다리면서 장차 세자를 협박하려고 하였다.

의주(義州) 사람 정오보(丁五甫)가 밤에 강을 건너가서 변(變)을 알리니, 세자가 중국 조정으로 되돌아가서 천자(天子)에게 보고하였다.

천자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꾸짖기를, “들으니 너희 여러 신하들이 중국 조정에 주청(奏請)함이 없이 함부로 제멋대로 왕(王)의 폐립(廢立)을 자행(恣行)하였다고 하니 고금(古今)을 통하여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이어 조서(詔書)를 내려 왕의 복위(復位)와 중국에 입조(入朝)할 것을 명령하였다. 임연(林衍)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등창이 나서 죽었다.

왕이 중국에 입조(入朝)하니 황제가 독련가(禿련哥)에게 명령하여 수천의 기마병(騎馬兵)을 거느리고 왕과 세자를 호위하게 하였다. 행차가 송경(松京)에 도착하니 연(衍)의 아들 임유무(林惟茂)가 강도(江都)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왕명에 항거하였다.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홍규(洪奎)는 유무(惟茂)의 매부(妹夫)로서 중승(中丞)이 되어 있었는데 유무가 그를 복심(腹心)으로 믿고 있었다.

왕이 이빈성(李份成)을 보내어 홍규를 보고 타이르기를, “경은 여러 대를 이어내려온 의관(衣冠)의 후예이니 의리(義理)에 좇아 사세를 판단하여 사직(社稷)을 이롭게 해야 할 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니, 공(公)이 두 번 절하고 이빈성에게 말하기를 “내일 나를 부문(府門) 밖에서 기다리시오”라고 하였다.

그날 상장군 송송례(宋松禮)와 의논하고, 송의 두 아들 염(炎)과 빈(份)이 모두 위사장(衛士長)이 되어 홍규(洪奎)와 함께 군대를 지휘하여 유무(惟茂)의 집으로 진격(進擊)하였다.

유무가 “누가 변을 일으켰느냐”고 물었을 때에 “홍중승(洪中丞)이다”고 말하니 유무가 깜짝 놀라 담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빈성이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가니 유무는 이미 참살(斬殺)되었었다.

임유무가 이미 주륙(誅戮)되고 나니 삼별초(三別抄)(권신(權臣)이 사납고 용맹스러

은 무사들을 모집·양성하여 자신의 호위병을 삼은 것이니 신의군(神義軍)이라고 일컫는 것이 있고, 마별초(馬別抄)가 있고, 야별초(夜別抄)가 있었다. 이것이 소위 삼별초라는 것이다.)가 저희들 스스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판 생각을 품고, 선비와 서인(庶人)들을 협박하고 부녀자(婦女子)들을 약탈하여 배를 나란히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진도(珍島)에 성을 쌓고 배반하였다.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관부(官府)를 설치하였다. 정문감(鄭文鑑)이라는 자는 문진(文眞) 이장용(李藏用)의 문생으로서 방안(榜眼)⁸이었다. 이 자를 거용(擧用)하여 승선(承宣)을 삼고 그냥 정권을 잡게 하니, 문감이 말하기를, “거짓 조정(僞朝)에서 부귀(富貴)를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몸을 깨끗이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고 곧 자살하였다.

현문혁(玄文赫)은 어릴 때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으므로 삼별초의 수령(首領)이 되어 있었다. 처자(妻子)를 데리고 작은 배를 타고 도망하여 스스로 돌아오니 적도(賊徒)가 추격(追擊)해 와서 활을 쏘아 그의 팔을 관통시켜 배 안에 쓰러지니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사람의 도리로서 쥘도독놈들에게 능욕(凌辱)을 당할 수는 없다”고 하고 그의 딸을 이끌고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현공(玄公)은 아들과 함께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문절공(文節公) 주열(朱悅)은 얼굴 모양이 추하게 생기고 코는 익은 귤(橘)과 같았다. 안평공주(安平公主)가 처음 왔을 때에 전상(殿上)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사연(賜宴)하였다.

주공(朱公)이 일어나 헌수(獻壽)하니 공주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째서 갑자기 늙고 추한 귀신을 앞에 오게 합니까”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얼굴이 추하기는 귀신 같지만 마음이 맑기는 물과 같다”고 하니 공주가 얼굴빛을 고치고 예대(禮待)하였다.

허문경공(許文敬公)은 소년시절에, 항상 중 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노출(露出)

8 방안(榜眼) : 과거에서 갑과(甲科) 제2위로 합격한 자.

된 해골을 덮어주고, 새와 짐승의 뼈를 묻어주는 일을 거의 안 하는 날이 없었으며, 사람 시체를 버린 것을 보면 스스로 저다가 매장(埋葬)하여 주었다.

그가 세수할 때에는 다만 1작(勺) 정도의 적은 물을 사용할 뿐이었다. 이미 몸이 귀(貴)하게 된 뒤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홍문정(洪文正)은 매일 저녁 목욕하고 관대(冠帶)를 정제(整齊)하여 하늘의 별에게 절하였다. 비록 조빙(朝聘)이나 행역(行役)으로 매우 급한 경우에도 일찍이 그 일을 폐지한 적이 없었다.

설문경(薛文景)은 공정하고 검소하며 청렴하고 근신(謹慎)하여, 예(禮)를 좋아하여 조관(朝官) 6품(品) 이상의 자로서 그의 부모 상(喪)을 당한 자가 있으면 공은 반드시 소복(素服) 차림으로 가서 조상하였다. 고을의 후배인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보면 또한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섬돌 아래까지 내려가서 영접하였다.

일찍이 병들어 누웠을 때 중암(中菴) 채홍철(蔡洪哲)이 안채에 들어가서 진찰하였더니, 베 이불에 떨어진 자리가 쓸쓸함이 중(僧)의 방 같았다. 중암이 나와서 탄복하여 말하기를, “나 같은 무리로서 공을 바라보면 마치 흙벌레와 황학(黃鶴)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가가 배반한 탐라(耽羅)를 치고 동쪽으로 왜(倭)에게 죄(罪)를 문책(問責)하며 정해년 근왕(勤王)과 경인년의 어구(禦寇) 때문에 용병(用兵)하는 것이 거의 20년이 되었다. 선비들이 다 갑옷과 투구의 차림으로 활과 창을 잡았고, 책을 끼고 다니며 글을 읽는 자는 열 사람 중 한두 사람도 못되었다.

선배(先輩)와 노성(老成)한 선비들은 다 죽어서 육적(六籍)의 전(傳)하는 것이 실날같이 겨우 이어질 뿐이더니 대덕(大德) 말년에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이 재상(宰相)이 되어서 국학(國學)을 수리하고 상서(庠序)를 수선하여, 이성(李晟) · 추적(秋適) · 최원충(崔元冲) 등을 기용(起用)하여 경서(經書) 하나에 두 사람의 교수

를 두고, 금학(禁學)⁹을 개방하여 내시(內侍) · 오군(五軍) · 삼관(三官)의 7품(七品) 이하와 중앙과 지방의 생원(生員)에 이르기까지 다 와서 듣고 학습(學習)하게 하였다.

또 고 낭중 유함(故郎中 俞咸)의 아들로서 중이 된 자가 사주(泗州)에 사는데 사한(史漢)¹⁰을 능숙하게 읽는다는 것을 듣고 역전(驛傳)으로 불러 올려 서울로 오게 하고 윤신결(尹莘傑) · 김승인(金承印) · 서인(徐謹) · 김원식(金元軾) · 박이(朴理) 등을 보내어 그의 강설(講說)을 듣게 하였다. 이에 봉액(縫掖)¹¹과 진신(摺紳)¹²의 차림을 한 무리가 경서(經書)에 능통하고, 옛 일에 박식(博識)하기를 일삼게 되었다.

그 뒤에 이재(彝齋) 백이정(白頤正)이 덕릉(德陵)¹³을 따라가서 중국 수도(首都)에 10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정주(程朱)의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서적을 많이 구득(求得)하여 가지고 돌아왔으며, 나의 장인(外舅) 정승 국재 권공(菊齋權公)이 《사서집주(四書集註)》를 구하여 판을 새겨서 널리 전파하니 배우는 자들이 다시 도학(道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찍이 보니 신희사(神孝寺)의 당두(當頭) 정문(正文)은 나이 80이었는데 《논어(論語)》 · 《맹자(孟子)》 · 《시경(詩經)》 · 《서경(書經)》을 잘 강설(講說)하였다. 그는 유학자(儒學者) 안사준(安社俊)에게 배웠다고 말하였다.

옛날에 한 선비가 송(宋)나라에 들어갔다가 왕형공(王荊公)이 물러가 금릉(金陵)에 산다는 것을 듣고 가서 추종(追從)하여 《모시(毛詩)》와 《칠전(七傳)》을 배우고 돌아왔다. 사준(社俊)은 그런 까닭으로 《시경》의 강설은 왕씨(王氏)의 해설한 뜻을 전용(專用)하였으나 《논어》 · 《맹자》와 《서경》의 강설은 다 《주자장구(朱子章句)》와 《채씨전(蔡氏傳)》을 합한 것이었다. 그때에는 《주자장구》와 《채씨전》의 두 서적은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준(社俊)이 어디에서 그 뜻을 배웠는지 알

9 금학(禁學) : 궁금(宮禁) 안에 있는 학교.

10 사한(史漢) :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와 후한(後漢)의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11 봉액(縫掖) : 선비가 입는 겹이 넓게 터진 도포.

12 진신(摺紳) : 홀(笏)을 큰 띠에 꿰은 벼슬아치.

13 덕릉(德陵) : 충선왕.

수 없다.

밀직(密直) 안전(安戩)이 승지(承旨)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충렬왕이 내시인 환자(宦者) 한 사람에게 참관(參官) 벼슬을 제수하고자 하는 것을, 공이 옳지 않다고 고집하였다.

하루는 임금이 공을 면대하여 타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의 측근에서 부지런히 복무(服務)한 지가 이미 오랜 세월이 되었다. 경은 나를 위하여 억지로라도 6품인 벼슬을 주게 하라”고 하고 또 임금의 면전에서 쓰(書)라고 명령하였다.

공이 아니할 수 없어서 낭장(郎將)으로 추천하였다.

조금 뒤에 땅에 엎드려 청하기를, “신(臣)은 부재(不才)한 몸입니다. 유악(帷幄)에 가까이 모시어 제품전주(題品銓注)하는 일이, 어찌 신과 같은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의 맡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비옵건대 현능(賢能)한 자를 선택하여 이 임무를 대신 맡게 하소서”라고 말하여, 그 말이 매우 간절하였다.

왕이 그것을 승인하고 일어나 전내(殿內)로 들어가시니, 공(公)이 그 뒤를 따라가서 꿇어앉아서 말하기를, “원컨대, 아뢰는 것이 있습니다. 신은 내일이면 당연히 체대(替代)될 것입니다. 그 내수(內豎)를 참관(參官)으로 추천하라고 한 명령은 보류(保留)하고 후일(後日)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왕의 발자취가 이미 문지방을 넘어갔다 돌아다보며, 큰 소리로 “좋다”고 하였다.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다 두려워하였다.

공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말하기를, “전하께서 신의 의견을 허락하셨다”고 하고, 드디어 삭제하여 버렸다.

밀직(密直) 최수항(崔守璜)은 부처 섬기기를 매우 독실(篤實)하게 하여 승지(承旨)로서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하객(賀客)들에게 연회를 베풀었을 때에도 고기(肉)를 쓰지 않고 소찬(素餐)으로 하였다.

왕지별감(王旨別監) 임정기(林貞杞)가 상등 백미(白米) 한 배(舟)를 최공에게 보냈으나, 최공이 받지 아니하니 임정기가 부끄러워하고, 성내어 즉시 그 쌀 한 배를

권귀(權貴)에게 뇌물로 주고 공 대신 승지(承旨)가 되니 당시의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다.

어느 권력 있는 대가(大家)에서 양민(良民)을 우겨 종으로 삼으니, 그 백성이 전법사(典法司)에 고소하였다.

지전법사사(知典法司事) 김서(金僖)와 그 동료(同僚)는 백성의 원통한 사정을 알면서도 권세를 겁내어 권력가에게 승소(勝訴)의 판결을 내렸더니, 어느 사람의 꿈에 예리(銳利)한 칼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법사(典法司)의 관리들을 모두 함부로 내리찍었다.

그런 꿈이 있던 이튿날 김서(金僖)는 등창이 나서 죽고, 달이 다 못되어서 그의 동료들도 죄다 죽었다. 다만 한 사람만이 죽지 않았는데, 그는 그 사건의 논의(論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치암(耻菴)이 말하기를 그 한 사람은 상서(尙書) 이행검(李行儉)이었다고 한다.〕

둔촌(鈍村) 김상헌(金相憲)이 김해(金海)의 수령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밀성(密城) 사람이 그 고을의 수령을 죽이고 배반하였다. 그때 안렴사(按廉使) 이숙진(李叔眞)이 감로사(甘露寺)에 있었으므로 김공이 급히 맞아와서 성중(城中)에 도착하게 하였더니, 밀성 사람이 밤에 안렴사를 수색하였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갔다.

반도(叛徒)가 ‘개국병마사(改國兵馬使)’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군현(郡縣)에 통첩(通牒)을 보내니 바람 앞에 풀이 쓰러지듯 무너지는 군·현들이 많았다.

김공이 경주판관(慶州判官) 엄수안(嚴守安)을 부르라고 청하였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서로 군사의 대오(隊伍)를 정돈하고, 숙진(叔眞)을 도와 도적을 토벌할 계획을 하는데, 숙진을 겁내어, 택일(擇日)하는 중을 불러다가 유리한 시간과 방위(方位)를 물으면서 고의(故意)로 지연(遲延)시키고 있었다. 공이 손수 칼을 들어 그 중을 치니 중이 얼굴에 피를 흘리며 달아났다. 숙진이 두려워하여 공의 의견에 좇으니, 도적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저희들 스스로 그 괴수(魁首)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내안(乃顔)의 무리 합단(哈丹)이 그물을 빠져나와 동쪽으로 도주하여 우리나라의 국경을 침노하니, 그 무리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사람을 죽여 양식(糧食)을 하고, 부녀자를 붙잡으면 정조를 유린하고는 죽여서 포(脯)를 뜨곤 하였다.

나라에서 만호(萬戶) 정수기(鄭守琪)를 보내어 철령(鐵嶺)에서 방어하게 하였더니, 합단이 아직 오기도 전에 수기(守琪)가 도망하여 돌아왔다.

철령은 길이 험하고 좁아서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이므로 합단이 말에서 내려서 물고기를 썬 것처럼 하여 올라왔다. 수기가 버리고 간 물자와 양곡으로, 두어 날 동안 실컷 잘 먹고 북을 치면서 앞으로 행진해 오니, 원주(原州)의 수장(守將)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힘은 적(賊)을 당해 낼 수 없으니, 항복하여 백성들의 죽음을 덜어 주는 것만 같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고을 사람 진사(進士) 원충갑(元冲甲)이 홀로 그것을 옳지 않다고 반대하고, 갑성문(甲城門) 밖에 앉았으니, 적(賊)이 중(僧) 한 사람을 보내어 항복을 권유하는 통첩을 전달하였다. 충갑(冲甲)이 중의 목을 베어 머리를 내던지니, 적이 떼를 지어 물러왔다. 충갑이 두어 사람을 손으로 쳐서 죽이니, 고을의 군사들도 또한 나왔다. 판흥원창(判興元倉) 조신(曹愼)은 북채를 잡고 북을 치는데 적의 화살이 그의 오른 쪽 팔뚝을 관통하였으나, 북소리가 약하여지는 일이 없었다. 적병(賊兵)의 전봉(前鋒)이 조금 달아나니 뒤에 있던 자들이 놀라고 동요하여 저희들끼리 서로 밟고 부딪치며 달아났다.

고을의 군사들이 높은 지세를 이용하여 그들을 무너뜨리니, 소리가 산악(山嶽)을 진동시키고 쓰러져 죽은 시체는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드디어 크게 승리하였다.

합단(哈丹)의 아들 노적(老的)이 군사를 이끌고 죽전(竹田)을 넘어서 평양(平壤)으로 달려갔다. 만호(萬戶) 나유(羅裕)가 이것을 방어하다가 장차 배를 버리고 추격하여 육지로 올라가려고 하니, 현문혁(玄文赫)이 말하기를, “저기에 높은 언덕과 낮은 골짜기가 둘러져 행하게 비었으니, 아마 복병(伏兵)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나공(羅公)이 듣지 않더니 육지에 오른 군대가 미처 정렬(整列)하기도 전에 적도(賊徒)의 대부대가 덤벼 왔다. 나공(羅公)이 군사를 지휘하여 후퇴, 겨우 배에 오를 수 있었으나 낭장(郎將) 이무(李茂)는 군사 수십 명과 함께 미처 배에 오르지 못하였다.

현문혁이 배 위에 서서 외치기를, “이무(李茂), 힘껏 싸워라. 뜻밖의 신기한 공(功)을 세울 수 있다면 나라에서는 포상(褒賞)이 있을 것이다. 몸을 역적 놈들에게 맡겨서 처자(妻子)를 욕된 사람으로 만드는 일과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무(李茂)가 군사 수십 명과 함께 독산(獨山)으로 달아나니 적장(賊將)이 그들을 경멸하여, 말에서 내려 호상(胡床)에 앉은 채 그의 군사들을 나누어 가지고 산을 포위하여 올라가게 하니 화살이 비 오듯 날아 떨어졌다.

이무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데 날이 저물어가니 매우 배가 고파서 주머니 속의 말린밥(乾糲)을 더듬어 찾아서 씹으면서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나이 대장부 마땅히 죽음 속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활에 살을 먹여 아래로 내리쬘서 적장(賊將)의 인후(咽喉)를 바로 맞추니 활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적장은 거꾸러졌다. 적(賊)의 무리가 스스로 혼란하여지는 것을 무(茂) 등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추격하여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적의 머리를 베었다.

경인년, 계사년의 무인(武人)의 난(亂) 이후로 재상(宰相)에 무인(武人)이 많았다. 이의민(李義旼)이 두경승(杜景升)과 함께 중서성(中書省)에 앉았다가 이(李)가 두(杜)에게 자랑하기를, “어떤 사람이 제 용력(勇力)을 자랑하기에 내가 한 번 쳐서 거꾸러뜨리기를 이와 같이 하였소” 하고 이어 주먹으로 기둥을 치니 서까래가 다 흔들렸다.

두(杜)가 대답하기를, “어느 때의 일인데, 내가 빈주먹으로 후려치니 여러 사람들이 다 무너져 달아났소” 하고 또한 주먹으로 치니 주먹이 벽(壁)을 뚫고 빠져 나갔다. 그때 사람이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나는 이(李)와 두(杜)를 두려워하네.

우뚝 솟은 그들은 참 재상이라네.

황각에 군림함이 3, 4년인데,

주먹 바람은 만고에 떨치리라.

[吾畏李與杜 屹然眞宰輔 黃閣三四年 拳風一萬古]

라고 하였다.

이시중(李侍中) 연수(延壽)가 국정(國政)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 고종(高宗)이 장차 불교의식(佛教儀式)인 연수신왕도량(延壽神王道場)을 거행하고자 하여 도당(都堂)에 칙명(勅命)을 내려 그 경비를 지출하게 하였다.

도당(都堂)의 관리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다만 신왕도량(神王道場)이라고만 일컫고 시중의 이름과 같은 연수(延壽)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였다.

그런데 공이 “이번에 거행하려는 도량의 명칭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에는, 관리가 전혀 생각을 잊고 갑자기 말하기를, “이연수 신왕도량이라고 합니다”고 하였다.

이공이 말하기를, “도량에도 성(姓)이 있느냐”고 하였다.

경릉(慶陵) 때에 홍훤(洪萱)으로 사도(司徒)를 삼으니, 찬성(贊成) 민훤(閔萱)이 녹사(錄事) 육희지(陸希贊)에게, “신임(新任) 사포의 이름이 무슨 글자냐”고 물었다. 희지는 녹사(錄事)로 늙었으므로 나아가고 물러가며 묻는 말에 응대(應對)하는 일에는 능숙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었다.

이때에 대답하기를, “민훤(閔萱)의 훤(萱)자입니다”라고 해버렸다.

듣는 자가 웃느라고 이(齒)가 싸늘하여질 지경이었다.

문순공(文純公) 원부(元傅)가 일찍이 퇴근(退勤)하여 집에서 한가롭게 있을 때에 문생(門生) 3, 4인이 와서 뵈었다.

앉으라고 명령하고 더불어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외람되게 국정을 맡은 자

의 수석(首席)이 되어 재능(才能)이 뜻한 바에 미치지 못한다. 세상의 여론들은 어쨌다고 하느냐”고 하였다.

모두가 감히 말하지 못하는데, 학사(學士) 방우선(方于宣)이 아래 자리에 있다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의 정치하는 것은 공의 성(姓)과 같다고 합니다” 하니, 공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내 성을 본받아 등글게 원(元)을 그려 여기에 되돌아왔다는, 너는 네 성을 본받아 모로만 가면 장차 어디까지 가겠느냐”라고 하였다.

사공(司空) 최온(崔溫)이 하천단(河千坦) · 이순목(李淳牧)과 함께 같이 고원(誥院)에 있을 때에, 하(河) · 이(李)가 모두 문명(文名)이 있었으나 공이 자기의 문벌(門閥)을 의세하여 그들을 매우 가볍게 대접하였다.

그들도 또한 굽히지 않았다. 칙명(勅命)이 있어서, 이웃나라에서 힐문(詰問)해 온 문서의 답장을 지어 올리라고 하였다. 공(公)이 붓을 잡게 되어, 머리를 굽으며 애써 웅얼거려 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붓을 던지며 꾸짖어 말하기를, “이것이 시골구석의 벼웃 입은 무리들이 제 잘난 체하는 까닭이란 말이냐”고 하였다.

상서(尙書) 박유(朴楡)가 항상 말하기를, “동쪽은 목(木)에 속(屬)한다. 목(木)의 생수(生數)는 3이고 성수(成數)는 8이다.¹⁴ 기수(畸數)(즉 생수)는 양(陽)이고 우수(偶數)(즉 성수)는 음(陰)이다. ‘동방(東方)인’ 우리나라 사람이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 것은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법이 비록 현달(顯達)한 고관(高官)이라도 또한 감히 두 아내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부녀(婦女)가 가끔 머리가 희어지도록 시집가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양반의 집 후손이 실낱같이

14 생수(生數), 성수(成數) : 생수는 양(陽)을 표시하는 수이니 천수(天數)라고도 한다. 1, 3, 5, 7, 9가 그것이다. 성수는 음(陰)을 나타내는 수이니 지수(地數)라고도 한다. 2, 4, 6, 8, 10이 그것이다. 《주역(周易)》의 설명에 의하면 이 생수와 성수가 서로 합하여 오행(五行)을 이루는 법칙은 정하여져 있다. 생수인 1과 성수인 6이 만나면 합하여 수(水)가 되고, 7과 2가 만나면 화(火)가 되고, 4와 9가 만나면 금(金)이 되고, 5와 10이 만나면 토(土)가 된다고 하였다.

겨우 이어가고, 군민(軍民)의 호구(戶口)는 날로 줄어드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이유인 것이다”고 하고, 드디어 차자(箭子)를 올리어, “신료(臣僚)들로 하여금 다 희첩(姬妾)을 두게 하고, 관품(官品)과 지위에 따라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수(數)를 줄여서 서인(庶人)에 이르러서는 아내 한 사람, 첩 한 사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항구(恒久)의 제도를 정하는 것이 홀어미의 원망을 풀어 주고 민물(民物)을 은성하게 하는 길입니다”고 하였다.

이에 부인들은 귀천(貴賤)의 구별 없이 다 성내고 또 두려워하였다. 마침 관등일(觀燈日)에 박공이 법가(法駕)에 호종(扈從)하여 반(班)에 쫓아가니 한 노파(老婆)가 그를 알아보고 말하기를, “희첩(姬妾)을 두게 하라고 주청(奏請)한 자가 저 늙은 거지 아이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해 가면서 손가락질하여 거리에는 붉은 손가락이 단으로 묶은 것 같았다.

중찬(中贊) 설재(雪齋) 정가신(鄭可臣)이 성균시(成均試)를 맡았을 때에, ‘백성이 아전을 보지 못한다(民不見吏)’라는 문제로 시험을 보았다.

한 늙은 응시자가 지은 글귀에, “개는 꽃피는 마을의 달밤에 침묵하고, 말발굽은 버드나무 선 역(驛)의 티끌이 고요하다(犬默花村月 蹄閑柳驛塵)”고 한 것이 있었다. 그 밖의 글귀도 그대로 쓸 만한 것이 있으므로 공이 합격자의 말단(末端)에 넣어두었다.

합격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축하객(祝賀客)들에게 연회를 열었을 때에 공은 응시자를 보고 그 늙었음을 가엾게 여겨 위로하여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의 글 중에 ‘개가 침묵한다(犬默)’는 어귀(語句)를 고쳐 가지고 하객(賀客)들에게 자랑하여 말하기를, “삽살개는 꽃피는 마을의 달에 잠자고, 말발굽은 버드나무 선 역의 티끌에 한가롭다(鼯睡花村月 蹄閑柳驛塵)”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야 글귀가 산 글귀가 되는 것이다.

손(客)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응시자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지은 글귀는 ‘삽살개가 잠잔다(鼯睡)’가 아니고 ‘개가 침묵한다(犬默)’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상서(尙書) 공문백(孔文伯)이 술을 즐겨하였다. 그가 살고 있는 동리에 여극해(呂克諧)라는 자가 있었는데, 공상서의 연로(年老)함을 존경하여 매번 모셔다가 자기 집에 이르러 맛있는 술을 대접하였다.

공상서가 기뻐하여 그의 면전에서 칭찬하기를, “이 젊은이는 그의 얼굴 모양과 행동을 살펴보면, 그의 언론(言論)을 들어보니 다른 날 만드시 재상(宰相)의 지위에 이를 것이다”고 하였다.

그 뒤에 극해(克諧)가 세상 일에 바빠서 달이 넘도록 그를 청해 올 겨를이 없었더니, 공상서가 길에서 극해를 만나 말하기를, “재상의 명령은 저절로 늦출 것과 재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되지”라고 하였다.

속어(俗語)에 남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자를 성자(聖者)라고 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원급제(壯元及第)로서 성자(聖者)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는 오직 곽예(郭預) 공뿐이다”고 하였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곽공이 한림(翰林)이 되었을 때에, 매번 비를 만날 때마다 만드시 맨발로 우산을 들고 홀로 용화원(龍化院) 숭교사(崇敎寺)의 못가에 와서 연꽃(蓮花)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어찌 성자(聖者)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공의 시에

연꽃을 구경하러 세 번 삼지(三池)에 이르니,

푸른 일산 붉은 단장 예전과 같건마는,

오직 꽃을 보는 옥당(玉堂)의 손님은,

풍정은 감하지 않았는데 구레나룻 실처럼 희어졌네.

〔貫蓮三度到三池 翠蓋紅粧似舊時 唯有着花玉堂客 風情未減鬢如絲〕

라고 한 것이 있다.

노당(露堂) 추선생(秋先生)이 마침 안동(安東)의 서기(書記)에서 돌아왔을 때에 몸

이 매우 비둔하였다.

나의 계부(季父) 비랑공(秘郎公)을 만나서 농담하기를, “이소년(李少年)의 수염이 갑자기 자랐군” 하였다.

계부(季父)가 그 말을 듣자마자 대답하기를, “추사록(秋司錄)의 허리와 배가 공연히 커졌습니다”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잘한 대답이라고들 말한다.

노당(露堂)은 성질이 활발하여서 구애됨이 없었으며, 늙어서도 식사를 잘 하였다. 항상 말하기를, “손을 대접할 때에는 다만 흰 쌀밥을 부드럽게 짓고, 생선을 잘라서 국을 끓이면 그만인 것이다. 비록 백금(百金)을 소비하여 팔진미(八珍味)를 차려 놓을지라도 입을 지나가고 나면 마찬가지야”라고 하였다.

그가 용주(龍州)의 수령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평소에 서로 좋아하는 왕륜사(王輪寺)의 인조(仁照) 스님이 역마(驛馬)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그 고을의 관내(管内)에 들어섰다.

역(驛)의 아전에게 묻기를, “여기 고을 사또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아전이 대답하기를, “추시랑(秋侍郎)이십니다”고 하였다.

스님이 말하기를, “관리 출신이냐, 선비 출신이냐?”

아전이 대답하기를, “항상 붓과 벼루를 벗 삼으며, 간혹 홀로 앉아 글을 읊는 것을 보니 선비님 같습니다”고 하였다.

스님이 말하기를, “이름이 드러난 훌륭한 선비에 누가 추(秋)가라는 성(姓)을 가진 이가 있단 말이나. 내가 그와 서로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라고 하였다.

조금 뒤에 말하기를, “날마다 열 개의 큰 사발에 담은 향기로운 쌀밥과 깊은 주발에 가득한 연한 고기의 국(羹)을 차린 밥상을 앞에 가져가면 사또는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니, 아전이 곧 꿇어앉아서 말하기를, “스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또를 잘 아는 분입니다”고 하였다.

상서(尙書) 최원중(崔元中)은 학사(學士) 옹(雍)의 아들이다. 처음에 급제하여 구

재(九齋)의 교도(敎導)가 되었을 때에 생도들에게 매질하는 법이 엄중하여 터럭만 큼도 용서하는 일이 없으니 생도들이 원망하여 그를 가리켜 진시황(秦始皇)이라고 하였다. 그의 형벌이 혹독한 것을 말한 것이다.

얼마 뒤에 한원(翰院)에 들어가서는 자못 자기의 재주를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었다. 같은 한원의 동료 이숙기(李叔琪)가 거짓 성내서 말하기를, “너는 도대체 무슨 물건의 사람이기에 이처럼 스스로 잘난 체하느냐. 내가 만약 말 한마디만 하면 네가 장차 어떻게 세상에 나설 수 있겠느냐. 너는 과연 네 자신이 최학사(崔學士)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였다.

최(崔)가 발각 성을 내어 말하기를, “망령되게 남을 욕하여 부모에게까지 욕이 미치게 하니 너는 나라의 법령이 두렵지 않느냐. 네가 나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 하느냐” 하였다.

이(李)가 천천히 말하기를, “나는 너를 여불위(呂不韋)¹⁵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최(崔)가 머리를 숙이고 크게 웃을 뿐이었다.

정통(鄭通)이란 자는 초계(草溪) 사람이다. 나주서기(羅州書記)로 재임(在任) 중에 관기(官妓) 소매향(小梅香)을 사랑하여 아이 하나를 낳기까지 하였다.

전임되어 서울로 가게 되었다. 멍하니 맥이 풀려, 가면서도 그 갈 바를 모르게 되고, 말하다가도 무슨 말을 하려 하였는지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도중에 친한 친구의 집에 이르니 한 중이 좋은 말을 타고 또한 그 집에 이르렀다. 미처 앞기도 전에 먼저 나와서 그 말을 훔쳐 타고 나주(羅州)를 향하여 3일 동안을 달렸다.

밤중에 기생집에 닿으니 기생이 그 어머니와 함께 등불을 밝히고 앉아서 한숨 쉬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기실공(記室公)은 오늘은 어디 있을까” 하였다.

통(通)이 곧 문을 밀치고 들어가 울며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고 하였다.

두어 날을 묵은 뒤에 거기 오래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말에는 기생을 태우고 자

15 여불위(呂不韋) : 진시황(秦始皇)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신은 어린애를 업고 뒤따르면서 북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이미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땔나무와 식량의 걱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종들을 거느리고 장차 고향으로 가는 판인데, 길에서 보니 한 부인이 말을 타고 어린애 업은 하인이 뒤따라오고 있었다.

종이 말하기를, “저기 오는 이가 우리댁 서방님 같습니다”고 하였다.

아내가 말하기를, “그분이 아무리 바람에 병이 들었다고 한들 어찌 그렇게까지야 됐겠느냐” 하고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 과연 통(通)이었다.

아내가 말하기를, “쫓쫓 늙은이가 그게 무슨 꼴이요?” 하였다.

통이 쳐다보고 문득 서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장난해 보는거야”라고 하였다.

봉익대부(奉翊大夫) 김여맹(金汝孟)은 성질이 겁이 많고 말은 더듬거렸다.

전염병을 피하여 잠깐 어느 동리집에 가서 붙어 있었는데, 그 이웃사람으로 죄지은 자가 있어서 옥리(獄吏)가 추적하여 오다가 김공(金公)이 기숙하는 집에 이르러 김공이 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을 물었으나 응대하지 않았다.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들었으나 또 응답하지 않으니 아전이 성내어 하는 말이, “너의 거처하는 곳이 이렇게 누추한 것을 보니 네 신분의 높고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이 말을 묻는데 네가 대답하지 않으니 아마 감옥에 가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는 머리털을 꺼둘러 함부로 끌고 큰 길에 이르렀다.

계집종이 판데서 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그렇게 된 까닭을 헤아려 알아차리고 아전에게 말하기를, “우리 서방님은 김평장(金平章)댁 아드님이고, 김추밀(金樞密)댁 사위이며, 관등(官等)도 또 삼품(三品)이다. 오늘 아침에 관의(官醫)가 군신약(君臣藥)¹⁶을 조제(調劑)하여 복용하게 하고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이다. 네가 어찌 그분을 이처럼 욕보이느냐”고 하니 아전이 놓아주고 절하며 사과하고 갔다.

16 군신약(君臣藥) : 주치제(主治劑)와 보치제(輔治劑)를 조합한 약.

봉익대부(奉翊大夫) 홍순(洪順)은 충정공(忠正公)의 아들이다. 항상 상서 이순(李淳)과 내기 바둑을 두었다. 이(李)가 골동품(骨董品) 서화(書畫)를 걸었다가 거의 다 빼앗겼다.

그가 가보(家寶)로 아끼는 현학금(玄鶴琴)을 주고(注孤)¹⁷로 하여 최후의 승부를 겨루었다.

홍(洪)이 내기를 이기니 이(李)가 그 거문고를 홍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거문고는 우리 집 세전지물(世傳之物)로서 거의 2백 년 동안이나 전해 내려오는 것일세. 물건이 이미 오래되어 자못 신(神)이 붙어 있으니, 공은 삼가 간직하게” 하였다.

이(李)가 특히 홍(洪)의 성질이 두려움과 꺼리는 것이 많음을 알고 농담으로 한 말이다.

어느 날 밤 날씨가 몹시 추워서 거문고의 줄이 얼어서 끊어지니 땡땡 하는 소리가 났다. 홍순은 갑자기 신(神)이 붙었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급히 등불을 밝히고 복숭아나무 가지로 함부로 두들기니 거문고는 두들겨 맞을수록 더욱 소리를 냈으며, 소리가 날수록 의혹하는 마음은 더욱 일어났다.

비복(婢僕)을 불러서 지키게 하고 첫새벽에 종 연수(延壽)라는 자를 시켜서 거문고를 가지고 이씨(李氏) 집에 가져다 주게 하였다.

이(李)가 그렇게 이른 새벽에 온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거문고에 함부로 두들긴 흔적이 있음을 보고는 일을 짐작하고 속여서 말하기를, “나는 이 거문고에 귀신이 붙은 것을 근심하여 여러 번 깨뜨려 버리고자 하였으나 또 신의 화(禍)를 입을까 두려워하던 차에 다행하게도 공에게 넘기게 되었는데 어째서 돌려준단 말인가?” 하고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洪)이 매우 딱하게 되어 전일의 내기에서 따간 서화와 골동품 따위를 죄다 곁들여서 거문고에 따라 보내니 이(李)가 어쩔 수 없어서 받는 체하고 받았다.

그러나 홍(洪)은 깨닫지 못하고 거문고를 돌려준 것만을 스스로 다행하게 여겼다고 한다.

17 주고(注孤) : 마지막 금품을 걸고 내기하는 것.

문영공(文英公) 김순(金恂)과 문량공(文良公) 조간(趙簡)은 과거에서 같이 급제하였는데 방(榜)에서 문량공이 제1인이었다.

문량공이 이미 늙었을 때에 악성(惡性)의 종기로 어깨와 목을 거의 분간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여러 의원(醫員)들의 모두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다.

중 묘원(妙圓)이라는 자가 말하기를, “이 종기는 뼈에 뿌리를 박고 있어서 뼈가 반은 썩었을 것입니다. 그 썩은 뼈를 긁어내 버리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지 못할 것이 걱정됩니다”고 하였다.

문량공이 말하기를, “죽기는 마찬가지니 시험해 보라”고 하였다.

드디어 예리(銳利)한 칼로 살을 베어 내니 과연 뼈가 썩었다. 그것을 긁어내고 약을 발랐다. 문량공이 기절하여 이틀 동안이나 눈을 감고 있었다.

문영공(文英公)이 듣고 가서 문병하는데, 문에 앉아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니, 문량공(文良公)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공이 나를 슬퍼함이 이와 같은 줄 생각하지 못하였다. 어찌 마음에는 기뻐하면서 얼굴빛으로는 슬퍼하는가” 하였다.

문영공이 말하기를, “허! 이게 무슨 말인가. 사기(四紀) 동안 동년급제(同年及第)로서의 교분(交分)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니, 문량공이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같은 방(榜) 안에서는 공(公)을 앞서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라고 하였다.

문영공이 눈물을 거두고 웃으며 말하기를 “이 늙은이가 죽지는 않겠다”고 하고 비로소 돌아갔다고 한다.

낭중(郎中) 김서정(金瑞廷)은 뜻이 기이하고 예스러운 것을 숭상하였다. 스스로 호(號)를 우계(愚溪)라고 하였다.

그의 자씨(姉氏)인 최찬성의 부인이 사람을 시켜 오라고 청하였다. 가고자 하나 말이 없었는데 마침 나무꾼이 소를 몰고 왔으므로 드디어 소에 안장을 엮고 고삐를 매어서 타고 가니 뒤따라가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장군처럼 많았다. 그러나 김군(金君)은 개의(介意)하지 않았다.

줄옹(拙翁) 최해(崔滄)가 술 취한 기세를 부리고 거짓 미쳐서 일찍이 광명사(廣明寺)를 지나가니 중의 무리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다 숨어 버렸다.

옹(翁)이 장난삼아 선(禪)의 용어(用語)를 빌어 그 벽에 ‘거사(居士)’라고 써놓았다. 하루는 손을 송별(送別)하느라고 광명사(廣明寺)를 지나다가 한 요(寮)에 들어가니 요주(寮主)는 담을 넘어 달아나고, 오직 시자(侍者)만이 있었다.

거사(居士)가 발로 시자를 세 번 찼으나 시자는 말이 없었다.

뒤에 어떤 사람이 공암(空巖)에게 말하니 암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시자(侍者)였다면 그때에 곧 술을 받아다가 거사(居士)에게 주어 보았을 것이다”고 하였다.

후집

후집 서문 (後集 序文)

손(客)이 낙옹(櫟翁)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기술(記述)한 이 책의 전집에는 조종(祖宗)의 먼 세계(世系)와, 이름난 공경(公卿)들의 언행도 또한 자못 많이 기재되었는데 도리어 골계(滑稽)의 말로 끝을 맺고, 후집의 기술에는 경사(經史)를 논강(論講)한 것은 얼마 없고, 다 장구(章句)를 꾸미고 아로새긴 것뿐이니, 어찌서 그렇게 특별한 조수(操守)함이 없는가. 이것이 어찌 단아한 선비와 씩씩한 대장부가 해야 할 일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둥둥 북 치는 모습을 그린 <격고장(擊鼓章)>이 《시경(詩經)》의 <패풍(邶風)> 속에 들어 있고, 여러 사람이 너울너울 춤춘다는 귀절이 있는 <빈지초연장(賓之初筵章)>이 《시경》의 <소아(小雅)> 속에 편입(編入)되어 있다. 더구나 이 기록은 본래 한가하고 답답함을 몰아내기 위하여 아무거나 기술한 수필(隨筆)이다. 거기에 해학(諧謔)이 있은들 무엇이 괴이할 것이 있겠는가. 또 공자는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도 아무 용심(用心)함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였다. 장구(章句)를 수식하고 아로새기는 일이 장기·바둑을 두는 일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또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이름을 비설(稗說)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하였다. 중사(仲思)가 서문으로 쓴다.

후집1

후집 1

밀직(密直) 김영용(金永用)이 나에게 말하기를, “《좌씨전(左氏傳)》에 ‘너희가 공납(貢納)하는 포모(包茅)¹가 들어오지 않아서 축주(縮酒)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축(縮)이란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두원개(杜元凱)의 주(註)에 ‘띠(茅)를 묶어놓고 거기에 술을 부어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소”라고 하였더니, 이어 김공이 말하기를, “전에 영광군(靈光郡)에 있을 때에 보니, 띠를 엮어가지고 술을 거르니, 술이 지극히 맑아서 생초(生綯)나 견직물(絹織物)의 견대에 넣어서 거른 것보다도 더 좋더군요”라고 하였다.

내가 집안사람에게 시켜서 시험하여 보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예기(禮記)》를 상고하여 보니, 교제(郊祭)에는 특생(特牲)을 쓰며, 축작(縮酌)에는 띠를 쓴다고 하였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술을 띠에 스며들게 하여 거르는 것은 술 찌꺼기를 제거(除去)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다.

이 설명이 두원개(杜元凱)의 주(註)에 비교하여 더욱 자세하다. 세상에서 술을 거를 때에 다 명주나 비단의 견대를 사용하고 띠(茅)를 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신(神)을 제사하는 데 쓰는 방법이므로 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일까.(소동파(蘇東坡)의 시(詩)에 모시(茅柴)를 누른다고 한 것은 이것과 같은 것일까?)

황경(皇慶) 초년에 덕릉(德陵)²이 중국 황제의 곁에 있을 때에 헌시(獻詩)하는 자가 있었는데 지운(支韻)의 치(差)자를 운자로 쓰고 있었다.

문사(文士)들이 앞을 다투어 그것에 따라 시를 지어 올렸는데 모두가 ‘差’를 참치(參差)라 달았고, 오직 두 사람만이 유독 다르게 달았다.

한 사람은 치치(差差)라고 하였으니 한공(韓公)의 “흰 칼날이 가지런하지 않다(鋒

1 포모(包茅) : 띠풀을 묶어 그릇에 담아 놓고 제사 때에 술을 붓는 것.

2 덕릉(德陵) : 충선왕(忠宣王).

刃白差差)”라고 한 것을 따라서 쓴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옥치(玉差)라고 하였으니 송옥(宋玉)과 경치(景差)를 말한 것이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송(宋)나라의 책 《압운서(押韻書)》 상평(上平)의 지운(支韻) 치자(差字) 밑에 있는 주(註)에, “경치(景差)는 인명(人名)이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가지고 입증(立證)한 것이다.

이학사(李學士) 의(顥)가 말하기를, “송본(宋本)인 《압운서(押韻書)》는 소략(疏略)하여서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뒤에 전한(前漢)의 《고금인표(古今人表)》를 보니 경치(景差)를 경도(景徒)라고 쓰고 있다. 어째서 서로 다른 것일까.

《급총서(汲冢書)》³는 육경(六經)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 많다.

거기에 보면, 순(舜)임금 · 하우씨(夏禹氏) · 주문왕(周文王)이 다 매우 악(惡)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더욱 해괴한 일이다.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만(曹瞞)⁴과 같은 자가 스스로 악행이 많은 것을 알고, 그때 세상은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으나, 후세의 공론(公論)이 두렵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위대한 성인(聖人)들을 무함(誣陷)하여 자기에게 대한 비방(誹謗)을 나누어보고 싶은 생각에서, 땅을 파서 무함(誣陷)한 서적을 묻어 놓고, 후세에 다행히 그것이 발굴되어 세상 사람들을 기만(欺瞞)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일 것 같다.

세상의 유자(儒者)들이 다만 그 《급총서(汲冢書)》의, 칠(漆)을 올린 대쪽의 자획(字畫)이 예스러운 것만을 보고 좇아서 믿는 것은 또한 잘못된 일이다.

연우(延祐) 병진년에 내가 중국 황제의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되어 아미산(峨眉山)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되었다.

길이 조(趙)나라 · 위(魏)나라 · 주(周)나라 · 진(秦)나라의 땅을 거쳐서 기산(岐山)의 남쪽에 이르렀다. 대산관(大散關)을 넘고 포성역(褒城驛)을 지났으며, 잔도(棧

3 급총서(汲冢書) : 진(晉)나라 급군(汲郡)의 옛 무덤에서 출토(出土)된 선진(先秦) 때의 고서(古書)(咸寧五年 汲郡人不準 掘魏冢 得竹簡小篆古書十餘萬言).

4 조만(曹瞞) : 조조(曹操).

道)를 올라가 검문(劍門)으로 들어가고, 그리하여 성도(成都)에 도착하고, 또 배로 7일 동안을 가서야 비로소 아미산(峨眉山)이라는 데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이적선(李適仙)의 <촉도난(蜀道難)>이라는 시(詩)의 글귀가 기억난다.

서쪽으로 태백산 바라보니
새들이나 다닐 수 있는
높고 조그만한 길이 있네.
내게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아미산의 산정(山頂)을
가로질러 끊으며, 날아
지나갈 수 있으면만.
〔西當太白 有鳥道 可以橫絕 蛾眉巔〕

태백산은 함양(咸陽)의 서남쪽에 있고, 아미산은 성도(成都)의 동북쪽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함양(咸陽)으로부터 수천 리를 가야 성도(成都)에 닿을 수 있다. 혹은 동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그 가는 길은 하나만이 아니다.

또 성도로부터 동쪽으로 가서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6백여 리를 간 뒤에야 아미산에 도착하게 된다.

비록 산천과 도로는 우회(迂廻)하고 있으나 그 지세(地勢)를 생각하여 보면 두 산은 서로 그다지 썩 먼 것은 아니다. 사람의 자취는 본래부터 이를 수 없는 곳으로서 조도(鳥道)라면 가로질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백락천(白樂天)의 <장한가(長恨歌)>에는,

누른 빛 먼지는 가득히 흩어지고,
바람은 쓸쓸하고 차가운데,
구름다리(雲棧) 빙 돌아 얹히어

검각(劍閣)으로 올라가네.

아미산 아래에는 행인도 적은데,

햇빛(日色)이 얇으니

정기(旌旗)도 광채가 없네.

[黃塵散漫風蕭索 雲棧縈紆登劍閣 峨眉山下少人行 旌旗無光日色薄]

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명황(唐明皇)이 성도(成都)에 거동할 때의 광경을 말한 것이다. 만일 그가 말한 바와 같다면 아미산은 마땅히 검문(劍門)과 성도(成都)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와 보니 그렇지 않았다. 뒤에 《시화총귀(詩話總龜)》라는 책을 얻어서 보니 옛사람이 이미 이것에 대한 논란(論難)이 있었다.

아마 백락천이 일찍이 촉중(蜀中)에 간 일이 없었던 것 같다.

지치(至治) 계묘년에 내가 임조(臨洮)에 가게 되었는데 길이 건주(乾州)의 당무후(唐武后) 무덤을 지나게 되었다. 무덤은 황화역(皇華驛)의 서북쪽에 있었으니, 세 상에서 아파릉(阿婆陵)이라고 불렀다.

내가 시(詩) 한 편을 남겼는데 그 시의 서문(序文)에 이렇게 말하였다. “구양영숙(歐陽永叔)이 무후(武后)를 당(唐)나라의 기년(紀年) 안에 넣어둔 것은 대체로 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의 잘못을 도습(蹈襲)하여 더욱 잘못된 것이다. 여후(呂后)가 비록 천하(天下)를 통제(統制)하였으나 오히려 영아(嬰兒)를 황제라는 이름으로 세워 한(漢)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였던 것이다. 무후(武后)는 당(唐)나라의 왕통인 이씨(李氏)를 누르고 자신의 무씨(武氏)를 높였으며, 당(唐)나라를 폐지하고 주(周)나라라 일컬었으며, 종사(宗社)를 새로 세우고 연호(年號)를 정하였으니 흉역(凶逆)됨이 더할 수 없다. 마땅히 그 죄악을 들어 밝혀서 만세(萬世)에 보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그를 높였으니 당(唐)나라의 기년(紀年)을 일컬고 주(周)나라의 연호(年

號)를 쓰는 것이 옳단 말인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일을 기록하는 자가 반드시 연호를 표시하여 기사(記事)의 첫머리를 삼는 것은 조강(條綱)이 문란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그대의 설(說)과 같이 하여 중종(中宗)이 이미 폐위(廢位)된 뒤에는 연호(年號)는 빼어버리고 쓰지 않는다면 천하의 일은 장차 어디에 매여져야 한단 말인가”라고 한다면, 나는 말할 것이다.

“노(魯)나라의 소공(昭公)이 계씨(季氏)에게 쫓겨서 건후(乾侯)에 가서 살고 있었으나 《춘추(春秋)》에서 일찍이 소공(昭公)의 연호를 쓰지 않은 때가 없다. 방릉(房陵)의 폐위가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역사(歷史)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춘추필법(春秋筆法)을 본받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고, 그 시(詩)를 대략 말하면 이러하다.

구공(歐公)은 진실로 이름 있는 선비인데,
기록해야 할 것과 깎아야 할 것을 그르치고 있네.
어찌 주(周)나라의 찌꺼기를 가져다
우리 당(唐)나라의 일월(日月)을 더럽힌단 말인가.
〔歐公信名儒 筆削免未失 郡將周餘分 黷我唐日月〕

뒤에 회암(晦菴)의 감우시(感遇詩)를 열람(閱覽)하니,

어찌다 구양자(歐陽子)는
붓을 잡고 지극히 공정(公正)한 것을 잘못 판단하였는가.
〔如何歐陽子 秉筆迷至公〕

라고 한 글 한 편이 있었다.

나는 책을 어루만지며 스스로 탄식하기를, “후생(後生)의 천루(淺陋)한 학문으로, 의논한 것이 주자(朱子)에게 그릇됨이 없었음을 누가 생각하였겠는가”라고 하였

다.(범씨(范氏)의 《당감(唐鑑)》에도 또한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다.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한번 웃고, 스스로 그것을 적게 기술(記述)한 것을 후회하였다.)

순자(荀子)가 번번이 자궁(子弓)이라는 자를 공자(孔子)와 동격(同格)으로 추켜서 “중니(仲尼) · 자궁(子弓)” 하면서 병칭(并稱)하였다.

당(唐)나라의 양경(楊倞)이 말하기를, “자궁(子弓)은 중궁(仲弓)이다. 자궁(子弓)이라고 하여 자(子)를 붙인 것은 자기의 스승을 높여서 한 말이다”고 하였다.

나는 고증(考證)하여 보니 순경(筭卿)은 맹자(孟子)보다 뒤에 났으며, 중궁(仲弓)은 자사(子思)보다도 먼저 사람이다. 맹자가 자사(子思)에게 배우지 못하고, 그의 문인(門人)에게 수업(受業)하였다. 순경(筭卿)이 어떻게 중궁에게 사사(師事)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자궁이라는 자는 마땅히 따로 한 사람 있었던 것이다. 자궁(子弓)의 공덕이 세상에 전하지 아니하니, 과연 공자에게 짝할 만한 인물이었던가.

그의 제자(弟子)가 주장한 성악설(性惡說)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그 학설이 생기게 된 근원인, 스승의 인물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학설은 재전(再轉)하여 시서(詩書)를 불태우고 유생(儒生)을 생매장(生埋葬)한 이사(李斯)가 되게 하지 않았는가.

《역경(易經)》 건괘(乾卦)의 효사(爻辭)는 제1효(爻)에서부터 제6효에 이르기까지 다 용(龍)의 상태를 설명하였는데 그중에서 홀로 93효(爻)⁵만은 용을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6효(爻)를 3으로 나누어서 3재(才)에 배정한다. 초효(初爻)⁶ 2효(爻)는 땅(地)을 의미하고, 3효 · 4효는 사람(人)을 상징하며, 5효와 상효(上爻)⁷는 하늘(天)을 표시한다.

이미 못(淵)을 떠났으며, 아직 하늘에는 오르지 못하였다면 용(龍)의 헤아릴 수 없는 신기한 변화는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제3효는 직접 사람의 일을 말하고 용

5 효(爻) : 아래에서부터 제3효인 양효(陽爻)를 말할.

6 초효(初爻) : 아래에서부터 첫 효.

7 상효(上爻) : 즉 제6효.

의 상태를 상징하지 않는 것이다. 제4효에 올라가면 하늘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용이 그 변화(變化)를 신기하게 하기에 넉넉한 것이다.

그러므로 ‘혹은 뛰면서, 못에 있다’고 표현하여 용의 움직이는 상태를 상징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2효의 ‘몸을 드러낸 용이 밭에 있다’고 한 것은 어찌 못을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밭이라고 한 것은 물 위를 말한 것이다. 용이 헤엄쳐 돌아다니는 곳을 밭(田)이라고 한 것이다. 구름과 나는 새(飛鳥)가 왕래(往來)하는 곳을 하늘의 큰 길(天衢)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역경(易經)》 곤괘(坤卦)의 상육효(上六爻)⁸의 효사(爻辭)에, ‘용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血)가 검고 누렇다(龍戰于野 其血玄黃)’라고 한 것을 설명하는 자가 말하기를, “음(陰)과 양(陽)이 함께 상(傷)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는 여기에서 용(龍)이라고 한 것은 진정한 양을 상징하는 용이 아니다. 곤괘(坤卦)는 전체가 음효(陰爻)로 성립되어서 그 상효(上爻)는 음(陰)의 극성한 상태라고 하겠다. 이 극성한 음(陰)의 스스로 자신이 양(陽)이 된 것처럼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과 음은 어디까지나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음이 양인 것처럼 날뛰면 자신을 손상하여 그 피가 검고 누렇게 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성인(聖人)이, 음이 양에 대적(對敵)하는 것은 반드시 그 자신을 손상한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설명하는 자는 어찌 갑자기 음과 양이 함께 손상한다고 하여 양도 손상된다고 말한 것일까.

또 곤괘의 괘사(卦辭)에서 암말(牝馬)을 곤(坤)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암말의 상징이 곤(坤)의 유순이정(柔順利貞)한 덕성(德性)을 다 포함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역경(易經)》의 저자(著者)가 세상 사람들이 알기 쉬운 것을 가지고 구상화(具象化)시켰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용의 헤아릴 수 없는 신기한 변화인들 또한 건도(乾道)를 상징하기에 넉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상육효(上六爻) : 상은 맨 위에 있는 효를 표시하고 육(六)은 음효(陰爻)를 표시한 것.

《예기(禮記)》〈단궁편(檀弓篇)〉에 말하기를, “공씨(孔氏)가 출모(出母)⁹의 상(喪)을 복상(服喪)하지 않는 것은 자사(子思)로부터 시작된 것이다”고 하였다.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나 급(伋)의 아내가 되는 자라면 백(白)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마 계모(繼母)로서 쫓겨난 자이고 생모(生母)는 아닐 것이다.

유자후(柳子厚)의 남악비문(南岳碑文)에 말하기를, “가섭(迦葉)으로부터 사자(師子)까지 24세에 이르러 분리하여 달마(達摩)가 되고, 달마로부터 인(忍)까지 5세에 이르러 더욱 분리하여 수(秀)가 되고 능(能)이 되었다”고 하였다.

《전등록(傳燈錄)》을 상고하여 보니 사자(師子)가 파사사다(婆舍斯多)에게 전하고, 파사사다는 불여밀다(不如密多)에게 전하고, 불여밀다는 반야다라(般若多羅)에게 전하고, 반야다라는 보리달마(菩提達摩)에게 전하였다고 하였다. 어찌 사자(師子)에게 이르러서 분리되어 달마(達摩)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달마달(達摩達)이라는 자가 있으니 사자(師子)의 방계(傍系)이다.

유자후가 아마 달마달을 보리달마(菩提達摩)로 오인(誤認)한 것일 것이다.

북원(北原)의 흥법사비(興法寺碑)는 고려 태조가 친히 그 비문(碑文)을 짓고, 최광윤(崔光胤)이 당(唐)나라 태종 황제의 글씨를 모아서 돌에 모각(摹刻)¹⁰한 것이다. 말이 웅대(雄大)하고 깊으며 거룩하고 아름다워서 검은 구슬을 찬(佩) 신하와 붉은 신을 신은 임금의 조정에서 음양(揖讓)하는 기상 같고, 글자는 큰 글씨·잔 글씨, 해서(楷書)·행서(行書)가 서로 사이사이에 알맞게 배열되어서 마치 난봉(鸞鳳)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기(氣)가 하늘 밖까지 삼킬 것 같다. 진실로 천하의 보물이라고 하겠다.

정국안화사(靖國安和寺)에, 예종(睿宗)의 당률사운시(唐律四韻詩) 한 편을 돌에 새긴 것이 있다. 그 후면(後面)에 태자(太子) 아무개가 글씨를 썼다고 한 것은 인종의

9 출모(出母) :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어머니.

10 모각(摹刻) : 본을 떠서 새기는 것.

휘(諱)다.

이때에는 왕과 태자가 다 정신을 가다듬어 학문을 닦았으며 유아(儒雅)한 인물들을 찾아서 등용(登用)하였다. 그리하여 윤관(尹瓘)·오연충(吳延寵)·이오(李頴)·이예(李預)·박호(朴浩)·김연(金緣)·김부일(金富弼)·김부식(金富軾)·김부의(金富儀)·홍관(洪攢)·인빈(印份)·권적(權適)·윤언이(尹彦頤)·이지저(李之抵)·최유청(崔惟淸)·정지상(鄭知常)·곽동순(郭東珣)·임완(林完)·호종단(胡宗旦) 등의 명신(名臣)과 현사(賢士)들이 조정에 벌려 서서 토론(討論)하는 것이 윤택하고 빛이 나며 부지런하여 게으름이 없어서 중국 조정과 같은 풍모(風貌)가 있었다. 뒷 세상에서는 따라갈 수 없다.

명종(明宗)이 손수 전한(前漢)의 기(紀)·지(志)·표(表)·전(傳) 등 99편을 필사(筆寫)한 제목(題目)을 전일에 상서(尙書) 유인수(柳仁脩) 댁에서 보았다.

명종이 국가의 모든 기무(機務)를 살피는 여가에 전적(典籍)에 마음을 두었으며 붓글씨의 묘(妙)함은 옛사람에 못하지 않다. 아무리 기리고 찬탄하여도 오히려 부족하다. 따라서 양정수(楊廷秀)의 덕수궁(德壽宮)에서 쓴 《전한열전찬(前漢列傳贊)》을 보고 읊은 시(詩)가 기억난다.

그 시에 말하기를, “소신(小臣)이 외람되게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손수 《효경(孝經)》을 초(抄)하여 책을 치운 일이 없건마는, 그러나 어찌 일찍이 붓을 잡고 사한(史漢)과 같은 방대한 전적을 필사하려고 바라볼 수나 있었던가. 이제 《전한열전찬》을 보고, 두 번 절하고 엎드려 읽노라니 땀이 옷을 적시네[小臣濫巾縫掖行 手抄孝經未輟章 何曾把筆望史漢 再拜伏讀汗透裳]”라고 하였다. 이 시는 사람의 뱃속의 생각을 잘 말하였다고 하겠다.

옛사람의 시(詩)는 눈앞에 보이는 경치를 그리고 있지만 뜻은 말 밖에 있다. 말은 다할 수 있으나 맛은 다하지 않는다.

저 도팽택(陶彭澤)의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꺾어 가지고, 우두커니 남산을 바라본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고 한 시(詩)라든가, 진간재(陳簡齋)의 “문을 여니 비가 온 것을 알겠구나, 늙은 나무가 반신(半身)이 젖었으니[開門知有雨 老樹

半身濕”라고 한 시가 그러한 것이다.

나는 유독 ‘지당에 봄풀이 났구나(池塘生春草)’라는 글귀를 사랑한다. 거기에는 말로 전할 수 없는 묘미(妙味)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일에 일찍이 여항(餘杭) 땅에 손 노릇하였을 때에, 난초(蘭草)를 분(盆)에 심은 것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었다. 책상 위에 두고, 한창 빈객(賓客)을 응대하고 사물(事物)을 수작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향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밤이 깊어졌을 때에 고요히 앉았으니 밝은 달빛이 창에 가득하였다.

그때 향기가 코를 찌르는 듯하였다. 그 향기는 맑고 그윽히 멀어서 사랑할 만하다. 그러나 말로 형용할 수는 없었다.

내가 즐거워서 혼자 말하기를, “이 은혜는 내가 ‘지당생춘초(池塘生春草)’라는 글귀를 사랑한 것에 관련(關聯)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였다.

두소릉(杜少陵)의 시에, “땅이 편소(偏小)하니 강(江)이 촉(蜀)나라를 흔들고, 하늘이 멀어서 나무들이 진(秦)나라에 떠(浮) 있구나(地偏江動蜀 天遠樹浮秦)”라는 글귀가 있다.

내가 일찍이 진촉(秦蜀)에 유람(遊覽)한 일이 있다. 촉나라의 땅은 서쪽이 높고 동쪽은 낮다. 강물은 민산(岷山)에서 나와서 성도(成都)의 동남쪽을 거쳐 삼협(三峽)으로 달린다. 물결의 광채와 산 그림자가 위아래에서 흔들리고 움직인다. 진중(秦中)은 천리의 먼 땅이 손바닥처럼 평평하다. 장안성(長安城)의 남쪽에서 바라보면 삼면(三面)에 푸른 나무들이 그 아래에 둥실둥실 무성하게 서 있고, 들빛은 하늘에 닿아서 마치 거대한 호수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나는 여기에서 비로소 이 글귀의 뜻을 알게 되었다. 두소릉이 진촉(秦蜀)을 위하여 그 신기하고도 절묘(絕妙)한 곳을 전(傳)한 것은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사경(四更)에 산이 달을 토하니,

새벽녘 물이 누대(樓臺)를 밝히네.

티끌 궤갑(匱)에 크게 거울을 열었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주렴이 저절로 갈구리에 올라가네.

〔四更山吐月 殘夜水明樓 塵匣元開鏡 風簾自上鉤〕

이 시(詩) 대하여 졸옹(拙翁) 최해(崔澐)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밑의 글귀는 다 달을 말한 것이라고 하지만 잘못이다. 티끌 께갑에 크게 거울을 열었다고 한 것은 물이 누각을 밝혀주는 광경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기부영회시(夔府詠懷詩)>에,

산협(山峽)은 창강(蒼江)을 묶어서 일어서고,

바위는 고목(古木)을 배립(排立)시켜 둥글게 있네.

구름을 떨치어 초(楚)나라의 기운을 묻어버리고,

바다에 조회(朝會)하여 오(吳)나라의 하늘을 차서 깨뜨리네.

〔峽東蒼江起 巖排古樹員 拂雲埋楚氣 朝海蹴吳天〕

라고 한 글귀에서 ‘구름을 떨친다(拂雲)’라고 한 것은 고목을 말한 것이고, ‘바다에 조회한다(朝海)’고 한 것은 창강(蒼江)을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시가(詩家)의 한 격식인 것이다.

‘위언(韋僊)의 솔그림(畫松)을 희롱하여 지은 시(戲題韋僊畫松詩)’라고 한 시(詩)에서 희롱하는 말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고소(姑蘇) 주덕윤(朱德潤)은 그림을 씩 잘 그리는 사람이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대체로 소나무나 잣나무를 그릴 때에 나무의 꺾이고 굽은 것(輪囷), 바위너셀이나 돌서덜(礪砢)은 비교적 그리기 쉬우나 하늘을 향하여 구렁에서 높이 치솟은 형상이 가장 그리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 시(詩)의 후반(後半)의 네 구(四句)를 보면,

나에게 좋은 동쪽 나라의 견직(絹織) 한 필이 있어서,

소중하기가 채색비단에 못지 않다네.

이미 혼란한 광택(光澤)을 닦아 버리게 하였으니,
청컨대 그대는 화필(畫筆)을 휘둘러 곧은 줄기를 그리게나.
〔我有一匹好東絹 重之不減錦繡段 已令拂拭光凌亂 請君放筆爲直幹〕

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연(僊)을 희롱한 것이다.¹¹

사성(司成) 설문우(薛文遇)가 말하기를, “이태백(李太白)의 청평사(淸平詞)에,

한 가지의 유난히 고운 꽃이 이슬을 머금고 향기로운 것처럼, 양귀비(楊貴妃)는
아름답구나.

옛날 초양왕(楚襄王)의 무산(巫山) 운우(雲雨)의 꿈은 부질없이 애만 타게 하였
네.

또 문노니 한(漢) 나라의 궁중(宮中)에서는 누가 귀비와 같을 수 있겠는가.

조비연(趙飛鸞)이라는 여인이 새 단장(新粧)에 의지한 것이 가없구나.

〔一枝仙艷露凝香 雲雨巫山枉斷腸 且問漢宮誰得似 可憐飛鸞倚新粧〕

라고 한 글귀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 새 단장에 의지한다고 한 것은 조후(趙后)가
한(漢)나라의 궁중에서 총애를 독차지하였으나, 그는 다만 지분(脂粉)의 단장에만
의지하였을 뿐이니 ‘가없다’고 한 것이다. 그 가없다고 한 것이 조소(嘲笑)하는 말
이다”라고 하였다.

유빈객(劉賓客)의 <금릉회고(金陵懷古)>란 시에,

조수(潮水)는 야성(冶城)의 물가에 가득하고,

달은 정로정(征虜亭) 정자에 비꼈네.

11 즉 연(僊)은 ‘누을 연’이라는 글자이다. 위연(韋僊)에게 누운 소나무를 그리지 말고 곧은 술을 그리라고
희롱해 말한 것이다.

찰주(察州)에는 새로운 풀이 푸르고,
막부(幕府)에는 옛처럼 연기가 푸르구나.
흥(興)하고 폐(廢)하는 것은 인사(人事)에 말미암은 것인데,
산천(山川)은 비었으나 지형(地形)은 예대로 있네.
후정화(後庭花) 한 가락 노랫소리가 슬퍼라.
원망스러워 견디어 들을 수 없구나.

[潮滿冶城者 月斜征虜亭 察州新草綠 幕府舊烟青 興廢由人事 山川空地形 後庭花
一曲 哀怨不堪聽]

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네 사람이 용(龍)의 턱을 더듬어서 몽득(夢得)이 구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일까. [시화(詩話)에 ‘왕준누선하익주(王濬樓船下益州)’라고 한 유우석(劉禹錫)의 한 편 시(詩)를 유몽득(劉夢得)이 여의주를 얻었다고 하였다.]

몽득(夢得) 유우석(劉禹錫)의 <금릉오제(金陵五題)>에,

산은 고국을 안고 첩첩이 둘러 있고
조수는 빈 성을 치고 쓸쓸히 물러가네.
회수(淮水)의 동쪽 물가 예 돌던 달은
지금도 잊지 않고 깊은 이 밤중을 성 위의 담을 넘어 비쳐 오누나.
[山圍故國周遭在 潮打空城寂莫回 淮水東邊舊時月 夜深還過女牆來]

주작교(朱雀橋) 다리 가엔 들꽃이 피고,
오의항(烏衣巷) 동구에는 석양이 비졌네.
옛날 왕씨 사씨의 마루 앞을 날던 제비,
지금은 김가 이가 백성집에 날아드네.
[朱雀橋邊野草花 烏衣巷口夕陽斜 舊時王謝堂前燕 飛入尋常百姓家]

살아서 설법을 하면 귀신도 듣더니

가신 뒤엔 빈 마루 밤에도 빗장이 없네.

예좌(猗座)¹²는 적막하고 티끌세상 아득히 먼데,

중정(中庭)의 달빛이 정경(情景)에 어울리네.

[生公說法鬼神聽 身後空堂夜不扃 猗座寂寥塵漠漠 一方明月可中庭]

이상의 3편은 다 가작(佳作)이다. 그러나 백낙천(白樂天)은 유독 ‘조수는 빈 성을 치고 쓸쓸히 물러가네(潮打空城寂寞回)’를 좋아하여 머리를 흔들며 고심(苦心)하여 시를 읊다가 말하기를,

“이 시가 있는 뒤로는 후세의 시인들이 다시 글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동파(東坡)가 일찍이 이 시의 제3편을 쓰니,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째서 ‘밝은 달이 중정(中庭)에 가득하다(明月滿中庭)’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였다.

동파가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옛사람이 시(詩)를 보는 것이 이와 같았다.

한퇴지(韓退之)와 유자후(柳子厚)의 문장(文章)은 서로 강적(強敵)이라고 옛 사람도 지금 사람도 말하고 있다.

한퇴지와 유자후가 모두 논문이 있다. <서복수의(書服讐議)·<송문창서(送文暢序)>와 한퇴지의 <오자왕승복전(圻者王承福傳)>, 유자후의 <재인전(梓人傳)>, 한(韓)의 <서장중승전후(書張中丞傳後)>, 유(柳)의 <수양묘비(睢陽廟碑)>, 한의 <평회서비(平淮西碑)>, 유의 <평회이아(平淮夷雅)>의 따위를 종류에 따라 편찬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반복(反復)하여 읽어 본다면 더욱 즐거울 것이다.

굴원(屈原)의 천문(天問)을 보고 유자후(柳子厚)가 이에 대답한 것이 천대(天對)다. 천문도 천대도 모두 문장이 험잡(險澁)하여 읽기 어렵다.

우리 집에 주회암(朱晦菴)의 주해(註解)가 있다. 이것을 읽으면 이른바 얼음이 녹

12 예좌(猗座) : 고승(高僧)의 앉는 자리.

는 것처럼 의심이 풀리고, 즐겁도록 사리(事理)가 자연스럽다.

근간에 학사(學士) 민상의(閔相義)의 집에서 양성재(楊誠齋)도 또한 이에 대해 주해한 것이 있음을 보았다. 더욱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장차 두 선생과 왕일(王逸) 등 세 사람의 해설을 편찬하여 집해(集解)를 만들 수 있다면 또한 배우는 자의 한 가지 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구양영숙(歐陽永叔)이 스스로 자랑하여 말하기를, “나의 〈여산고(廬山高)〉라는 글을 누구도 그만큼 잘 지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태백은 할 수 있다. 나의 명비(明妃)의 후편(後篇)은 태백(太白)은 그만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자미(杜子美)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편(前編)은 자미(子美)는 그만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후세의 호사자(好事者)가 여산고(廬山高)의 음절(音節)이 태백의 시(詩)와 비슷하고, 명비후편(明妃後篇)의 음절이 자미(子美)의 시와 비슷한 것을 보고 함부로 한 말일 뿐이다.

소노천(蘇老泉) 순(洵)이 구양수에게 올린 편지에 말하기를, “맹자(孟子)나 한자(韓子)의 글이 아니고 구양자(歐陽子)의 글입니다. 가령 시(詩)의 경우에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李), 두(杜)로 하여금 구공(歐公)과 같은 시를 지으라고 한다면 반드시 같게 짓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공(歐公)이 이(李), 두(杜)와 같은 시를 짓는다면 우맹(優孟)¹³이 손숙오(孫叔敖)의 모습을 하고 손뺑을 치며 담소(談笑)하는 것처럼 혹사(酷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맹을 문득 참 손숙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형공(荊公)의 시(詩)로서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송현집(宋賢集)》 중에 있는 10

13 우맹(優孟) : 춘추시대의 초(楚)나라 사람. 초나라의 착한 재상 손숙오(孫叔敖)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이 매우 빈궁한데도 나라에서 돌보지 않으니 우맹이 손숙오와 얼굴이 서로 닮았으므로 그 의관을 착용하고 손숙오의 모습을 하여, 해(年)가 넘도록 손뺑을 치며 담소(談笑)하는 것을 손숙오와 똑같이 하였다. 장왕(莊王)을 보고 노래를 지어 불러서 감동하게 하여 숙오의 아들을 침구(寢丘)에 봉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여 수는 다 뛰어나게 아름답다.

해가 서쪽으로 기우니 섬돌 그림자 오동잎 위에 구르고,
주렴을 청산(靑山)에 걸으니 샛자리 반은 비었네.
남쪽 계곡(谿谷) 저녁 벌에 푸른 연기 일어나고,
서산(西山)은 아득히 멀어 보일 듯 말 듯 하여라.
〔日四皆影轉梧桐 廉捲靑山簾半空 南澗夕陽烟自起 西山漠漠有無中〕

동강(東江)에 나뭇잎 떨어지고 물은 질펀히 갈라졌는데,
잠자는 물오리와 쇠잔한 갈대 운애(雲靄) 속에 덮였네.
돌아가는 북쪽 사람들 이 경치 잊지 못하여,
집집마다 그림을 그려 병풍에 올리네.
〔東江水落水分洪 睡鴨殘蘆掩靄中 歸去北人多憶此 每家圖畫上屏風〕

물빛과 산 기운 푸르름이 넘치기에,
지는 해에 가려다 말고 또 잠깐 머무르네.
지금부터 이 경치 길이길이 꿈에 뵈면,
꿈속에서 돌아와 벗과 함께 놀리라.
〔水光山氣碧浮浮 落日將還又小留 從此定應長入夢 夢中還與故人遊〕

금화로(金爐)에 향불은 타서 다하고 누수(漏水)소리 가냘픈데,
술술 부는 가벼운 바람 이따금 이따금 차가워라.
봄 경치 사람을 괴롭혀서 잠 못자는 이 밤을,
달빛이 꽃그림자 옮겨 갖고 난간에 오르네.
〔金爐香盡漏聲殘 剪剪輕風陣陣寒 春色惱人眼不得 月移花影上欄干〕

돛을 내리니 강구(江口)에 달은 황혼이로구나.

조그만 술집에 등불은 꺼지고 문을 막 닫으려 하네.

모래 언덕에 반쯤 내민 신나무는 시들었건마는,

거년에 배를 매던 흔적만은 남아 있네.

[落帆江口月黃昏 小店無燈欲閉門 半出岸沙楓欲死 擊舟唯有去年痕]

내 단청(丹青)과 더불어 두 번이나 몸을 바꾸어,

세간(世間)에 유전(流轉)하다가 마침 티끌이 되었다오.

다만 이 물건이 다른 물건 아님을 알 뿐이니,

지금 사람이 곧 옛사람이나고는 묻지 마오.

[我與丹青兩幻身 世間流轉會成塵 但知此物非他物 莫問今人猶昔人]

수양버들 늘어선 사잇길엔 붉은 이끼 덮여 있고,

고요한 원락(院落)에는 사람의 말소리 쓸쓸하다.

한 그루 살구꽃이 있어 손(客)을 반기는 듯,

담을 의지하여 두어 가지 석양에 붉었네.

[垂楊一徑紫苔封 人語蕭蕭院落中 唯有杏花如喚客 倚牆斜日數枝紅]

넷물은 맑고 잔잔하고, 고목은 푸른데

나무 속 뚫고 나가 봄별을 다시 밟고,

골 깊고 나무 우거진, 사람 없는 곳에,

다만 그윽한 꽃이 있어 향기가 물을 건너오네.

[溪水清漣樹老蒼 行穿溪水踏春陽 溪深樹密無人處 只有幽花渡水香]

이상의 각 편은 한 글자 한 글귀가 모두 밝은 구슬이 반 위를 도르르 굴러가는
것 같아서 사랑스럽다.

원택(元澤)의 시에 말하기를,

물가에 산이 비추니 사창(紗窓)이 푸르구나.
솔(松) 아래에 도서(圖書)를 쌓아 돌 책상에 가득하다.
외객(外客)은 오지 않고, 봄은 진정 고요한데,
꽃 사이의 새들이 사양(斜陽)을 울며 보내네.
〔水邊山映碧紗窓 松下圖書滿石牀 外客不來春正靜 花間啼鳥送斜陽〕

이 시는 참으로 형공(荊公)의 시법(詩法)을 체득하였다고 하였다.

〈무산고(巫山高)〉라는 시편 가운데, ‘흰 달이 해와 같아서 방과 창을 밝힌다(白月如明房櫺)’라는 것이 있다.

이벽(李壁)의 주해(註解)하여 말하기를, “흰달(白月)이라고 한 것은 구슬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수계(劉須溪)가 비평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구슬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 벽의 속기(俗氣)를 덮을 수 없다”고 하였다.

어떤 중이 나에게 묻기를, “동파(東坡)의 ‘오강삼현(吳江三賢)을 희롱하여 짓는다〔戲題吳江三賢〕’고 한 시(詩)에 희롱한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삼업(三業)¹⁴을 경계하지 않은 것이다.”

중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범려(范蠡)는 서시(西施)를 얻었으니 신업(身業)이고, 장한(張翰)은 노어(鱸魚)를 생각하였으니 구업(口業)이고, 귀몽(龜蒙)은 남을 속여서 재물을 취득하였으니 의업(意業)인 것이다”고 하니 중이 크게 웃었다.

소동파가 이공(李公)의 백석산방(白石山房)을 택(擇)한 것을 희롱하여 지은 시에,

14 삼업(三業) : 불가(佛家)의 말로서, 인간의 세 가지 업(業)을 말한 것이니, 즉 신업(身業) · 구업(口業) · 의업(意業)을 말한다. 업(業)이란 말은 몸 · 입 · 뜻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하는 것과 그 세력을 말한 것이다.

우연히 흐르는 물을 따라 높은 산에 오르니

오로봉 푸른 낮에 한 번 웃음이 열린다.

만약 적선(謫仙)이 번거롭게 말 전하는 것을 본다면,

광산(匡山)¹⁵에서도 머리가 희어지는 짓을, 구태여 백석산방이라, 빨리 돌아오라고 하리라.

〔偶尋流水上崔嵬 五老蒼顏一笑開 若見謫仙煩寄語 匡山頭白早歸來〕

고 한 것이 있다.

이것을 만약 동파(東坡)가 다섯 늙은이를 번거롭게 하여 이태백에게 말을 붙인다고 풀이하면 잘못된 것이다. 옛날 이것을 최죽옹(崔拙翁)에게 물었더니 옹(翁)이 아래 글귀를 세 번 거듭 읽어보고 생각하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착안(着眼)을 높게 하라”고 하니, 옹(翁)이 곧 깨닫고 서로 크게 웃었다.

진간재(陳簡齋)가 관상사(觀相師)에게 주는 시에 말하기를,

쥐는 같은 눈은 전부터 내 스스로 알거니와,

거북 같은 창자는 세상과는 서로 어긋난다.

취해 와서 문득 스님에게 묻고자 하니,

온산에 황엽(黃葉)인데 석장(錫杖)¹⁶이 날아오네.

〔鼠目向來吾自了 龜腸從與相違 醉來却欲憑師問 黃葉漫山錫杖飛〕

구법(句法)의 공교함이 이와 같다.

동파(東坡)가 말하기를, “불같이 상승(上騰)하는 것이 비록 수(數)에 있다고 하나,

15 광산(匡山) : 사천성(四川省) 강유현(江油縣)의 서쪽과 창명현(彰明縣)의 경계에 있는 산. 대광산(大匡山), 개강산(大康山) 또는 대천산(戴天山)이라고도 한다. 옛날 당(唐)나라의 이백(李白)이 일찍이 이 산 중에 숨어서 글을 읽었다고 한다. 두보(杜甫)가 이백에게 보낸 시(詩)에, “광산 글 읽던 곳에, 머리가 희어져서 잘 돌아오다(匡山讀書處 頭白好歸來)”라는 글귀가 있다.

16 석장(錫杖) : 중의 지팡이.

급류(急流) 같은 추세(趨勢) 속인들 어찌 용퇴(勇退)하는 사람이 없으랴(火色上騰 雖有數 急流勇退豈無人)”고 하였다. 호탕한 것이 좋다.

선군(先君)이 《산곡집(山谷集)》을 열람(閱覽)하다가 말하기를, “전일에 강도(江都)에 있을 때에, 선달(先達) 이담(李湛)¹⁷이라는 자가 있어서 시(詩)를 지으면 말은 엄중하고 뜻은 새로웠다. 고사(故事)를 인용(引用)하는 것이 험벽(險僻)하여 당시(當時)의 숭상하는 것과는 배치되었다. 그런 까닭에 마침내 드러나지 못하였다. 대체로 부옹(涪翁)의 체를 배워서 그와 똑같이 한 것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고심(苦心)하여 학업을 닦은 선비로서 청운지사(靑雲之士)의 지기(知己)를 만나지 못하여 몸이 다할 때까지 명문(名聞) 없음이 이선달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애석하지 않은가.”

17 이담(李湛) : 금지의 심악군(深岳君)과 우연히 같은 이름이다.

후집2

후집 2

사간(司諫) 정지상(鄭知常)의 시에,

비 그친 긴 강둑에 풀빛은 질푸른데,
임 보내는 남쪽 물가 슬픈 노래 부른다.
흐르는 대동강 물 언제인들 그칠소냐,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결 보태느니.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作波]

연남(燕南) 사람 양재(梁載)가 일찍이 이 시를 베끼는데, ‘이별하는 눈물이 해마다 해마다 푸른 물결을 분(漲)게 한다(別淚年年漲綠波)’라고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작(作)이나 창(漲) 두 자가 다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마땅히 ‘푸른 물결을 더한다(添綠波)’라고 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정지상의 시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땅이 하늘에 닿은 것이 그다지 멀지 않구나.
사람이 흰구름과 마주 대하니 한가롭기만 하네.

[地應碧落不多遠 人與白雲相對閑]

뜬 구름 흐르는 물을 따라 손(客)이 절에 이르니,
 붉은 잎 푸른 이끼 속에 중은 문을 닫네.

[浮雲流水客到寺 紅葉蒼苔僧閉門]

녹양(綠楊) 아래에 문을 닫은 열아홉 집이 있고,
 밝은 달 속 누(樓)에 의지하여 서너 사람이 섰네.

[綠楊閉八九屋 明月倚樓三四人]

위로 별과 부딪칠듯 삼각형 높은 집이,
반은 허공에 솟아 다락이 한 간(間)일세.
〔上磨星斗屋三角 半出虛空樓一間〕

돌머리에 술은 늙었는데 한 조각 달이 걸렸고,
하늘 끝에 구름은 일천 점 산에 낮게 드리웠네.
〔石頭松老一片月 天末雲低千點山〕

이상의 여러 글귀들은 이 시인(詩人)이 즐겨 쓰는 운율(韻律)이다.

상서(尙書) 김신윤(金莘尹)이 의종(毅宗) 경인년 중구달(重九月)에 지은 시에,

임금의 수레 바로 그 밑에서 무신(武臣)들의 변란이 일어나서,
사람 죽이기를 어지러운 삼 배듯 하네.
하지만 중구의 좋은 때를 저버릴 수 없어.
흰 술에 황화(黃化)를 띄워 마시네.
〔輦下風雲起 殺人如亂麻 良辰不可負 白酒泛黃花〕

그때의 일을 어찌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늙은이의 가슴속도 또한
활달하여 구애됨이 없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대축(大祝) 오세재(吳世才)가 의종(毅宗)의 미행(微行)하는 것을 풍자한 시에,

날은 청명(淸明)한데 어찌하여,
검은 구름 땅에 낮게 덮였는고.
도성(都城)의 사람들아 가까이 가지 말라.
용(龍)이 이 속으로 다닌다네.

〔胡乃日清明 黑雲低地橫 都人且莫近 龍向此中行〕

그는 또 남이 사용한 운자(韻字)에 따라, 극암(戟巖 창바위)을 읊은 시가 있다.

성 북쪽에 높고 험한 돌이 있어,
나라 사람들이 창바위(戟巖)라 부른다.
멀리 솟음은 학(鶴)을 타고 날아간 왕자 진(王子晉)에 부딪칠 것 같고,
높고 뾰족함은 하늘에 오른 무함(巫咸)을 찌를 것 같다.
자루(柄)를 불러서 바로잡는 데는 번갯불이 풀무가 되고,
칼날을 씻어 예리하게 다듬는 데는 서리(霜)가 소금이라네.
어떻게 하면 병기(兵器)를 만들어서
높은 것(楚)을 없애버리고, 낮은 것(凡)은 존재하게 할 수 있을까.
〔城北石巖巖 邦人號戟巖 迴椿乘鶴晉 高刺上天咸 揉柄電爲火 洗鋒霜是鹽 何堂
作兵器 亡楚却存凡〕

병든 눈(目)을 두고 지은 시는 이렇하다.

늡음과 병은 약속한 듯 함께 오니
늡고 병든 몸에 포의(布衣)가 차가워라.
병든 눈엔 꽃도 검게 보이고 어른어른 가리는 것도 많구나.
자석(紫石) 안경에도 광휘(光輝)가 적어졌네.
등잔불 앞에서는 글자가 겁이 나고,
눈(雪) 내린 뒤엔 햇별이 부끄럽다.
기다려서 금방(金榜)에 씌어진 신급제의 명단이나 보고 나면,
아예 눈을 감고 무심(無心)을 배우리라.
〔老與病相期 窮年一布衣
玄花多掩翳 紫石少光輝〕

怯照燈前字 羞看雪後暉
待看金榜罷 閉目學忘機

이문순공(李文順公) 규보(奎報)가 말하기를, “선생의 시(詩)는 한퇴지, 두자미의 체를 배웠다. 그러나 그의 시를 많이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김거사집(金居士集)》 속에 그의 시가 한 편 실려 있다.

일백 아람이나 되는 큰 재목이건마는,
소용되는 곳에 쓰여짐이 없고,
석 자나 되는 긴 부리를 가졌건마는,
할 말을 하지 못하는구나.
〔大百圍材無用用 長三尺喙不言言〕

역시 노성(老成)하고 건장(健壯)하여서 칭상(稱尙)할 만하다.

송(宋)나라 때에 상원일(上元日)에 궁내에서 어시(御詩)를 발표하니 재상(宰相) · 양제(兩制) · 삼관(三館)이 모두 응제(應製)하여 성대한 행사가 되었다. 그때 왕기(王岐) 공의 시에,

한 쌍의 봉황새는 구름 사이에서
임금의 수레를 부축해 내려오고,
여섯 마리 큰 자라는 바다 위에서
산을 명에하고 오는구나.
〔雙鳳雲間扶輦下 六鰲海上駕山來〕

- 1 육오(六鰲) : 여섯 마리의 자라라는 뜻. 《열자(列子)》에 “상제(上帝)가 큰 자라(巨鰲) 열다섯 마리에게 명하여 3교대(交代)로 오산(五山)을 이고 있게 하였는데, 용백국(龍伯國)의 거인(巨人)이 한 낚시로 그 큰 자라 여섯 마리(六鰲)를 낚아 한꺼번에 지고 갔다……”고 하였다. 고하(高下)와 주위가 3만 리 되는 산을 한 자라가 이고 있는 것이니 여섯 마리면 18만 리의 산이 되는 것이다. 이 고사에서 온 말.

라고 한 것이 가장 전아(典雅)하고 아름답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등절(燃燈節)날 밤의 문기장자시(文機障子詩)에서 이문순공(李文順公)은 이렇게 지었다.

세 번 만세를 부르니 신산(神山)이 솟아오르고,
한 번 익는 데 천년이 걸리는 바다과일이 왔네.
〔三呼萬歲神山湧 一熟千年海果來〕

이 시는 왕기공의 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선두를 다룰 만하다.

지금 예천(醴泉)의 일재(一齋) 권한공(權漢功)은,

남산(南山)이 상서를 빚어 은단지(銀瓮)를 놓고,
북두칠성은 자루를 돌려 옥잔을 잔질한다.
갈고(羯鼓) 일백 가지에 봄은 무르익었고,
봉등(鳳燈)이 달린 일천 나무에는 달이 머리를 숙였네.
〔南山釀瑞生銀瓮 北斗回杓酌玉杯
羯鼓百枝春浩蕩 鳳燈千樹月低徊〕

라고 하였고, 평리(評理) 백원항(白元恒)도 또한,

하늘에는 달빛이 가득하고, 땅에는 피리소리, 젓대소리,
하룻밤 사이에 봄은 금수강산(錦繡江山)을 열고.
〔九霄月滿笙簫地 一夜春開錦繡山〕

라고 읊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기의 시가 권일재의 시보다 훨씬 못하다고 말하였다.

동파(東坡)가 한간(韓幹)의 십사마도(十四馬圖)를 두고 지은 시는 이러하다.

한생(韓生)의 그런 말이 참 말이로구나.

소자(蘇子)가 지은 시는 그림을 보는 것 같네.

세상에는 참 말을 알아보는 백락(伯樂)도 없고 또한 한생(韓生)도 없으니,

이 시와 이 그림을 누가 볼 수 있으랴.

〔韓生畫馬真是馬 蘇子作詩如見畫〕

世無伯樂亦無韓 此詩此畫誰當看〕

이문순공(李文順公)이 노자도(鸞鷟圖)를 두고 지은 시에 이런 것이 있다.

그림은 사람마다 간직하기 어렵지마는

시(詩)는 곳곳마다 펼 수 있다.

시를 볼 때 그림 보는 것 같다면,

그 시는 또한 만고(萬古)에 전할 수 있으리라.

〔畫難人人畜 詩可處處布〕

見詩如見畫 赤足傳萬古〕

이상 두 편의 시는 말은 서로 같지 않으나 그 의사는 서로 같은 것이다.

총랑(摠郎) 홍간(洪侃)은 정승선(鄭承宣)(이름은 습명(襲明)이니 의종(毅宗) 때의 사람)의 다음 시(詩)를 가장 좋아하였다.

온갖 꽃떨기 속에 유난히 깨끗한 고운 맵시,

난데없는 광풍을 만나 붉은빛 가시어졌네.

수달의 뇌수랑 고귀한 약도 옥 같던 그 뺨 다시 곱지 못하여

오릉(五陵)의 공자(公子)들 무궁한 한(恨)이 된다네.

〔百花叢裡淡丰容 忽被狂風減却紅

獼隨未能醫玉頰 五陵公子恨無窮〕

이 시가 여러 사람에게 음미(吟味)되어 음이 오래라고 하여 어찌 더 맛이 있겠는가. 근세(近世)에 풍주(豐州)에 이름난 기생이 있더니 서경존문사(西京存問使)가 그를 불러다 부(府)의 기적(妓籍)에 넣어 두고 자못 늦게 만난 것을 한탄하였다. 학사 이의(李顥)가 시를 지어 기생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였다. 그 시는 이러하다.

옛 일을 생각하니 열다섯 살 좋은 때엔,

금비녀 쪽찢 머리, 양쪽 귀밑엔 푸른 구름 드리웠다고.

스스로 슬퍼하네, 파리하게 여윈 얼굴이

늦게 와서 존문사 막부(幕府) 속의 사람 되었음을.

〔憶昔正年三五詩 金釵兩鬢綠雲垂

自憐憔悴容華減 來作紅蓮幕裡兒〕

이 시는 정승선의 시에 비하여 그다지 못할 것이 없다.

장간공(章簡公) 장일(張鎰)의 승평연자루시(昇平燕子樓詩)에 말하기를,

연자루에 바람과 달이 처량하다.

낭관(郎官)이 한 번 간 뒤 꿈조차 아득하구나.

당시(當時)의 자리에 있던 손들, 늙은 것이 무엇이 싫단 말인가.

누상(樓上)에서 웃던 미인(美人)들도 이제 또한 백발이 되었는데.

〔風月淒涼燕子樓 郎官一去夢悠悠

當時座客何嫌老 樓上佳人赤白頭〕

밀직(密直) 곽예(郭預)의 수강궁(壽康宮)에서 새매를 잃어버린 것을 읊은 시에,

여름엔 서늘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깨끗하고 살찌게 길렀는데,
무슨 일로 구름을 뚫고 날아가 버린 채 돌아오지 않는가.
바다제비(海燕)는 일찍이 한 톨의 곡식알도 돌봐준 일 없건마는,
해마다 해마다 돌아와서 들보 옆을 날아다니는데.
〔夏涼冬暖飼鮮肥 何事穿雲去不歸
海然不曾資一粒 年年還傍畫樑飛〕

문안공(文安公) 이승휴(李承休)의 구름을 읊은 시에,

한 조각 홀연히 진흙에서 나오더니,
가로 세로 동서남북 문득 덮어버렸네.
장마 비 이루어서 말라진 것 살린답시고,
공연 중천(中天)의 밝은 해 · 달만 가리네.
〔一片忽從泥土生 東西南北便縱橫
謂成霖雨蘇群槁 空掩中天日月明〕

밀직(密直) 정윤의(鄭允宜)가 안렴사(安廉使)에게 준 시에,

새벽에 말을 달려 외로운 고을 들어가니,
사람 없는 올타리 가에 살구열매 맺었네.
포곡(布穀)새는 임금의 일 급한 것을 알지 못하고
숲가에서 온종일 춘경(春耕)하라 권하네.
〔凌晨走馬入孤城 籬落無人杏子成
布穀不知王事急 傍林終日勸春耕〕

이상의 여러 편은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즐겨 읽게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장간공의 시는 감분(感奮)하여 지은 것으로서 다른 뜻은 없다. 나머지 세편은 다 풍자(諷刺)와 야유(揶揄)가 있다. 특히 정윤의·곽예의 시는 미묘하고도 완곡(婉曲)하다.

홍평보(洪平甫) 간(侃)이 시 한 편을 내놓을 때마다 번번이 현우(賢愚)의 구별 없이 사람들이 다 즐겨하여 전해 외우곤 하였다. 《논어(論語)》에 말하지 않았던가. 한 고을 사람(鄉人)이 다 좋아하는 것도 옳지 않고, 다 미워하는 것도 옳지 않다. 선(善)한 자는 좋아하고, 불선(不善)한 자는 미워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시문(詩文)도 또한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옛 사람이 말하기를, “시(詩)는 만고(萬古)에 떠들썩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머리를 꼬덕이며 그렇다고 공감(共感)하게 만들기 어렵으며 온 좌중(座中)이 놀라게 할 수는 있으나 홀로 앉았을 때에 적족(適足)하게 여기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진정 명언(名言)이다.

월암(月菴)의 장로산 입마시(長老山立馬詩)는 옛사람의 말을 점화(點化)²한 것이 많다.

가령,

남쪽으로 수곡(水谷)에 와서는 도리어 어머니를 생각하고,
북쪽으로 송경(松京)에 이르러서는 다시 임금을 생각한다.
일곱 역(驛)과 두 강(江)의 긴 여행길에 나귀는 작아서,
문득 행리(行李)가 구름처럼 가볍지 않은 것이 싫어진다.
〔南來水谷還思母 北到松京更憶君
七驛兩江驢子小 却嫌行李不如雲〕

2 점화(點化) : 전인(前人)의 시문(詩文)의 격식을 취하여 따로 더 새로운 기축을 열어서 고인의 작품보다 더 훌륭하게 시문을 짓는 일.

이것은 즉 형공(荊公)의 시(詩)에

어머니를 한구(邗溝) 위에 모시고,
집은 백저(白茆)의 음지쪽에 머물러 두었네.
달 밝은 밤에 두견새 소리 들으니,
남·북 두 곳이 다 마음에 걸리네.
〔將母邗溝上 留家白茆陰
月明聞杜宇 南北兩關心〕

라고 한 것을 점화(點化)한 것이다. 또,

백악산(白岳山) 앞 버드나무,
안화사(安和寺)에 옮겼더니,
봄바람 할 일이 많은가,
가지를 한들한들 또 불어오네.
〔白岳山前柳 安和寺裡栽
春風多事在 裊裊又吹來〕

라고 한 월암(月菴)의 시는, 즉 양거원(楊巨源)의,

언덕 위 버드나무 실실이 푸르렀기에
그대 빌어 한 가지 꺾었더니,
봄바람 그를 아껴 차마 가지 못하는가,
은근히 손안에 불어와 다시 속삭이네.
〔陌頭楊柳綠烟絲 立馬煩君折一枝
唯有春風最相惜 慙慙更向手中吹〕

라고 한 것에서 얻은 것이다.

금(金)나라의 말년에 시인 양비경(楊飛卿)이 단풍든 나무(紅樹)를 두고 지은 시에,

바다의 붉은 놀, 비도 오지 않는데 수풀 위에 깃들고,

들불이 바람도 없는데 나무 끝에 올라왔네.

〔海霞不雨棲林表 野無風到樹頭〕

라고 한 것이 있다.

문진공(文眞公) 이장용(李藏用)도 또한 홍수(紅樹)를 읊은 시가 있다.

폐원(廢院)에 가득하니 가을 생각 괴로워라.

얇은 산에 불타는 듯 저녁별 밝게 빛나네.

〔廢院滿軒秋思苦 淺山猶揆夕陽明〕

이 시 앞에는 양비경의 늙은 무릎이 꿇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진공이 삼각산문수사(三角山文殊寺)를 읊은 장편시(長篇詩) 가운데에, “이야기도 그쳤을 때 이지러진 달이 깊은 삼작에 들어오고 늦도록 앉았노라면 높은 잣나무에 바람소리 가늘게 스쳐간다(語闌缺月入深扉 坐久微風吟聳柏)”라고 한 글귀가 있다. 산중의 취미를 깊이 체득(體得)하였다고 하겠다. 또 한 글귀에는 “종과 범패(梵唄)의 소리 속에 한 등잔이 붉었구나(鍾梵聲中一燈赤)”라고 한 것이 있다.

나씨(羅氏)의 노사(路史)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의 등불을 고치지 않은 채 오대(五代)에 이르면 그 불빛이 붉기가 피와 같았다”고 하였다. 문진공이 이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장명등(長明燈)³을 말한 것이다.

문의공(文懿公) 박항(朴恒)의 시에,

3 장명등(長明燈) : 길이 밝은 등불이란 뜻.

얇은 산 밝은 낮에 비 뿌리더니,
옛성터(古塞) 누른 티끌 홀연히 무지개 뻗치네.
〔淺山白日能飛雨 古塞黃塵忽放虹〕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의 시에,

한 비둘기 울음 우는 새벽 비에 풀은 들에 이어지고,
단필 말로 봄바람 달려가니 꽃은 성(城)에 가득하구나.
〔一鳩曉雨草連野 匹馬春風花滿城〕

밀직(密直) 김이(金怡)의 시에,

조각 구름 검은 저 곳, 어느 산에 비오는가,
꽃다운 풀 푸른 때에 온종일 바람이 부는구나.
〔片雲黑處何山雨 芳草時盡日風〕

이상의 글귀들은 다 아름다운 글귀다. 다만 전편(全篇)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산인(山人) 오생(悟生)의 황산강루시(黃山江樓詩)의 끝 귀에 말하기를, “누워서 어부(漁夫)의 노 저으며 하는 말 들어보니, 먼지 휘날리며 말달리는 사람들 우리 무리 아니라 하네(臥聞漁夫軸轡語 走馬紅塵非我徒)”라고 하였다. 소동파의 〈어부사(漁父詞)〉에는 말하기를, “강둑에 말 타고 온 벼슬아치가 나와 함께 작은 배로 남쪽 언덕 건너가네(江頭騎馬是官人 偕我孤舟南渡坡)”라고 하였다.

소동파의 이 글귀는 마치 용(龍)의 잠자는 것을 그린 그림에서, 이광(李廣)이 호아(胡兒)의 활을 빼앗아 가득히 당겼으나 아직 살이 발사(發射)되지 않는 모습과 같다.

그러나 오생(悟生)의 글귀는 마치 달리는 말을 뒤쫓아 가면서 활을 쏘아 맞힌 것을 그린 것 같다.

단지(坦之)가 과거에 합격하여 시 잘 짓는다는 이름이 있더니, 중이 되어 호(號)를 취봉(鷺峯)이라고 하였다. 배꽃(梨花)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은 시에,

백만(百萬) 옥룡(玉龍)이 구슬을 다투는 곳에,
바다밑 양후(陽侯)⁴가 떨어진 비늘을 주워서,
몰래 봄바람 꽃저자를 향해 파니,
동군(東君)이 붉은 티끌을 흐트리기가 쉽다.
〔玉龍百萬爭珠處 海底陽侯拾敗鱗
暗向春風花巾賣 東君容易散紅塵〕

라고 한 것이 있다. 바로 촌 서당 냄새나는 시라고 하겠다.
문정공(文貞公) 김구(金丘)도 또한 떨어지는 배꽃을 읊은 시가 있다. 그는 이렇게 지었다.

팔랑팔랑 날아 춤추며 가다간 문득 돌아오고,
바람에 거꾸로 불려서는 가지에 도로 올라 다시 피려 하더니,
무단히 한 조각이 실그물에 걸려서,
나비인양 거미는 잡으러 오네.
〔飛舞翩翩去却回 倒吹還欲上枝開
無端一片黏絲網 時見蜘蛛捕蝶來〕

작가(作家)의 수법은 원래 각자가 서로 다른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강선생(康先生) 일용(日用)과 임재주(林祭酒) 유정(惟正)이

4 양후(陽侯) : 물 귀신의 이름.

함께 여러 대가의 시(詩)의 수법을 공부하였는데, 강선생의 시는 볼 수 없고 임재주는 간행한 시집이 있다. 홍곡(鴻鵠)을 닭과 비교하는 조롱은 면할 수 없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

근세(近世)에 최집균(崔集均)은 다른 글귀의 용어를 따다 모아서 글을 만드는 데 재주가 있었다. 비록 장편(長篇)이거나 운자(韻字)를 달기가 힘든 것일지라도 뜻을 달려 당장에 이루어 놓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

가령 “흰 철쭉은 붉은 철쭉과 섞여 있고, 누른 장미는 붉은 장미와 마주 섰다(白躑躅交紅躑躅 黃薔薇對紫薔薇)”라든가, “투계장(鬪鷄場) 안에서 닭 싸우는 것을 보고, 귀안정(歸雁亭) 앞에서 기러기 돌아가는 것을 보낸다(鬪鷄場裏看鷄鬪 歸雁亭前送雁歸)”라든가, “물빛이 푸르고 붉으니 무지개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구름 빛이 검고 희니 비가 처음 걷었구나(水色靑紅虹未斷 雲容黑白雨初收)”라든가, “약포(藥圃)의 달팽이 춤은 잎의 끝에서 젖었고 밤술에 매미 허물은 가지를 안고 말랐네(藥圃蝸涎拖葉濕 栗林蟬蛻抱枝乾)”라든가 하는 따위와 같은 것은 대(對)가 친절하여 설사 자신이 짓더라도 반드시 이보다 나을 수 없을 것이다.

서하(西河) 임춘(林椿)의 <피꼬리 소리를 듣는다>라고 제목한 시에,

시골 집에 오디(槥)는 익고 보리는 장차 마르는데,
푸른 나무에 처음으로 피꼬리 소리 들리는구나.
낙양(洛陽) 꽃 아래 노닐던 손(客)을 제 아는 듯이,
은근히 울고 또 울어 그치지 못하네.
〔田家槥熟麥將稠 綠樹初聞黃栗留
似識洛陽花下客 慙慙百轉未能休〕

라고 한 것이 있고, 문청공(文淸公) 최자(崔滋)의 <밤에 당직(當直)하다가 채진봉(採眞峰) 학(鶴) 우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제목한 시에,

구름은 걷히고 긴 하늘에 달은 마냥 밝구나,
소나무 보금자리에 깃들인 학(鶴), 맑음(淸)을 이기지 못하네.
산에 가득한 짐승과 새들, 학의 소리 알아듣는 이 없어,
홀로 성긴 날개를 펴덕이며 밤중에 우노매라.
〔雲掃長空月正明 松巢宿鶴不勝淸
滿山猿鳥知音少 獨刷疎翎半夜鳴〕

라고 한 것이 있다. 이 두 편의 시(詩)가 모두 불우(不遇)한 처지를 감상(感傷)하여 지은 것이다. 그러나 문청공의 시는 기절(氣節)이 강개(慷慨)하여 임서하(林西河)에 비길 것은 아니다.

정언(正言) 진화(陣灌)의 버들을 읊은 시에,

봉성(鳳城) 서쪽 독에 일만 가지 금빛 버들,
봄 근심 잡아묶어 어두운 그늘을 지었네.
맑은 바람 한 없이 불어 와서,
연기를 끌어오고 비도 섞어가면서 깊은 가을에 이르렀네.
〔鳳城四畔萬條金 勾引春愁作暝陰
無限光風吹不斷 惹烟和雨到秋深〕

라고 한 것이 있다. 정치(情致)가 흐르는 것같이 곱다. 그러나 당나라 이상은(李商隱)은 버들시(柳詩)에서 이렇게 읊었다.

일찍이 봄바람과 함께 춤자리를 휩쓸면서,
원림(苑林)에서 사랑을 불태우며 즐겨 놀던 그 하늘에,
어찌다 가을철 오는 것을 용납하여서,
사양(斜陽)도 이미 서러운데 매미 또 운단 말인가.
〔曾共春風拂舞筵 樂遊晴苑斷腸天
如何肯到清秋節 已帶斜陽更帶蟬〕

진정언의 시는 아마 이 시를 본받아 지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산곡(山谷)이 한 말이 있다. “남을 따라 계책을 지으면 마침내 남에게 뒤질 것이다.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어야 비로소 필진(逼真)한 경지에 들어가리라.〔隨人作計終後人 自成一家乃逼真〕” 진정 그러한 것이로구나.

옛사람들이 역사상(歷史上)의 일을 읊은 시가 많다. 만약 그 시가 알기 쉽고 싫어지기 쉬운 것이라면 그것은 그 역사상의 사실을 직설적(直說的)으로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새로운 뜻은 없다. 나는 항상 두목(杜牧)의 회고시(懷古詩)를 사랑한다. 그는 적벽(赤壁) 회고시에 이렇게 읊었다.

부러진 창 모래에 묻혀진 채 반은 삭지 않았기에,
시험 삼아 가져다가 갈고 씻어서 전조(前朝) 모습 살펴보네.
동남풍(東南風)이 주랑(周郎)의 편(便)에 힘 빌리지 않았더라면,
동작대(銅雀臺) 깊은 봄이 이교(二喬)⁵를 잠갠(鎖)으리라.
〔折戟沈沙半未鎖 試將磨洗認前朝
東風不借周郎便 銅雀春深鎖二喬〕

5 이교(二喬) : 대교(大喬)와 소교(小喬)니 자매(姊妹)로서 다 절세미인이었다. 대교는 손책(孫策)에게, 소교는 주유(周瑜)에게 시집갔다.

오강정(烏江亭)에서는 이렇게 읊었다.

용병가(用兵家)의 이기고 지는 일은 미리 기약 어려운 것,
부끄러움 감추고 참는 것, 이것이 사나이다.
강동(江東)의 젊은이들 재준(才俊)한 이 많으니,
권토중래(捲土重來)할지도 알 수 없을 것을.
〔勝敗兵家事未期 包羞忍耻是男兒
江東子弟多才俊 卷土重來未可知〕

운몽택(雲夢澤)의 회고시에서는 이렇게 읊었다.

해 그리고 용 그린 천자(天子)의 깃발 생각컨대 아득히 멀리 나부끼며,
한 포승(捕繩)으로 공이 높은 초왕을 묶었네.
설사 곧바로 범여(范蠡)처럼 표연히 오호(五湖)로 갔더라도,
시종일관 꺾분양처럼 충성되게 하기만 못하였으리.
〔日旗龍旆想悠揚 一索功高縛楚王
直使飄然五湖去 未如終始郭汾陽〕

도화부인묘(桃花夫人廟)⁶에서는 이렇게 읊었다.

세요궁(細腰宮) 안에 이슬 머금은 복사꽃 같은 그 얼굴
맥맥(脈脈)하게 말 없이 몇 봄을 지냈던고,
필경은, 식후(息候)가 망(亡)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 그대 탓 아니로다.

6 도화부인(桃花夫人) : 춘추(春秋) 시대 식후(息侯)의 부인, 식위(息媿)라고도 하고, 식부인(息夫人)이라고도 한다. 초문왕(楚文王)이 식(息)을 쳐서 멸망시키고 식부인으로 아내를 삼았다. 그리하여 도오(堵敖)와 성왕(成王)을 낳았으나 말을 하지 않으므로 왕이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가 한 여자로 서 두 남편을 섬겼으니 비록 죽지는 못하였을망정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고 한다.

금곡원(金谷園)⁷의 누(樓)에서 부질없이 스스로 떨어져 죽은 석송(石崇)의 아내
가엾구나.

〔細腰宮裏露桃新 脈脈無言度幾春
畢竟息亡緣底事 可憐金谷墮樓人〕

당언겸(唐彦謙)의 중산(仲山) 회고시에는 이렇게 읊었다.

천고(千古)의 외로운 무덤 침딩굴 덮였구나.
패중(沛中)의 향리 한(漢)나라 산천 속에
이제는 한고조(漢高祖)의 장릉(長陵)도 또한 한낱 쓸쓸한 구릉(丘陵)일 뿐이니,
오늘에서 본다면 한고조와 중씨(仲氏)의 낫고 못함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千古孤墳寄薜蘿 沛中鄉里漢山河
長陵亦是閑丘壠 此日誰知與仲多〕

장안도(張安道)의 가풍대(歌風臺)⁸ 시는 이러하다.

불우(不遇)하던 유랑(劉郎), 황제되어 고향에 돌아와서,
술잔치 베풀고 강개(慷慨)하게 대풍시(大風詩)⁹ 불렀다네.

- 7 금곡원(金谷園) : 진(晉)나라 석송(石崇)이 금곡(金谷)에 구축한 동산. 거기에 청량대(淸涼臺)가 있다. 석송에게 아름다운 첩이 있었으니 이름이 녹주(綠珠)였다. 손수(孫秀)가 녹주를 요구하니 석송이 허락하지 않았다. 손수가 조서(詔書)를 위조(僞造)하여 석송을 붙잡아가니 녹주가 누(樓)에서 떨어져 자살하였다.
- 8 가풍대(歌風臺)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천하를 얻고 고향에 돌아와 대풍시(大風詩)를 노래한 곳에 뒷사람들이 대(臺)를 쌓고 가풍대라고 하였다. 가풍대에는 돌을 세워 대풍시의 가사를 새겼다고 한다.
- 9 대풍시(大風詩) : 한 고조가 천하를 얻고 고향인 패(沛)에 이르러 술을 마련하고 부모(父老)와 자제들을 죄다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다. 술이 취하자 고조(高祖)가 축(筑)을 치며 스스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것을 대풍시, 또는 대풍가라고 한다. 즉 “큰 바람 일어나니 구름은 날아 솟네. 위엄이 천하를 덮었는데 내 이제 고향에 돌아왔네. 어떻게 용맹한 선비들을 얻어 천하를 지키게 할꼬.(大風起兮 雲飛揚 威加海內兮 歸故鄉 安得猛士兮 守四方)”

한신(韓信)과 팽월(彭越)은 죽여서 젓(醢)을 담그고, 소하(蕭何)는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

다시 많은 맹사(猛士)를 찾는다고 노래하였네.

〔落魄劉郎作帝歸 樽前慷慨大風詩

韓彭范醢蕭何繫 更欲多求猛士爲〕

유공부(劉貢父)의 새상(塞上)에서 읊은 시는 이러하다.

예부터 변경(邊境)에서 공(功) 세우고 그 일로 말미암아,

페행(騑倖)을 얻어 봉후(封侯)되기 바라는 자 많구나.

차라리 그들에게 제후의 황금인(黃金印) 바로 주어서,

싸움터에 흩어진 수많은 해골들의 생명을 아낄 것을.

〔自古邊功綠底事 多因騑倖欲封侯

不如直與黃金印 惜取沙傷萬髑髏〕

왕개보(王介甫)가 장량(張良)을 두고 지은 시는 이러하다.

왕개보가 장량을 두고

한(漢)나라 왕업(王業)의 존망(存亡)이 그의 동작(動作) 하나에 달려 있었다.

이런 때면 유후(留侯) 장량은 언제나 침착하였네.

고릉(固陵)에선 처음으로 한신(韓信), 팽월(彭越)의 봉후(封侯)할 땅을 의논하였고,

궁궐(宮闕)의 복도(複道)에서는 또 옹치(雍齒)¹⁰의 봉후를 헌책(獻策)하였네.

10 옹치(雍齒) : 한(漢)나라 때, 페(沛) 땅의 사람이니, 한 고조를 따라다니다가 배반했으며, 또다시 돌아와서 전공(戰功)을 세웠다. 그러나 고조는 그를 항상 불쾌하게 여겼다. 고조가 제위(帝位)에 오른 뒤에 봉후(封侯)를 하지 않으니 여러 장수들이 원망하는 기색이 있었다. 고조가 장량의 헌책에 좇아 제일 먼저 옹치(雍齒)를 십방후(什方侯)에 봉하니, 여러 장수들이 다 즐겨 말하기를, “옹치도 봉후하였으니 우리들은 근심할 것 없다(雍齒且侯 吾屬無患矣)”라고 하였다고 한다.

〔漢業存亡俯仰中 留侯於此每從客
固陵始議韓韓地 復道方圖雍齒封〕

한신(韓信)을 두고 지은 시는 이러하다.

빈천하여선 모욕을 참았으며 부귀하여선 교만하기도 하네.
공명(功名)을 이뤘으니 다시는 미천(微賤)하지 않는 몸.
장군이 북면하여 항복한 오랑캐를 스승으로 한단 말인가,
인간에는 이런 일 오래도록 없었다네.
〔貧賤侵陵富貴驕 功名無復在薊薊
將軍北面師降虜 此事人間久寂寥〕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소위 활롱어(活弄語)라는 것이다.

이은대(李銀臺) · 이문순(李文順)공이 역사상의 일을 읊은 시가 수십 편 있는데 요약해 말하면 호증(胡曾)과 백중(伯仲)한 것이다.

후주(後周)에서 쌍기(雙冀)를 사신으로 보내와서 빙문(聘問)하였다. 광종(光宗)이 표문(表文)을 보내어 그를 우리나라에 머물도록 청하고 은총(恩寵)으로 대우함이 우악(優渥)하였다.

중승(中丞) 최승로(崔承老)가 소(疏)를 올린 것이 있으니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우리나라가 비록 중화(中華)의 풍화(風化)를 본받고자 하나 아직 중화의 영전(令典)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비록 중화의 선비는 등용하고 있으나 아직 중화의 높은 선비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쌍기(雙冀)를 위하여 한 말일 것이다.

주저(周佇), 호종단(胡宗坦)은 다 민(閩)땅의 사람이다. 현종(顯宗) 때에 북조(北朝)와 왕복한 문서는 주저(周佇)의 찬진(撰進)한 것이 많았다.

종단(宗旦)이 인종(仁宗)에게 올린 글이 있는데 지식이 박습(博洽)하기는 주저(周佇)만 못하나 그 문체가 산뜻하고 선명하여서 저절로 기쁘다. 또 총명하고 민첩하여서 온갖 재예(才藝)에도 겸통(兼通)하였다.

그런 까닭에 어느 쪽이 두드러지게 낫다고 할 만한 자료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판정한 자는 없다.

김시중(金侍中) 인존(仁存)의 《청연각기(淸燕閣記)》가 송(宋)나라 서공(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실려 있는데, “부드럽고 온화하여 유덕(有德)한 자의 말이다”고 하였다.

김문열공(金文烈公)의 혜음원기(惠陰院記), 귀신사(歸信寺)·각화사(覺華寺) 등 여러 절의 비문(碑文), 최문숙공(崔文肅公)의 옥룡사비(玉龍寺碑)의 비문은 글의 걸치례를 꾸미지 않고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추밀(樞密) 김부철(金富軾)의 문수원기(文殊院記)와 장원(壯元) 김군유(金君儒)의 송광사비(松廣寺碑)의 비문은 또한 즐겨 읽을 만하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것들은 말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결점이다.

정당(政堂) 윤언이(尹彦頤)는 선학(禪學)에 역량(力量)이 있어서 그가 지은 운문(雲門)의 원응국사비(圓應國師碑)의 비문은 심오한 이치에 깊이 파 들어가고 있다. 사간(司諫) 정지상(鄭知常)은 노장(老莊)의 학(學)을 즐겨하여 그가 동산진정선생(東山眞正先生)을 위한 비문은 표연(飄然)히 세상 일에 구애되지 않고, 깨끗한 산수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요(遼)의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나라의 경계(境界)를 정하고자 하니, 참정(參政) 박인양(朴寅亮)이 진정(陳情)하는 표문(表文)을 지어서 말하기를, “넓은 하늘 아래가 그 어디나 왕(王)의 땅이 아닌 것이 없으며, 왕의 신하 아닌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몇 자 남짓한 작은 땅을 가지고 어찌 반드시 내 땅이니 내가 다스려야 하느니 하고 말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노(魯)나라 희공(僖公)은 계우(季友)에게 문양(汶陽)의 옛 밭을 주어

서 폐지되었던 고을을 어루만져 안정시켰고, 경사스런 날의 축하하는 춤자리에서 웅졸한 춤을 추면서 땅이 좁아서 긴 소매 휘두르면서 춤을 익힐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장사왕(長沙王)에게 한왕(漢王)은 봉읍(封邑)을 넓혀 주었습니다”고 하였다. 요제(遼帝)가 이 표문을 보고 그 논의를 중지하였다.

형공(荊公)이 일찍이 글 한 귀를 지었으니, “공(功)은 조참(曹參)이 소하(蕭何)의 규례(規例)를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갈 성규(成規) 있음을 감사하고, 은혜는 연(燕)나라의 소왕(昭王)이 곽외(郭隗)¹¹부터 등용(登用)한 것처럼, 먼저 등용된 것이 부끄럽다(功謝曹隨¹² 恩慚隗始)”라고 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묻기를, “곽외(郭隗)의 고사(故事)에는 은혜(恩惠)라는 글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였다. 대답하기를, “한퇴지(韓退之)의 시귀(詩句)에, ‘은혜를 갚으려 하니 곽외로부터 시작한 것이 부끄럽다(報恩慚隗始)’라고 하였다”고 하니 그 사람이 드디어 승복(承服)하였다.

박인량(朴寅亮)공이 말한 “몇 자 남짓한 땅을 가지고 어찌 반드시 내 땅이니 내가 다스려야 하느니라”고 말하여야 하겠습니까(尺地之餘 何必曰我疆我理)”라고 한 글귀도 어찌 또한 따로 따온 데가 있는 것이겠는가.

가령 “유분(劉蕡)이 급제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과거(科擧)에 합격하다니”라고 하는 글귀에는 그의 내부 대구(對句)로 “웅치(雍齒)도 또한 봉후(封侯)가 되었으니 우리들은 근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구절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니 위징(魏徵)은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글귀에는 그 대구(對句)로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기(盧杞)는 간사(姦邪)하다고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글에는 어떤 구절일지라도 대구(對句)를 찾으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대구(對句)를 맞추어 문장(文章)을 만드는 방법을 다만 문장을 분식(粉飾)하기

11 곽외(郭隗) :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연(燕)나라의 사람. 연소왕(燕昭王)이 어진 선비를 구하여 제(齊)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현사(賢士) 얻는 방법을 물으니 곽외가 말하기를, “왕께서 선비를 오게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이 곽외부터 등용(登用)하십시오. 곽외도 일을 보는데 하물며 곽외보다 착한 선비 이겠습니까” 하였다. 소왕이 드디어 궁실을 짓고 그를 스승으로 섬기니 과연 천하의 현사가 모여왔다고 한다.

12 조수(曹隨) : 소규조수(蕭規曹隨)의 준말이니, 한(漢)나라 때 소하(蕭何)가 마련해 놓은 법규를 그 뒤를 이어 정승이 된 조참(曹參)이 그대로 좇고 그치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위한 것에 그치고 실질(實質)이 없게 사용한다면 또한 장려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것이다.

임종비(林宗庇)가 학사(學士) 권적계(權迪啓)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기를,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니 북방(北方)의 학자(學者)들이 앞서는 사람이 없고,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니 동도(東都)의 주인이 감탄하였다”고 하였다.

최문청공(崔文淸公)이 말하기를, “송(宋)나라는 서쪽에 있는데 북방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고 하였다.

원나라의 세조(世祖)가 아리발가(阿里孛哥)를 평정(平定)하니 문정공(文貞公) 김구(金丘)가 축하하는 표문(表文)에서 말하기를, “버럭 성내시어 군사를 정제(整齊)하고 옛날 주무왕(周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벌할 때처럼, 황금도끼와 흰 기를 높이 들었으며, 싸워 이겨 위세를 보인 자를 사랑하고 전공(戰功) 없는 자도 용납하여, 옛날 진(晉)나라가, 흰옷에 붉은 중의(中衣) 차림을 한 곡옥(曲沃) 고을의 제후를 토멸(討滅)한 것처럼, 아리발가(阿里孛哥)를 평정하였습니다”고 하니 한림학사(翰林學士) 왕백일(王百一)이 그 문장의 묘(妙)함을 여러 번 칭찬하였다고 한다.

세조(世祖)가 이미 천하를 통일한 뒤에 유아(儒雅)한 인사(人士)들을 등용하니 헌장(憲章)과 문화(文化)가 다 중화의 옛 모습을 회복하였다. 문정공(文貞公)이 표문(表文)을 짓는데 한 귀절을 짓기를, “천하를 어찌 말 위에서 다스리겠는가, 다시 문명(文明)의 교화를 천양(闡揚)하도다”라고 해놓고는 세 번이나 그것에 알맞은 대구(對句)를 고쳐 지어 보았으나 끝까지 마음에 만족하지 않았다.

내가 추후하여 대구(對句)를 맞추었으니, “강남(江南) 땅이 주머니 속의 물건과 같으니 바야흐로 통일할 시기가 도달하였구나. 천하를 어찌 말 위에서 다스릴 수 있으랴. 다시 문화의 밝은 정화(政化)를 천양한다”고 하였다.

“강남(江南)을 취득(取得)하기를 주머니 속의 물건처럼 한다”고 한 것은 《통감(通鑑)》에 나오는 이곡(李穀)의 말이다.

당(唐)나라의 양사복(楊嗣復)이 문생(門生)들을 거느리고 자기 집에서 선복야(先僕

射)를 위하여 연회를 열었다.

좌객(座客) 양여사(楊汝士)의 시(詩)에 말하기를, “문장(文章)의 옛 성가(聲價)는 천자의 곁에 머물었고, 도리(桃李)¹³의 새 그들은 이정(鯉庭)¹⁴에 있구나(文章舊價留鸞掖 桃李新陰在鯉庭)”라고 하였다.

오대(五代) 때에 마예손(馬裔孫)이 문생(門生)을 인솔하고 좌주(座主)¹⁵ 배공(裴公) 댁에 가서 뵈오니, 배공(裴公)이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세 번 예위(禮闈)¹⁶를 주관(主管)하니 나이 80이나 되었구나, 문생(門生)의 문하(門下)에서 문생(門生)을 보누나(三主禮闈年八十 門生門下見門生)”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시(科試)를 맡은 자를 학사(學士)라고 하고, 그의 문생(門生)들은 그를 은문(恩門)이라고 일컬어오면서 문생과 좌주(座主) 사이의 예절(禮節)은 옛날보다도 더욱 엄중하다. 학사(學士)에게 부모나 그의 좌주(座主)가 있으면 합격자의 발표가 있는 뒤에는 학사는 반드시 공복(公服)차림으로 부모나 좌주에게 가 뵈옵는데 문생(門生)들이 뒤따라 수행한다. 학사(學士)가 그의 부모나 좌주의 앞에 나아가 절하면 문생이 그 뒤에서 절한다. 여러 손님들은 비록 존귀(尊貴)하고 어른 일지라도 다 마루에서 내려와 뜰에 서서 예(禮)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양(揖讓)하고 올라가서 차례로 절하고 축하한다. 그리고 나서 학사가 자기 집에 요청(邀請)하여 잔을 올리고 장수를 칭하한다. 아마 양사복(楊嗣復)과 배공(裴公)의 고사(故事)를 본받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예문(禮文)이 그보다 지나치다.

연우(延祐) 경신년에 내가 외람하게 과거의 고시관(考試官)이 되었다. 그때 선군(先君)의 연세는 77세이고 대부인(大夫人)은 70세로서 모두 건강하셨다. 지금의 정승 권국재(權菊齋)공은 나의 등과(登科) 때의 지공거(知貢舉)이고, 동지공거(同知貢舉)는 열현(悅軒) 조간성(趙簡成)공이었으며, 나의 성균시(成均試) 때의 시관(試官)은 상현(常軒) 정선(鄭僖)공인데 세 분 좌주(座主)가 다 건강하셨다.

이때에 돌아다니며 차례로 찾아뵈옵고 초청(招請)하였다. 나는 또 국재(菊齋)의 사

13 도리(桃李) : 추천 또는 양성한 현사(賢士)를 뜻함.

14 이정(鯉庭) :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 뜰.

15 좌주(座主)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응시(應試)하였을 때의 시험관을 말함.

16 예위(禮闈) : 공거(貢舉), 즉 문선(文選) 등을 맡은 관아.

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국대부인(卞國大夫人)의 견여(肩輿)가 같이 내림(來臨)하니 세상 사람들이 “과거제도가 생긴 이래로 일찍이 없던 성사(盛事)”라고 말하였다.

저헌(樛軒) 윤혁(尹奕)의 축하시(祝賀詩)에,

한 잔치에 세 좌주(座主)가 함께 즐기고,
넉 잔의 술잔을 올려 양가(兩家)의 어른께 가지런히 수(壽)를 송축(頌祝)하네.
앞에서 벽제(辟除)소리, 뒤에서 벽제소리, 초선관(貂蟬冠) 쓴 고관(高官)을 옹위
해 오고,
북쪽에서 맞이하고, 남쪽에서 맞이하니 경호하는 의장이 분주하구나.
〔一宴共歡三座主 四觴齊壽兩家尊
讓前讓後蟬冠擁 迎北迎南鳳蓋奔〕

그 뒤 6년에 국재(菊齋)의 맏아들인 정승 길창군(吉昌君)이 또한 지공거(知貢舉)가 되었다. 양친(兩親)을 함께 모신 경축의 자리에는 형제와 생질과 사위가 다 고관(高官)·귀척(貴戚)으로서 앞뒤에 부옹(扶擁)하고 오니 광채가 길에 가득하였다.
저헌(樛軒) 윤공(尹公)이 또 축하시(祝賀詩)를 지어 말하기를,

성대한 행사는 온 거리에 그림 같은 아름다운 광경을 꾸몄으며,
아름다운 이야기는 일만 집의 등잔(燈)을 돋우어 다하게 하였네.
사람 속의 생불(生佛)이라고 칭도(稱道)하지 않는 이 없으니,
늙은 정승을 말함인가, 젊은 정승을 말함인가.
〔盛事粧成九街畫 美談挑盡萬家燈
無人不道人中佛 老政丞耶小政丞〕

라고 하였다. 그때의 일을 거의 더할 수 없이 잘 표현하였다고 하겠다.
선군(先君)은 삼형제였다. 조모 김씨는 성격이 엄(嚴)하였으며 친히 서사(書史)를

가르치셨다. 백부와 계부(季父)는 불행하게도 일찍 돌아가셨고, 선군(先君)만이 홀로 연세가 팔순(旬)에 이르렀으며, 자질(子姪)들을 가르치고 길러서 세업(世業)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백부(伯父)의 아들 내서사인(內書舍人)의 이름은 전(漣)이니 진사시험과 대과(大科)에 모두 장원(壯元)하였다. 그 아우 덕원목사(德原牧使)의 이름은 규(穆)다. 계부(季父)의 아들인 지금의 첨의평리(僉議評理)는 이름을 천(堧)이라고 한다. 나의 가형(家兄) 이암공(怡菴公)과 나도 또한 다 성균시(成均試)에서 장원급제하였다. 그런 까닭에 민묵헌(閔默軒)이 선군(先君)을 축하하는 시에,

꽃봉오리는 세 집에서 장원급제가 다섯이로구나.
사람들이 다 적선(謫仙)의 재주라고 하네.
공의 선(善)을 쌓음이 진정 짝이 없음을 알겠도다.
홀로 해마다 경축(慶祝)하는 연석(宴席)이 열리는 것을 보네.
〔華萼三家五榜魁 人言皆是謫仙才
知公積善真無敵 獨見年年慶席開〕

라고 하였다.

내서(內書)에게는 아들이 없고, 덕원목사의 아들은 과거에 아직 급제하지 못하였다. 오직 평리(評理)의 아들인 달중(達中)·배중(培中)과 나의 둘째아들 달존(達尊)이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달존은 학문을 좋아하여서 꽤 시배(時輩)들의 추중(推重)하는 바 되었더니 30세가 못되어서 죽었다. 매번 후사(後嗣)의 이어가기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부록

대도(大都)에 있으면서 원(元)나라의 중서도당(中書都堂)에게 보낸 편지

지치(至治) 3년 정월에 고려국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 아무개 등 여러 관원(官員)은 삼가 깨끗이 재계하고 백 번 절하면서 중서재상집사합하(中書宰相執事閣下)께 글을 올립니다.

일이 장차 맹아(萌芽)가 생기려고 하는 것을 보고 미리 촌탁(肘度)하여 말하면 미친(狂)것에 가깝게 되고, 심정(心情)에 답답하게 맺힌 것이 있으면서 말하기를 어려워하면 숨기는 것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차라리 미친 사람의 말이라는 평(評)을 받을지언정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합하께서 그 경솔함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가엾게 살피주신다면 매우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중용(中庸)》에 말하기를, “무릇 천하 국가를 통어하는 데에는 아홉 가지 근본 원칙이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이다. 끊어진 세계(世系)를 이어 주고 폐(廢)한 나라를 들쳐 일으키며, 어지러운 것을 다스려 주고, 위태하게 된 것을 붙들어 유지시키며, 보내주는 것은 후하게 하고, 가져오는 것은 박하게 함은 제후(諸侯)를 회유(懷柔)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해설(解說)하는 자가 말하기를, “무후(無後)한 자의 후사(後嗣)를 이어주고, 이미 멸망한 자를 다시 봉(封)하여 주어 상하(上下)가 서로 안정하고, 크고 작은 나라가 서로 구제하게 한다면 천하가 다 그 충성과 힘을 다하여 왕실(王室)을 올타리처럼 호위(護衛)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제(齊)나라 환공(桓公)은 형(邢)에 옮기니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고 위(衛)를 봉하니 도망하는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홉 번 제후를 모으고 한 번 천하를 바로잡아서 오패(五霸)의 우두머리가 되게 한 까닭입니다. 패자(霸者)도 오히려 이것을 힘쓸 줄 알았으니, 하물며 천하 중앙의 큰 나라에 군림(君臨)하여, 사해(四海)를 집으로 삼는 황제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나라는 시조(始祖) 왕씨(王氏)가 나라를 이룩한 이래로 대략

1 성(誠)을 가리킨 것.

4백여 년이 되었으며, 중국에 신복(臣服)하여 해마다 직공(職貢)을 닦아온 것도 또한 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옛날 무인년에 요씨(遼氏)의 끼친 열자(孽子) 금산왕자(金山王子)라고 부르는 자가 있어서 중원(中原)의 백성들을 노략질해 몰아가지고 동쪽으로 도서(島嶼)에 들어와 함부로 날뛰므로 태조 성무황제(聖武皇帝)가 합진(哈真) 찰라(札剌) 두 원수(元帥)를 보내어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마침 큰 눈이 내려 식량을 운반할 길이 막혀 버렸으므로, 우리 충헌왕(忠憲王)이 조충(趙冲)·김취려(金就礪)에게 명령하여 양곡(糧穀)과 물자(物資)를 공급하고 기장(器仗)을 도와 주어 미친 적병(賊兵)을 사로잡고, 무찔렀는데 빠르기가 대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에 두 원수는 조충(趙冲) 등과 형제의 의를 맺고, 영원히 잊지 않기를 맹세하였습니다.

또 기미년에 세조황제가 강남(江南)에 회군(回軍)하였을 때에는 충경왕(忠敬王)이 천명이 세조황제에게 돌아갔으며 인심이 복종하는 것을 알고 6천여 리의 먼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변량(汧梁)의 땅에 가서 영접하고 배알(拜謁)하였습니다.(본국으로부터 조어산(釣魚山)까지 가서 다시 변량에 갔으니 대개 6천여 리가 된다.) 충렬왕(忠烈王)도 또한 몸소 조근(朝覲)의 예(禮)를 닦아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공주(公主)의 강가(降嫁)함을 얻어 대대로 부마(駙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유의 풍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종사(宗社)를 보전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세조황제의 조서(詔書)의 취지에 힘입은 것입니다. 태조가 천하 각처에 행성(行省)을 설치할 때에 유독 우리나라에는 행성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뒤에 일본을 동정(東征)하는 일로 인하여 비록 행성이라는 이름만은 있었으나 구애되지 않고, 상임(常任)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덕(大德) 연간에 활리길사(關里吉思)로 이목관(耳目官)을 삼았을 때에 그의 진언(陳言)으로 인하여 도성(都省)이 상량(商量)하여 상주(上奏)하기를, “본국은 일찍이 세조황제의 성지(聖旨)를 입어 고유의 풍속을 고치지 말고, 다만 관직의 명칭만을 바꾸게 하였으니 지금 전체를 고쳐 바꾸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합니다”고 하니, 성종황제(成宗皇帝)가 그 아뢰는 말을 옳게 여기고 즉시 활리길사를 돌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인종황제(仁宗皇帝)는 임자년(壬子年) 4월에 성지(聖旨)를 내려, “고려 땅에 성(省)

을 세우는 일을 채택(採擇)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여러 황제의 고려를 생각하고 아끼는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니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행성(行省)을 설치하여 중국 내지의 여러 성과 동일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과연 정말이라면, 그 일이 세조 황제의 조서의 취지에 어찌하며, 열대(列代) 여러 황제의 생각하고 아끼던 뜻과는 어찌합니까. 엇드려 연전(年前) 11월에 새로 내린 조서(詔書)의 조항을 읽어보니, “사악(邪惡)한 것과 바른 것으로 하여금 길을 달리하게 하여 천하가 편안하게 다스려져서 중통(中統)·지원(至元)의 치리(治理)를 회복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이러한 덕음(德音)을 펴심은 실로 온 천하 사해의 복(福)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대에 걸쳐 중국에 이바지한 공로가 저와 같고, 열대(列代)의 황제가 생각하고 아끼는 은혜가 이와 같은데, 지금 4백여 년의 왕업(王業)을 하루아침에 폐절(廢絕)시킨다면 그 밖에 한 치의 공로도 중국 조정에 이바지함이 없는 다른 나라들은 조정에서 장차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또 그 중통(中統)·지원(至元)의 치리를 본받으라고 한 조서의 취지는 어떻게 받들려고 합니까. 다시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지방(地方)이 천리(千里)를 넘지 못합니다. 산과 내와 숲과 소택지(沼澤地) 등 소용없는 땅이 10분의 7입니다. 그 땅에 조세를 받아 보아도 운수(運輸)의 비용에도 모자랄 것이며, 그 백성들에게 공부(貢賦)를 징수하더라도 그 일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리의 봉록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중국 국가의 용도(用度)에 비교하면 태산(泰山)과 작은 티끌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의 만분의 일도 이바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더욱 땅은 멀리 떨어져 있고, 백성들은 우매하며, 언어(言語)가 중국과 같지 않아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중국과는 아주 판이합니다. 아마 이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의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니,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명한다고 하여도 안정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왜국(倭國)의 백성들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터이니, 왜국이 만일 이 소문을 들으면 우리의 일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계로 삼아 제 스스로의 좋다고 생각하는 계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엇드려 바랍니다. 집사합하(執事閣下)께서는 여러 황제가 우리나라의 공로를 생

각한 도리를 본받으시고 《중용(中庸)》의 세상을 훈계한 말을 명심하여,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맡기고 그 나라의 인민(人民)은 그 나라의 인민끼리 살게 하여, 자기들의 정치는 자기들이 닦게 하고, 직책(職責)을 부여하여 번리(藩籬)를 삼아서 우리 황제의 끝없는 아름다움을 받들게 한다면 어찌 다만 삼한(三韓)의 백성들이 집집마다 서로 경하(慶賀)하여 천자의 성덕(聖德)을 노래할 뿐이겠습니까. 그 종묘사직의 신령들도 다 장차 저승에서 감읍(感泣)할 것입니다. 엎드려 격절(激切)하고, 간절·긴박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존엄(尊嚴)을 더럽히게 된 것을 높이 살피실 줄 생각하고 땅에 엎드려 죄를 기다립니다. 아무개 등은 백배(百拜)하고 올립니다.

원(元)나라의 승상(丞相) 백주(伯住)에게 보낸 편지

목욕재계하고 백 번 절하면서 글을 승상집사(丞相執事)께 올립니다.

하우씨(夏禹氏)는 천하에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자기가 빠진 것처럼 생각하였고, 후직(后稷)은 천하에 굶주린 자가 있으면 자기가 굶주린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천하의 물에 빠진 자와 굶주린 자는 하우씨가 손으로 떠밀어 넣는 것이 아니고, 후직이 그들의 먹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닌데, 어째서 그들의 마음은 단연(斷然)코 자기의 책임이라고 하여 사양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에는 큰 책임을 대인(大人)에게 내린 것은 본래 이 백성을 구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적어도 곤궁하고 호소할 곳 없는 자를 보고도 못본 채하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늘이 그에게 책임을 내린 본의(本義)이겠습니까. 이것이 손발에 구덩살이 생기는 괴로움을 잊고 몸소 부지런히 농사를 하였으며 구주(九州)를 안정시키고 만민(萬民)이 쌀밥을 먹게 하였으므로, 좌우(左右)가 순(舜)을 높여 임금으로 추대하여 은택이 만세에 미치게 한 까닭입니다. 가령 한 사람이 불행하게 구학(溝壑)에 쓰러지거나 물에 빠지는 자가 있는 것을 우(禹)나 직(稷)이 본다면 장차 잠깐 목전의 살리는 일을 도모하는 데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나는 그가 반드시 다시는 굶주리거나 물에 빠지는 근심이 없게 할 근본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압니다.

공손히 생각하니, 승상집사께서는 착하신 천자(天子)를 밝게 보필하여 말소리를 높이거나 얼굴빛을 움직이는 일 없이 천하를 태산처럼 안정하게 다스리시니 머리가 흰 노인들은 다시 중통(中統)·지원(至元)의 때와 같은 잘 다스려진 세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때에 사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한 사람의 곤궁(困窮)한 정세(情勢)가 굶주림보다도, 물에 빠진 것보다도, 더 심한 자가 있다면 집사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전년에 우리 노심왕(老瀋王)이 천자(天子)의 진노(震怒)하심을 만나 몸둘 곳이 없을 때에 집사께서 슬퍼하고 가엾게 여기시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의 육신을 뇌정(雷霆) 같은 천자의 진노(震怒) 아래에서 살려내어 가벼운 법에 좇아 먼 곳에 유배(流配)하는 데 그치게 하였으니, 재생(再生)의 은혜는 부모보다도 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 멀고 궁벽(窮僻)하여 언어(言語)가 서로 같지 아니하고, 바람과 기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일어나는 도적의 근심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절박하여 육체는 파리하게 수척하고 머리털과 수염은 죄다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 신고(辛苦)하는 상태는 말하려면 눈물이 납니다. 집사께서는 이 일을 차마 그대로 보시렵니까. 그의 친등(親等)을 말하면 세황(世皇)의 친생질이고, 그의 공을 말한다면 선제(先帝)의 공신입니다. 또 그의 조고는 태조 성무황제(太祖聖武皇帝)의 초창(草創)때부터 의(義)로움을 흠모(欽慕)하여 먼저 와서 신복(臣復)하였으며, 대대로 근왕(勤王)의 실적(實績)이 현저하니, 그 공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미혹(迷惑)에 빠져 깨닫지 못하여서 죄가 더할 수 없는 것에 이르렀으나 그의 본심(本心)을 살펴본다면 진실로 타의(他意)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유배(流配)된 이래로 이미 4년이 되었으니, 마음을 바로잡고 허물을 고친 것 또한 많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랍니다. 집사께서는 이미 일찍이 처음을 힘써 구제하셨으니, 뒤로 끝까지 은혜를 베풀 것을 잊지 마시고, 황제께 의견을 자세히 진술하여 천자의 은덕이 베풀어지도록 유도(誘導)하셔서 우리 노심왕(老瀋王)으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와 여년(餘年)을 마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감격이야 어찌 굶주려 구학(溝壑)에 쓰러지는 자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으며, 물 속에 빠졌던 자가 다시 평탄한 길을 밟게 된 것의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만약, “때가 아직 적당하지 않으니 우선 기다려서 천천히 하자”고 하고 시일을 천연하는 사이에 현명하고 또 유력(有力)한 자가 이 일을 먼저 하게 된다면 천하의 선비들은 장차 집사의 일보는 것이 홀로 더디다고 말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인민들은 장차 집사의 덕(德)을 베푸는 것이 끝까지 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니 적이 집사를 위하여 애석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문하시랑 평장사 판이부사 증시위열공 김공행군기

(門下侍郎 平章事 判吏部事 贈諡威烈公 金公行軍記)

공의 휘는 취려(就礪)인데, 뒤에 취려(就呂)로 고쳤다. 계림(鷄林) 연양군(彦陽郡) 사람이다. 젊어서 아버지의 공적으로 인한 음직(蔭職)으로 정위(正尉)에 기용(起用)되었고, 선발되어 동궁위(東宮衛)에 보직(補職)되었다가 중랑장 영우림(中郎將 領羽林)에 천관(遷官)되었으며, 두어 해가 못되어서 뽑히어 장군이 되어 동북계(東北界)에 유진(留鎭)하니 갈맥(羯貊)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그 공(功)으로 천우위대장군(千牛衛大將軍)에 임명되었다. 강종(康宗) 2년인 계유년에 국경 지방을 순무(巡撫)하니, 변방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랑하였다.

고종(高宗) 3년인 병자년 8월에 거란(契丹)이 국경을 침범해 들어왔다. 서북면지병마사(西北面知兵馬使) 독고정(獨孤靖)의 보고가 이달 12일에 도착하였다. 임금 이 명을 내려 상장군 노원순(盧元純)으로 중군(中軍)을 삼고, 오응부(吳應夫)로 우군(右軍)을 삼았으며, 공(公)으로 섭상장군(攝上將軍)을 명하여 후군을 삼았다.

13일에 순천관(順天館)에서 대열병식(大閱兵式)을 거행하고, 22일에 우군(右軍)은 서보통(西普通)에 주군(駐軍)하고, 중군은 누교원(樓橋院)에, 후군은 과전(菰田)에 주군시켜 이를 동안 머무른 뒤에 출발하였다.

애초에 원(元)나라의 태조 성무황제(聖武皇帝)가 군사를 동원하여 금(金)나라의 연도(燕都)를 공격하니, 금나라의 선종(宣宗)이 변경(汴京)으로 옮기었다. 성무황제는 북으로 돌아가고 군사를 유주(留駐)시켜 연(燕)을 지키게 하였더니, 연(燕)의 사람들이 그들을 술대접하여 취하게 만든 뒤에 섬멸하였다. 거란(契丹)의 끼친 종족(種族)인 금산왕자(金山王子)·금시왕자(金始王子)라는 자가 있어서 그의 무리 아아걸로(鵝兒乞奴)로 장수를 삼고, 하삭(河朔)의 백성들을 위협하여 스스로 대요수국왕(大遼國王)이라고 일컬으니, 성무황제가 대군(大軍)을 출동시켜 토벌하였다. 두 왕자가 자리를 걷는 것처럼 군대를 몰고 동쪽으로 와서 우리나라에게 땅과 식량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니, 두 왕자가 우리나라를 엿볼 생각이 있고, 또 감정(感情)을 품었기 때문에 아아걸노(鵝兒乞奴)로 하여금 먼저

군사 수만 명을 이끌고 강을 건너게 하니 그들의 처자(妻子)들이 다 따라왔다. 진용(鎭戎)·영삭(寧朔)으로부터 아사천(阿史川)으로 달려왔다. 우리의 삼군(三軍)이 조양진(朝陽鎭)에 이르러 중군(中軍)은 성중(城中)에 주군(駐軍)하고, 우군(右軍)과 후군(後軍)은 성밖에 주군하였다. 조양(朝陽)사람이 달려와 적병이 이미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렸다. 우리의 삼군은 각기 정예(精銳)부대를 선발(選拔)하여 방어(防禦)하게 하였다. 군후원(軍候員) 오응유(吳應儒)와 신기장(神騎將) 정순호(丁純祐)가 홀로 적의 머리 80여 급(級)을 베고, 사로잡아 온 자가 20여 인이며, 우마(牛馬) 수백 필과 부인(符印)·기장(器仗) 등을 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오응유는 또 보병 3천 5백 명을 거느리고 적병과 귀주 직동촌(龜州直洞村)에서 마주쳐서 적의 머리 2백 급을 베고, 35인을 사로잡았으며, 우마(牛馬)·전구(戰具)·은패(銀牌)·동인(銅印) 등을 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장군 이양승(李陽升)도 또한 적을 장흥역(長興驛)에서 깨뜨렸다. 모두가 공의 휘하(麾下)였다.

삼군(三軍)이 신기장(神騎將)을 보내어 적을 추적(追跡)하더니, 적과 만나 신리(新里)에서 싸워 적의 수급(首級) 1백 90을 베었다. 연주(延州)로 진주(進駐)하여 광유(光裕)·연수(延壽)·주씨(周氏)·광세(光世)·군제(軍悌)·조웅(趙雄) 등 6명의 장수로서 사자암(師子巖)을 지키게 하고, 영린(永麟)·적부(廸夫)·문비(文備) 등 3명의 장수로는 양주(楊洲)를 지키게 하였더니, 9월 25일 9명의 장수가 적병의 머리 7백 급을 베고, 말·노새·소·패인(牌印)·병장기 등을 노획한 것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적이 다시는 군사를 나누지 않고 한데 모여서 개평역(開平驛)에 주둔(駐屯)하니, 삼군이 다 도착하였으나 다 감히 진격하지 못하였다. 우군은 서산(西山) 기슭에 버티고 있고, 중군은 들에서 적의 공격을 받으므로 조금 후퇴하여 독산(獨山)에 진을 쳤다. 공(公)은 칼을 빼어 들고 말을 채찍질하여 장군 기존정(奇存靖)과 함께 적의 포위 속을 바로 충격(衝擊)하여 들며나며 힘껏 치니 적이 무너져 달아났다. 추격하여 개평역(開平驛)을 지나가니, 적이 역의 북쪽에 북병을 숨겨 두었다가 급히 중군(中軍)을 공격하였다. 공이 군사를 되돌려 적을 치니 적병이 또 무너져 달아났다.

노공(盧公)이 밤에 공에게 말하기를, “적의 병력은 많고 우리는 적으며 우군(右軍)

도 또 도착하지 않았으며, 처음에 3일분의 양식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물러가 연주성(延州城)에 웅거하면서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것만 같지 못하겠습니다”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우리 군대가 여러 번 승첩(勝捷)하였기 때문에 사기(士氣)가 오히려 날카롭습니다. 청컨대 그러한 날카로운 전의(戰意)를 이용하여 한 번 싸운 뒤에 의논하게 합시다”고 하였다.

적이 목장(墨匠) 들에 진을 펴니, 군의 기세가 매우 왕성하였다. 노공(盧公)이 말을 달려가 공(公)을 부르고, 한편으로 검정 깃발을 올려서 신호하니, 사졸(士卒)들이 적의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고 다투어 달려가서 한 사람이 적병 백 명을 당해내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공이 문비(文備)와 함께 적진(敵陣)을 가로 끊으며 쳐들어가니, 가는 곳마다 바람 앞의 풀처럼 적군이 쓰러졌다. 세 번 싸워 세 번 이겼다. 이 싸움에 공의 장자(長子)가 전사(戰死)하였다. 달아나는 적을 뒤쫓아 향산(香山)의 남강(南江)에 이르니, 물에 빠져 죽은 적병이 천으로 세게 되었다.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모여 통곡하니, 곡성이 1만 마리의 소가 울부짖는 것 같았다. 한 사람이 무기를 버리고 관인(官人)이라고 자칭하면서 바로 앞에 와서 청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귀국의 변경(邊境)을 요란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자와 어린 자식들이야 무엇을 알겠습니까? 청컨대 다 죽이지는 마십시오. 또 우리를 너무 바짝 뒤쫓아 와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짜를 굳게 약속하고, 반드시 스스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그에게 타이르며 말하기를, “너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냐?”고 하고 술을 주니, 시원스럽게 마시고 갔다. 조금 뒤에 아아걸노(鵝兒乞奴)가 부문(符文)을 보내어 진정(陳情)하여 빌기를, 아까 그 사람이 말한 바와 같게 하였다. 우리의 삼군에서 각각 2천 명씩 보내어 그들의 뒤를 밟게 하였더니, 적이 버리고 간 자재와 식량과 기장(器仗)이 길에 어지럽게 흩어지고, 소와 말은 혹은 그 허리를 찍어 놓았으며, 혹은 그 뒤를 칼로 찔러서 아마 이 편에서 노획하여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듯한 것을 발견하였다. 파견한 6천 명이 적과 청새진(淸塞鎭)에서 싸워서 적을 사로잡고 죽인 것이 매우 많았다. 평로진(平虜鎭) 도령(都領) 녹진(祿進)도 또한 적 70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적이 드디어 청새진(淸塞鎭)을 넘어서 창주(昌州)로 달아났다.

분도장군 김공석(金公碩)이 보고하기를, “거란군(契丹軍)의 뒤에 도착한 부대가 전월(前月)부터 대거(大舉)하여 국경을 침입하고 있습니다”고 하였다. 즉 금산(金山)·금시(金始)의 군사들인 것이다. 우리의 삼군(三軍)은 연주(延州)에 주둔해 있다가, 다만 내상자위(內廂自衛)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죄다 출정(出征)하였다. 후군(後軍)이 홀로 양천(楊川)에서 적과 조우(遭遇)하여 수십백급(數十百級)의 적병의 머리를 베고 사로잡곤 하였다. 양군이 먼저 박주(博州)에 돌아갔으므로 공이 치중(輜重)을 호위하여 천천히 가다가 사현포(沙現蒲)에 이르니, 적병이 갑자기 나와서 저격(狙擊)하였다. 공이 양군(兩軍)에게 급한 것을 알렸으나, 양군은 편의(便宜)한 진지를 지키느라고 나오지 않았다. 공이 드디어 힘껏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치중을 수호하여 가지고 가니, 노공(盧公)이 서문 밖에 나와 맞으며 칭하(稱賀)하여 말하기를, “갑자기 강력한 적을 만나서 능히 그 칼날을 꺾어버리고, 삼군의 짐을 짊어진 군사들로 하여금 터럭만큼의 손실도 없게 한 것은 공의 힘입니다”고 하고 말 위에서 술잔을 들어 축하하였다.

양군(兩軍)의 장수와 사졸들과 여러 성(城)의 부로(父老)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이번에 강력한 적군(賊軍)과 맞서서 스스로 자기의 땅에서 싸우게 되었으니 진정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평(開平)·묵장(墨匠)·향산(香山)·원림(元林)의 전투에서 후군(後軍)이 번번이 선봉이 되어서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병을 격퇴(擊退)하여 우리 노약(老弱)들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게 하였는데, 돌아보건대 아무런 보답할 것이 없어서 다만 장군의 장수(長壽)를 축원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은 군사들을 통솔하는 것이 엄격하여서 사졸들이 털끝만큼도 군기를 위범(違犯)하지 못하였으나 술이 있으면 곧 잔 한 개를 사용하여 최하급(最下級)의 군졸들과도 또한 함께 균등하게 나누어 마셨다. 그런 까닭에 군졸들의 죽기를 맹세하는 역전(力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싸워서 전공(戰功)을 세웠을 때에는 반드시 여러 장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연명(聯名)으로 보고하고 일찍이 자기의 유능(有能)한 것을 자랑한 일이 없었다.

10월 23일에는 삼군을 밤에 보내어 갑자기 적을 흥교역(興郊驛)에서 습격하게 하

고 이튿날 밤에는 홍법사(洪法寺)에서 싸웠으며, 또 그 다음날에는 주(州)의 성문(城門) 밖에서 싸워 다 이겼다. 아군(我軍)이 성에 들어가 군사들은 쉬게 하였더니, 적이 밤에 청천강(淸川江)을 건너서 서경(西京)에 이르렀는데, 날씨가 추워서 얼음이 얼었으므로 얼음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서 서해도(西海道)로 침입하였다. 국가에서는 다시 참지정사(參知政事) 정숙첨(鄭叔瞻)으로 원수(元帥)를 삼고,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조충(趙冲)으로 부원수를 삼아서 전날의 삼군(三軍)과 함께 오군을 만들었다. 또 승선(承宣) 김중귀(金仲龜)를 보내서 남도(南道)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모이게 하였다. 정원수가 머뭇거리며 군의 기율(紀律)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추밀원사 정방보(鄭方甫)로 대신하게 하였다. 정축년 2월에 공을 금오위상장군(金吾衛上將軍)을 삼았다. 3월에 오군(五軍)이 안주(安州)의 대소탄(大棗灘)에 진군(進軍)하여 적과 싸웠으나 불리(不利)하였다. 적이 기세(氣勢)를 올려 달려와서 돌격하므로 공이 문비(文備)·인겸(仁謙)과 함께 반격(反擊)하는데, 인겸은 유시(流矢)에 맞아 전사하였다. 공이 용력을 다하여 칼을 휘두르며 혼자서 거전(拒戰)하다가 적의 창과 화살이 교차(交叉)하여 공의 몸을 관통하였으므로 상이(傷痍) 때문에 서울로 후송(後送)되었으나, 충분(忠憤)의 기개(氣概)가 오히려 말과 얼굴에 나타나니, 듣는 사람들이 장(壯)하게 여겼다.

5월에 상장군 최원세(崔元世)로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공(公)으로 전군(前軍)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대장군 임보(任甫)로 새로 정한 오령(五嶺)을 거느리게 하고, 출동의 명령을 내려 충주(忠州)로 나가게 하였다. 공은 상이(傷痍)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나, 병을 무릅쓰고 명령을 받았다. 7월에 황려현(黃驪縣) 법천사(法泉寺)의 남쪽 강가에 이르러 오군이 배타기에 앞을 다투었다. 공(公)은 물러서서 모든 군사들이 다 건너기를 기다렸다. 그런 뒤에 배에 올랐는데, 충주성(忠州城)이 물에 도괴(倒壞)되어서 나무와 돌들이 어지럽게 무너져 내려왔다. 공의 탄 배가 큰 돌에 부딪쳐서 키(柁)와 노(櫓)가 모두 유실되고 뱃바닥이 뚫어져 물이 솟아올랐다. 같이 탄 사람들 3백여 명의 얼굴빛이 죽은 잿빛(灰色) 같았으나, 공은 한 자리에 굳게 앉은 채 옮기지 않았으며 얼굴빛과 태도가 태연하였다. 조금 뒤에 세 사람이 떼(棧)를 타고 급류를 가로질러 와서 구제하였다. 뱃사람이 새끼를 이어가지고

던지니 세 사람이 끌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배를 무사히 구출한 것이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원주(原州)의 촌(村)에 사는 남의 집 종(奴)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장대(壯大)한 자와 함께 가서 이틀 밤을 지난 뒤에 법천사(法泉寺)에서 본군(本軍)과 만났다. 군대를 옮겨 독첩(秃帖)에 진주(進駐)하였다.

최공(崔公)이 말하기를, “내일 갈 길에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행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군사를 나누어서 양쪽에서 서로 호응하는 태세를 취하며 행군(行軍)하는 것도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최공이 그대로 따랐다. 맥곡(麥谷)에서 다시 만나서 적(賊)과 싸워 적의 머리 3백여 급을 베고, 제주(堤州)의 냇가에 박도(迫到)하니, 시체가 냇물을 덮고 흘러내렸다. 산곡(山谷) 사이를 수색하여 사로잡은 노약(老弱)의 남녀는 충주(忠州)로 보내고 소와 말은 그것을 노획한 자에게 주었다.

박달현(朴達峴)에 이르러 최공이 말하기를, “재(嶺) 위는 대군(大軍)이 머무를 곳이 아니니, 산 아래로 물러가 유둔(留屯)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용병(用兵)하는 방법이 비록 인화(人和)를 먼저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 지리(地利)는 더욱 경시(輕視)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이 만약 먼저 이 재(嶺)를 점거하고, 아군이 그 아래에 있게 된다면 원숭이의 빠른 재주로도 재를 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함께 군사를 더 많이 인솔하고 재 위에 올라가서 숙영(宿營)하였더니, 날이 썰 무렵에 적이 과연 대군(大軍)을 재의 남쪽에 진주(進駐)시키고 먼저 수만 명을 좌우(左右)의 봉우리로 올려 보내어 요해(要害)한 곳을 쟁탈하려고 하였다. 공이 장군 신덕위(申德威) 이극인(李克仁)으로 왼쪽을 담당하게 하고, 최준문(崔俊文) · 주공경(周公肩)으로 오른쪽을 담당하게 한 다음 공이 가운데서 진격의 북을 치니, 군사들이 다 목숨을 내던지고 사력(死力)을 다하여 싸웠다. 삼군이 이것을 바라보고 또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앞을 다투어 올라가니, 적이 크게 무너져 달아났다. 이 일로 인하여 적은 과연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다 동쪽으로 달아나는 것을 추격하여 명주(溟州)에 이르러 영령(楹嶺)에서 싸우고, 대현(大峴)에서 싸우고, 구산역(丘山驛)에서 싸우고, 등대양(燈臺壤)에서 싸우고, 악판(惡坂)에서 싸우고, 등주(登州) 동양(東壤)에서 싸웠

다. 모두 여섯 번의 전투에서 적이 견디지 못하여 여진(女眞)의 땅으로 달아나 돌아갔다.

9월에 공이 중군(中軍)의 통첩(通牒)을 받고, 정주(定州)로 군대를 이동하고 사람을 보내어 적정(敵情)을 엿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적이 함주(咸州)에 있다고 말하였다. 함주는 우리와 경계(境界)를 맞대고 있어서 개 · 닭소리가 서로 들리는 것이다. 공이 녹각원(鹿角垣)을 쌓고 성 밖에 물 없는 참호를 삼중(三重)으로 둘러 설치하였다. 극인(克仁) · 순우(純祐) · 덕위(德威) · 박유(朴蓁) 등 네 명의 장수를 머물러 있어 지키게 하고, 흥원진(興元鎭)으로 이거(移據)하였다.

10월에 적이 여진(女眞)의 병력을 얻어가지고 다시 기세를 떨치며 멀리 달려와서 침입(侵入)하므로 공이 군사를 돌려가지고 나가서 예주(豫州)의 계천(桂川)에서 조우(遭遇)하였다. 교전(交戰)하고 물러 나와서 갑자기 병에 걸려서 낫지 않았다. 막료(幕僚)들이 집에 돌아가 치료하기를 청하니 공이 말하기를, “차라리 변성(邊城)의 귀신이 될지언정 어찌 병든 몸을 수레에 싣고 돌아가 집에서 편안하기를 바라겠는가” 하였다. 병이 심하여져서 물이 입에 들어가지 않고 시력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니, 서울에 돌아와 병을 치료하라는 칙명(勅命)이 내려왔다. 병마녹사(兵馬錄事) 홍창연(洪昌衍)과 장군 이중립(李中立) 등이 공을 전여(肩輿)에 태워가지고 서울에 왔다. 여러 달 만에 병이 나았다.

이때에 적이 우리의 수십 개의 성을 깨뜨리고 무인지경을 다니듯하고 있었다. 이 달 29일에 머물러 있던 군사가 위주(謂州)에서 싸워서 크게 패전(敗戰)하고, 이양승(李陽升)이 전사(戰死)하였다.

무인년 7월에 수사공(守司空) 조충(趙冲)으로 원수를 삼고, 공으로 병마사(兵馬使)를 삼고, 상장군 조통보(趙通寶)를 차보(借補)하여 전군(前軍)을 삼고, 오수기(吳壽祺)로 좌군(左軍), 신선주(申宣胄)로 우군, 이임(李霖)으로 후군(後軍), 이적유(李迪儒)로 지병마사(知兵馬使)를 삼았다. 9월 6일에 원수가 도포에 홀(笏)을 잡은 차림으로 명령을 받고 나와 군복(軍服)을 갖추어가지고 다시 대관전(大觀殿)에 현신(見身)하여 절월(節鉞)을 받았다. 장단(長湍)으로 길을 잡아 동주(洞州)로 지향하였다. 동곡(東谷)에서 적(賊)을 만나 그의 모극(毛克) 고연(高延)과 천호(千戶) 아로

(阿老)를 사로잡았다. 성천(成川)에 유주(留駐)하면서 여러 도(道)에서 오는 군사들을 기다렸다. 경상도 안찰사 이적(李勣)이 군사를 인솔하고 오다가 적병을 만나서 전진(前進)하지 못하므로 장군 이돈수(李敦守)·김계봉(金季鳳)을 보내어 적을 치고 이적(李勣)의 군사를 맞아오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적이 큰 길을 따라 모두 중군을 지향하고 진격해 왔다. 아군이 좌우익(左右翼)을 벌리고 북을 치며 앞으로 나가니, 적의 2군(軍)이 멀리서 풍문(風聞)만 듣고 달아났다. 이돈수(李敦守) 등이 이적(李勣)과 함께 와서 모였다. 녹사(錄事) 신중해(申仲諧)가 그의 군사를 나누어가치고 군의 식량을 운수(運輸)하는데 적이 또 요격(邀擊)하므로 장군 박의린(朴義隣)이 그 적을 독산(秃山)에서 패배(敗北)시켰다. 적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니 기병(騎兵)이 수만 명이였다. 정예(精銳)한 부대를 다 투입(投入)하여 와서 공격하는 것을 아군이 또 쳐서 깨뜨렸다. 적의 아장(亞將) 탈자(脫刺)가 도망쳐 돌아갔으며, 적의 괴수도 또한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고자 하나 아군이 그의 귀로(歸路)에 요격(邀擊)할 것을 두려워하여 들어가 강동성(江東城)을 보전하고 있었다.

12월에 원(元)나라에서 합진(哈眞)·찰라(札剌) 두 원수를 보내어 그의 군사 1만 명을 인솔하고 동진(東眞)의 완안자연(完顏子淵)의 군사 2만 명과 함께 단적(丹賊)을 토벌한다고 성언(聲言)하고 강동성(江東城)을 지향하여 왔다. 그때 마침 큰 눈(大雪)이 와서 식량 수송의 길이 막혔다. 적이 성벽(城壁)을 굳게 지키면서 원나라의 군사를 피로하게 만들었다. 합진(哈眞)이 이 일을 근심하여, 사자(使者) 12인이 우리나라 사람 덕주(德州)의 진사(進士) 임경화(任慶和)와 함께 와서 군사와 식량을 요구하였다. 또 말하기를, “황제가 말씀하시기를, 적(賊)을 깨뜨린 뒤에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였다. 우리 원수가 보고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김양경(金良鏡)·진석(晋錫)을 보내어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합진(哈眞)이 여러 번 군대를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러 장수들이 다 가기를 꺼렸다. 공이 말하기를, “나라의 이름과 해로움이 바로 오늘의 사태에 달려 있다. 만약 저 사람들의 뜻을 위배하였다가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니, 조공(趙公)이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일에 적재(適材)의 인사가 아니면 보낼 수 없습니다”고 하

였다. 공이 말하기를, “일에 어려운 것을 사피(辭避)하지 않는 것이 신자(臣子)의 도리입니다. 내가 비록 재주 없으나 청컨대 공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고 하였다. 조공이 말하기를, “군중(軍中)의 일은 오직 공에게 의지하고 있을 뿐이니, 공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기묘년 2월에 공은 지병마사(知兵馬事) 한광연(韓光衍)과 함께 10명의 장수와 군병과 신기(神騎)·대각(大角)·내상(內廂)의 정예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니 합진(哈眞)이 통사(通事) 조중상(趙仲祥)을 시켜서 말하기를, “공이 과연 우리와 더불어 우호(友好)를 맺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몽고황제(蒙古皇帝)를 향하여 멀리 절하고, 다음은 만노황제(萬奴皇帝)에게 절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만노라고 하는 자는 동진(東眞)의 임금인 것이다. 공이 말하기를,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에 어찌 두 황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이어 드디어 성무제(聖武帝)에게만 절하고 만노에게는 절하지 아니하였다. 공은 신장(身長)이 6척 5촌이나 되고, 수염은 배 아래까지 내려가도록 길었다. 정장(正裝)의 차림을 할 때면 번번이 반드시 두 사람의 비자(婢子)를 시켜서 그 수염을 나누어 받들게 한 뒤에 띠를 띠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합진이 그의 형상과 모습을 보고 또 그의 말을 듣고 매우 기이하게 여기어 인접(引接)하여 같이 앉으면서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다. 공이 대답하기를, “60세에 가깝습니다”고 하니 합진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 50세가 못됩니다. 이미 한 집안이 되었으니, 그대는 형이고 나는 아우인 것입니다” 하고 공으로 하여금 동쪽을 향하여 앉게 하였다. 다음날 또 그의 군영(軍營)에 가니 합진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6국을 정벌(征伐)하면서 귀인(貴人)의 일을 들은 것이 많습니다. 형님의 모습을 보니 어떻게 그다지 기결(奇傑)하십니까. 내가 형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휘하(麾下)의 사졸들도 또한 집안 식구 같습니다”고 하였다. 작별할 때에는 손을 잡고 문밖에 나와서 부액(扶腋)하여 말(馬)에 오르게 하였다. 두어 날 뒤에 조공(趙公)이 또한 도착하였다. 합진이 묻기를, “원수와 형님은 누가 나이 더 많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원수가 나보다 더 많습니다”고 하니, 합진이 곧 조공을 인도하여 상좌(上座)에 앉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아마 예(禮)가 아닐지 모

르겠습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심정에 스스로 소외(疎外)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두 형님의 사이에 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그것이 진정 우리들의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감히 먼저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고 하였다.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에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몽고의 풍속에 날카로운 칼로 고기를 찢러가지고 손과 주인이 서로 받아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칼끝에 꽂는 고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매우 빨라서 눈도 깜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사들은 평소에 용감하다는 이름이 있는 자라도 어려워하는 빛이 없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공과 조공은 끓어왔고, 일어나고, 받고, 맞이하는 일이 매우 익숙하니 합진 등이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을 기약하여 강동성(江東城) 아래에 모였다. 성에서 3백 보 떨어진 곳에 멈추어 합진이 성의 남문(南門)에서 동남문에 이르는 사이에 못을 파니, 깊이와 넓이가 10척이었다. 서문(西門)에서 이북은 완안자연(完顏子淵)에게 맡기고, 동문 이북은 공에게 맡겨서 다 물 없는 참호를 파게 하여 적이 도망쳐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달 14일에 적이 사세가 군박(窘迫)하게 되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다. 왕자는 목매어 자살하고 그의 거짓 승상 이하는 다 참형에 처하였다.

합진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만 리 밖에서 와서 귀국(貴國)과 협력하여 적을 깨뜨렸으니 천재(千載)에 다행한 일입니다. 예의상으로 말하면 당연히 가서 귀국의 국왕께 배알(拜謁)하여야 할 일이나 우리의 군사들이 자못 많아서 멀리 가기가 어렵기에 다만 사자(使者)를 보내어 감사를 표하기로 합니다”라고 하였다.

20일에 합진이 찰라(札刺)와 함께 조원수와 공을 청하여다가 같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두 나라는 영원히 형제의 나라가 되어서 만세(萬世)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잇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군사들을 호궤(犒饋)하는 잔치를 베풀겠습니다”고 하였다. 합진이 부녀자, 사내아이 9백 명과 우리 백성으로서 적에게 포로되었던 2백 명을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계집아이로서 나이가 15세 좌우되는 자를 조원수와 공에게 각각 9인씩, 좋은 말을 각각 9필씩 주었다.

조원수는 합진을 전송하기 위하여 의주(義州)까지 가고, 공은 찰라(札刺)와 함께

조양(朝陽)에 이르렀다. 그때 마침 서경재제사(西京齋祭使)의 명령이 있었으므로 오수기(吳壽旗)를 공에 대신하여 보내었다.

9월에 의주(義州)의 낭장(郎將) 다지(多知)와 별장(別將) 한순(韓琣) 등이 수비하는 장수를 죽이고, 여러 성(城)을 연결하여 배반하였으므로 추밀원사(樞密院使) 이극수(李克修)는 중군(中軍)을 거느리고, 이적유(李迪儒)는 후군을 거느리고, 공은 우군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였다. 경진년 정월에 공으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삼아 극수(克修)를 대신하여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였다. 다지(多知) 등이 요양(遼陽)의 온지한(溫知罕)에게 청병(請兵)하니 온지한이 두 사람을 유인하여다가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우리에게 전(傳)해 왔다. 삼군이 여러 성읍의 부역(附逆)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공이 말하기를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그들의 죄수를 무찌르고, 협박에 못 이겨 쫓은 자는 다스리지 말라’고 하였다. 대군(大軍)이 이르는 곳이면 그 형세가 요원(燎原)의 불과 같은 것이다. 무고한 백성들의 화를 입은 것이 많은데, 하물며 거란(契丹)의 입구(入寇)로 인하여 관동(關東)이 빈터가 되었는데 지금 또 여기에 군사를 내놓아 스스로 번리(藩籬)를 잔해(殘害)해서야 되겠는가” 하고 다만 다지(多知)·한순(韓琣)의 도당(徒黨)만 죽이고, 나머지는 일체 불문에 붙였다. 거란 군사로서 그물을 벗어난 자들이 영원(寧遠)의 산중에 달아나 숨었다가 때때로 나와 도둑질을 하여 백성들이 근심하더니 의주(義州) 사람 창명(昌名)이 수보(秀甫)·공리(公理)와 함께 또 모반(謀叛)하므로 공이 이경순(李景純)·이문언(李文彦)을 보내어 영원(寧遠)의 적을 토벌하게 하고 문비(文備)·최기(崔琪)로 창명(昌名)을 치게 하였다. 창명이 그때에 철주(鐵州)를 공격하다가 관군(官軍)이 도착하니 적당(賊黨)이 와해(瓦解)하였다. 드디어 창명·수보·공리를 참살(斬殺)하였다. 경순(景純)·문언(文彦)도 또한 적을 영원산에서 깨뜨리니 북쪽 국경이 편안하게 되었다. 5월에 개선(凱旋)하였다.

그 뒤에 공이 졸(卒)하니, 고종(高宗)을 도와 벼슬이 총재에 있는 것이 8년이나 되었으며 공덕(功德)은 신사(信史)에 실려졌다. 이것은 다만 5년간의 행군(行軍)한 일만을 기록하였을 뿐이다.

논평하여 말하기를, 국가의 덕(德)이 쇠(衰)하지 않았을 때에 화란(禍亂)의 조짐이 간혹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뛰어난고 준걸(俊傑)스럽고, 재주와 지혜 있는 신하가 있어서 임금의 맡겨 씬을 얻어 세상의 어려움을 널리 구제하게 되는 것이니 아마 사직의 신령이 그늘에서 도와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태조가 나라를 세운 때부터 고종(高宗)에 이르기까지 3백 년이 넘었다. 최씨(崔氏)의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정권을 잡으며 안으로는 강력한 갑사(甲士)들로 신변을 옹위(擁衛)하고 위복(威福)을 전단(專斷)하면서 지모(智謀)가 깊은 자는 반드시 등용(登用)하지 않았으며, 밖으로는 잔약(殘弱)한 병사(兵士)들에게 맡겨서 공격하고 전투하는 일을 맡기고는 공(功)이 많은 자는 의심을 받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무엇인가 함이 있고자 하나 그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이에 금(金)나라 종주의 역사가 끝이 나고 요(遼)의 끼친 열자(孽子)가 화란을 빚어서 우리나라의 강토를 엿보아 자기들의 소굴을 만들려고 기도하였다. 멀리 싸우며 온 막다른 골목에 선 도둑의 칼날을 당해내기 어렵더니, 원나라 황제가 용처럼 일어나며 만 리에 장수를 보내어 우리나라의 국경을 누르며 군사를 징발하여 도적을 토벌하고자 일러왔다. 그 말을 순종하러니 그들의 참뜻을 알 수 없고 거역(拒逆)한다면 반드시 다른 화변(禍變)이 생길 것이다. 편안하고 위태한 기틀이 그 사이가 터럭 하나의 차이(差異)에 달렸었다. 공이 드디어 좌우(左右)를 제후하여 먼 곳을 사귀고 가까운 곳을 쳐서 경륜(經綸)의 시초에서 종주국(宗主國)과의 맹세를 정하고 국가의 기초를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안정시켰으니 어찌 뛰어나고 준걸스럽고, 지혜 있고, 재주 있는 신하가 아니며 사직의 신령이 그늘에서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그가 썩 맛있는 것을 보면 군사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는 온정(溫情)이 있어서 군사들의 사력(死力)을 얻을 수 있었고, 명령은 시행되고 금지하는 것은 추호(秋毫)만큼도 위범(違犯)함이 없었으니 옛날의 이름난 장수들이 풍모(風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평(開平)의 싸움에서 나는 두 번이나 중군(中軍)을 구제하였는데, 사현(沙峴)의 전투에서는 노공(盧公)은 서로 돕지 않았다. 그러나 끝까지 한 마디의 비난하는 말이 없어서 서로의 혐극(嫌隙)을 내지 않았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

지 아니하고 공(功)은 여러 사람들에게 돌렸으니 이것은 대인군자(大人君子)의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먼저 합진(哈眞)에게 나아가서 우방(友邦)이라는 마음을 굳게 만들고 만노(萬奴)에게는 절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높이는 도리를 밝혔으며, 다지(多知)와 한순(韓瑄)이 이미 머리를 바치매 군사를 거두고 부역자(附逆者)를 처단하는 일을 중지하여 변경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심원(深遠)한 지모(智謀)와 큰 절조에 이르러서는 더욱 칭상(稱尙)할 만하다.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그의 충의를 칭찬하였다. 태상(太常)에서 위열(威烈)이라고 시호(諡號)를 정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익재(益齋)선생 본전(本傳)

이제현(李齊賢)의 자(字)는 중사(仲思), 본관은 경주(慶州)이니 정승 진(鎭)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성인(成人)과 같았으며 이미 글 짓는 것을 알게 되어서는 벌써 작가(作家)다운 기풍(氣風)이 있었다. 충렬왕(忠烈王) 27년에 나이 15세로서 과거(科擧)에 급제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작은 재주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고 하고, 드디어 경적(經籍)에 마음을 두어 널리 통하고 깊이 연구하니 진(鎭)이 즐겨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혹은 우리 가문(家門)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려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뽑히어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 들어갔다. 연우(延祐) 연간에 충선왕(忠宣王)이 원(元)나라에 머무르면서 만권당(萬卷堂)을 지으니 요수(姚遂)·염복(閔復)·원명선(元明善)·조맹부(趙孟頫) 등 여러 학사(學士)들이 왕의 문호에 종유(從遊)하였다. 제현이 그들 사이에 추축(追逐)하여 학문이 더욱 나아가니 제공(諸公)들이 찬탄함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서촉(西蜀)을 다녀왔으며, 차례를 뛰어넘어 선부전서(選部典書)에 승진하였다.

충선왕이 강남(江南)에 강향(降香)하게 되매, 제현이 권한공(權漢功)과 함께 시종(侍從)하여 갔다. 왕이 누대(樓臺)의 경치 좋은 곳을 만나 흥을 일으키고 회포를 풀게 된 때에는 번번이 말하기를, “이러한 곳에 이생(李生)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였다. 왕이 일찍이 제현에게 묻기를, “태조(太祖) 때에 거란(契丹)이 낙타(橐駝)를 보내온 것을 다리 아래에 매어 두게 하고 먹이를 주지 않아서 굶어죽게 하였다. 낙타가 비록 중국에서는 생산되지 않으나 중국에서도 또한 일찍이 이것을 기르지 않은 때가 없어서 국군(國君)은 수십두(數十頭)를 가지고 있곤 하였다. 낙타는 그것을 기르는 데서 생기는 폐단이 백성을 해롭게 하는 데서 이르는 않는 것인데, 물리치고 받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어찌 받아가지고 굶겨서 죽이게까지 하였는가”라고 하였다. 제현이 대답하기를, “왕업(王業)을 창시하여 자손에게 왕통(王統)을 물려 전하는 임금은 그 보는 것이 멀고, 그 생각하는 것이 깊어서 후세(後世)에서 따

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송(宋)나라의 태조가 금중(禁中)에서 산돼지를 기르더니, 인종(仁宗)이 놓아 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뒤에 요인(妖人)을 얻었으나, 도리어 취혈(取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조의 생각이 또한 여기에게까지 미쳤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또한 정론(定論)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태조가 산돼지를 기른 뜻이 그 피를 뽑는 일보다 더 큰 데 있지 않았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태조(太祖)가 낙타를 그렇게 한 것은 장차 오랑캐들의 간혹(奸諷)한 속임수를 꺾으려고 한 것인지, 또 혹은 후세(後世)의 사치심(奢侈心)을 막으려고 한 것인지, 아마 반드시 기미(幾微)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전하(殿下)로서는 공손하게 묵묵히 생각하고 힘써 실행하여 본받을 뿐인 것입니다”고 하였다.

또 물기를,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문물(文物)이 중국과 같다고 칭찬하였는데, 지금은 그 배우는 자들이 다 승려(僧侶)를 쫓아다니며 장구(章句)나 익히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라고 하였다. 제현이 대답하기를, “옛날에 태조께서 초창기의 거칠고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리기에 날마다 바빠서 여가가 없었으나 제일 먼저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人才)를 양성하였습니다. 한 번 서도(西都)에 거동하여서는 드디어 수재(秀才) 정악(廷鶯)을 명하여 박사(博士)를 삼았으며, 육부(六部)의 생도들은 교수(教授)하는 데 비단과 명주를 하사하여 권장(勸獎)하고 국고의 녹미(祿米)로써 기르게 하였으니 마음씀이 절실하였음을 알겠습니다. 광묘(光廟) 이후에는 더욱 문교(文教)를 닦아서 중앙에서는 국학(國學)을 높이고 지방에서는 향교(鄉校)와 이상(里庠)과 당서(黨序)를 벌여 놓으니 현송(絃誦)하는 소리가 서로 들렸습니다. 문물이 중화(中華)와 같다고 한 말이 지나친 논평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의종(毅宗) 말년에 무인(武人)의 변(變)이 일어나서 옥석(玉石)의 구별 없이 선비는 모두 화를 입게 되었으니, 그중에 몸이 호구(虎口)에서 벗어난 자는 깊은 산중에 도망쳐 숨어서 선비의 관대(冠帶)를 벗어버리고 중의 옷을 입은 채 여년(餘年)을 마쳤으니, 신준(神駿)·오생(悟生)과 같은 무리가 그것입니다. 그 뒤에 국가가 차츰 문치(文治)를 회복하게 되니 비록 학문에 뜻을 두는 자가 있을지라도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들이 다 승려가 된 무리에게서 강습(講習)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자들이 승려에게 쫓아다니며 배우는 것은 그 근원이 이러한 것입니다.

다. 지금 전하께서 학교를 널리 설치하고, 상서(庠序)에 유의하시며, 육예(六藝)를 존중히 여기고, 오교(五敎)를 밝히어 선왕의 가르침을 천양(闡揚)한다면 감히 참 선비를 저버리고 승려에게 쫓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니 왕이 가납(嘉納)하였다.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전임되고, 공신의 호를 하사(下賜) 받았다. 또 연오(燕吳)에 시종(侍從)을 한 공으로 주청(奏請)하여 고려왕부단사관(高麗王府斷事官)을 제수(陞授)하였다.

유청신(柳淸臣)·오잠(吳潛) 등이 비밀히 원(元)나라에 청하여 우리나라에 성(省)을 세워서 중국 내지(中國內地)에 편입하려고 하므로 제현이 도당(都堂)에 글을 올려 그것이 온당하지 않음을 극언(極言)하였더니 그 논의가 그쳤다.

충선왕이 참소를 입어 토번(吐蕃)으로 귀양을 가니 제현이 최성지(崔誠之)와 함께 원낭중(元郎中)과 승상(丞相) 백주(伯住)에게 글을 보내어 충선왕을 유사(宥赦)하여 본국에 돌려보내 주기를 호소하는데 말이 매우 적절하였다. 조금 뒤에 황제가 참량하여 충선왕을 타사마(朵思麻)의 땅에 옮겼으니 백주(伯住)의 주청(奏請)에 좇은 것이다. 제현이 가서 충선왕을 뵈었는데 도중(道中)에 노래하고 읊은 시(詩)에는 충성심과 분격(憤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밀직사사(密直司事)로 가자(加資)되고, 공신 호를 하사하였으며,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전임되고 또 김해군(金海君)에 봉군(封君)되었다.

충숙왕이 홍(薨)하니 조적(曹頤)이 난을 일으켰다. 충혜왕이 조적을 쳐서 죽이니 그의 당류(黨類)가 중국의 서울에 있는 자가 매우 많아서 반드시 왕이 죄에 얹어 넣으려고 하였다. 원나라에서 사자를 보내어 왕을 불러가니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였으며 화(禍) 또한 예측하기 어려웠다. 제현이 분기(奮起)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내가 우리 임금의 신자(臣子)임을 알 뿐이다”고 하고 경사(京師)로 쫓아가서 일이 바르게 변석(辨析)되게 하였다. 공(功)이 제1위에 있었으므로 철권(鐵券)을 하사하였다.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에는 못 소인(小人)들이 더욱 치성(熾盛)하였다. 제현이 자취를 숨기고 나오지 않은 채 《櫟翁稗說》을 지었다.

충혜왕이 원나라에 잡히니 재상(宰相)과 나라의 원로(元老)들이 민천사(旻天寺)에

모여서 왕이 죄를 유사(宥赦)하도록 청하기를 의논하고 제현이 그 글을 초안하여 서명(署名)해서 성(省)에 올리고자 하였으나 국로(國老)들이 오지 않은 자가 많아 서 일을 마침내 이루지 못하였다.

충목왕(忠穆王)이 왕위를 승습(承襲)하매 제현을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승진시키고 부원군을 봉하였다. 도당(都堂)에 글을 올려 왕을 위하여 스승을 선택하여서 바른 학문을 권면(勸勉)하고, 덕성(德性)을 도와 기르게 하기를 청하고, 이어 시정(時政)의 잘못과 풍속이 지나치게 사치한 것을 논평(論評)하였다. 뒤에 안축(安軸) · 이곡(李穀) · 안진(安震) · 이인복(李仁復)과 함께 민지(閔漬)가 편찬(編撰)한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증수(增修)하였으며, 충렬왕 · 충선왕 · 충숙왕 세 임금의 실록(實錄)을 편수하였다.

공민왕이 즉위하여 원나라에 머무르면서 우리나라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제현을 섭정승권단정동성사(攝政丞權斷征東省事)로 임명하고, 곧이어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에 임명하였다. 제현이 이문(理問) 배전(裴全)과 박수명(朴守明)을 행정(行省)의 감옥에 가두고, 직성군(直城君) 노영서(盧英瑞)를 가덕도(加德島)에, 찬성사(贊成事) 윤시우(尹時遇)를 각산(角山)에 유배(流配)시켰으며, 찬성사 정천기(鄭天起)의 벼슬을 낮추어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삼고, 지도첨의(知都僉議) 한대순(韓大淳)이 벼슬을 낮추어 기장감무(機張監務)를 삼으니 조치(措置)함이 적절하여 사람들이 힘입어 안정할 수 있었다.

조일신(趙日新)이 임금을 모시고 다닌 공을 믿고 횡포하고 교만 방자하여 제현이 자기보다 윗자리에 있는 것을 매우 시기하였다. 제현이 그것을 알고 벼슬을 고사(告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또 말에서 떨어져 발을 상한 것을 이유삼아 전문(箋文)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또한 허가하지 아니하고 공신의 호를 더 높이었다. 제현이 또 세 번째의 전문을 올려 굳이 사양함을 마지아니하여 드디어 치사(致仕)하였다. 일신(日新)이 많은 불량자(不良者)의 무리를 모아가지고 밤에 왕궁(王宮)에 들어가 포위하고, 평소에 자기가 시기한 사람들을 헤쳐서 군사를 풀어 베어 죽였는데, 제현은 벼슬을 사퇴하였으므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일신(日新)이 복주(伏誅)하게 된 뒤에 제현을 기용하여 승상(丞相)을 삼고, 계림부원군을 봉하였

으며, 양제(兩制)에 칙명(勅命)을 내려 시(詩)를 지어 축하하게 하였다. 기철(奇輶) 등이 복주(伏誅)된 뒤에 임금이 기철의 의복(衣服)·비단·명주를 관시(官侍)와 양부(兩府)에 하사(下賜)하니 제현은 공(功)이 없다고 하여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전문(箋文)을 올려 노사(老謝)하기를 청하여 치사(致仕)하였다. 자기의 사저(私邸)에서 국사(國史)를 찬수(撰修)하니 사관(史官)과 삼관(三館)이 다 모였다.

임금이 일찍이 제현에게 명하여 종묘의 소목(昭穆)의 차례를 의정(議定)하게 하였다. 그 이야기가 《예지(禮志)》에 있다.

임금이 또 경도(京都)에 성(城)을 수축(修築)하는 것의 가부(可否)를 대신과 기로(耆老)들에게 물었을 때에 제현은 그 논의를 극력 찬성하였다. 홍건적(紅巾賊)의 난(亂)을 만나 임금이 남쪽으로 피난하니 제현이 상주(尙州)에 가서 임금을 뵈옵고 말하기를, “만약 처음에 험고한 관새(關塞)를 설치하고 좁은 막힌 목을 지켰더라면 반드시 승리하였을 것인데 일찍 도모하지 않은 것이 한(恨)스럽습니다. 적(賊)이 만약 들에서 전투를 벌였다면, 아군(我軍)은 반드시 패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비와 눈으로 인하여 적이 대비(對備)하지 않은 때를 틈타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종묘사직과 산천의 신명(神明)의 보우를 힘입은 것입니다”고 하였다.

공민왕 16년에 졸(卒)하니, 나이가 81세였다. 시호를 문충(文忠)이라고 하였다.

제현은 타고난 자질(資質)이 후중(厚重)한 데다가 학문으로 더욱 보익(輔益)하였기 때문에 의논(議論)으로 나타나고, 사업으로 조처되는 것이 모두가 볼 만하였다. 일찍이 역사를 읽다가 측천(則天)의 기년(紀年)이 있는 대문에 이르러 말하기를, “어찌 주(周)나라의 찌꺼기를 가져다가 우리 당(唐)나라의 일월(日月)을 더럽히는가”라고 하였다. 뒤에 주자(朱子)의 《강목(綱目)》을 얻어 읽고 스스로 자기의 학설이 정당한 것을 입증하였다 한다.

남의 조그마한 선행(善行)이 있어도 칭찬하고 기려서 그 선행이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으며, 선배(先輩)의 남긴 일이면 비록 미세(微細)한 것이라도 자신은 미치지 못할 것을 근심하였다. 평상시에 일찍이 침착하지 못한 빠른 말과 당황하는

얼굴빛을 지은 일이 없었다.

만년(晩年)에는 한가롭게 지내면서 손을 접대하는 데 술을 준비하여 두고, 고금의 일을 토론하여 게을리함이 없었다. 최해(崔瀼)가 일찍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선비가 사흘 동안을 서로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동안에 학문이 부쩍 는 것에 놀라 눈을 비비고 서로 대한다고 하더니, 나는 익재(益齋)에게서 그러한 진경(進境)을 보았다”고 하였다. 익재는 제현의 호(號)이다.

제현은 애써 옛 법을 따르고 고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뜻인들 어찌 옛 사람의 뜻과 같지 않겠는가. 다만 재덕(才德)이 옛 사람에게 미치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공민왕이 신돈(辛旽)을 총애하니 제현이 왕에게 사뢰기를, “신이 일찍이 신돈을 보니 그 골상(骨相)이 옛날의 흉악한 사람과 같습니다. 반드시 뒷날의 근심을 남길 것입니다”고 하였다. 신돈이 듣고 매우 마음에 끼고 온갖 방법으로 제현을 헐뜯었으나, 그가 늙었기 때문에 가해(加害)할 수는 없으므로 드디어 임금에게 말하기를, “선비라는 자들이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하고 일컬으면서 중앙과 지방에 퍼져 있으면서 서로서로 간청(干請)하여 그들의 하고 싶은 짓을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현과 같은 자는 문생의 문하(門下)에 또다시 문생이 있어서 드디어 나라 안에 가득한 나라의 도둑이 되었습니다. 유자(儒者)들의 해독이 이와 같습니다”고 하였다. 신돈이 패망(敗亡)하게 되었을 때에 임금이 말하기를, “익재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젊었을 때부터 제배(濟輩)들이 감히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더니 그가 재상이 된 뒤에는 사람들이 귀천(貴賤)의 구분 없이 다 익재라고 일컬었다. 그가 세상에 존경됨이 이와 같았다.

뒤에 공민왕이 묘정(廟廷)에 배향(配享)하였다.

그의 저술한 《익재난고(益齋亂稿)》 열 권이 세상에 전하고 있다.

제현이 일찍이 국사(國史)가 완비(完備)하지 못한 것을 병되게 여겨 백문보(白文寶) · 이달충(李達衷)과 함께 《기년전지(紀年傳志)》를 지었으나, 남천(南遷) 때에 다 산실(散失)하여 없어지고 오직 <태조기(太祖紀)>만이 남아 있다.

익재(益齋)선생 연보(年譜)

충렬왕 13년(至元 24년 1287년) 정해, 12월 경진일(庚辰日)에 탄생.

14년(至元 25년 1288년) 무자, 2세.

15년(至元 26년 1289년) 기축, 3세.

16년(至元 27년 1290년) 경인, 4세.

17년(至元 28년 1291년) 신묘, 5세.

18년(至元 29년 1292년) 임진, 6세.

19년(至元 30년 1293년) 계사, 7세.

20년(至元 31년 1294년) 갑오, 8세.

21년(元貞 원년 1295년) 을미, 9세.

22년(元貞 2년 1296년) 병신, 10세.

23년(大德 원년 1297년) 정유, 11세.

24년(大德 2년 1298년) 무술, 12세.

25년(大德 3년 1299년) 기해, 13세.

26년(大德 4년 1300년) 경자, 14세.

27년(大德 5년 1301년) 신축, 15세. 선생은 어릴 때부터 우뚝이 뛰어나서 성인(成人)과 같았다. 이미 글을 지을 줄 알았으며 또 작가(作家)다운 기풍(氣風)이 있었다. 이 해에 성균시(成均試)에 장원하고 또 대과(大科)에서 병과(丙科)에 합격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이 과거를 본다는 것은 작은 기예(技藝)일 뿐이다. 이것으로 나의 큰 덕성(德性)을 기르기에는 부족한 것이다”고 하고, 경전(經典)을 토론(討論)하여 널리 통하고 자세하게 연구하여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알맞은 것을 취하여 마땅한 바에 도달하니 문정공(文定公)이 매우 기뻐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혹은 우리 가문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려는가”라고 하였다. 부인 권씨를 맞이하였다. 권씨는 문정공(文正公) 국재(菊齋) 부(溥)의 따님이다. 공이 문과(文科)에 급제할 때에 국재가 지공거(知貢舉)로서 공의 재질을 보고 사위로 선택하였다.

28년(大德 6년 1302년) 임인, 16세.

29년(大德 7년 1303년) 계묘, 17세. 권무봉선고판관(權務奉先庫判官).

연경궁녹사(延慶宮錄事).

30년(大德 8년 1304년) 갑진, 18세.

31년(大德 9년 1305년) 을사, 19세.

32년(大德 10년 1306년) 병오, 20세.

33년(大德 11년 1307년) 정미, 21세.

34년(至大 원년 1308년) 무신, 22세. 예문관(藝文館) · 춘추관(春秋館)에 들어간다. 관중(館中)의 사람들이 선생에게 미루고 사양하여 감히 글을 논(論)하지 못하였다. 이 해 겨울에 제안부직장(齊安府直講)에 뽑히다.

충선왕 원년(至大 2년 1309년) 기유, 23세. 사헌규정(司憲糾正)에 뽑히다.

2년(至大 3년 1310년) 경술, 24세. 선부산랑(選府散郎)으로 옮기다.

3년(至大 4년 1311년) 신해, 25세. 전교시승(典敎寺丞), 삼사판관(三司判官)으로 두 번 전임(轉任)하다. 재직하는 곳마다 적임(適任)이었다.

4년(皇慶 원년 1312년) 임자, 26세. 선발되어 서해도 안렴사(西海島安廉使)가 되다. 옛날 안렴사의 기풍이 있었다. 승진하여 성균악정(成均樂正)이 되다. 겨울에 제거풍저창사(提舉豐儲倉事)가 되다.

5년(皇慶 2년 1313년) 계축, 27세. 내부부령(內府副令)에 임명되다. 풍저창에서 말과 휘의 일을 감림(監臨)하고 내부에서 작은 저울 눈과 몇 자, 몇 치의 계산 사무를 교검(校檢)하면서도 선생은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은 어떠한 일에도 능한 재질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였다.

충숙왕 원년(延祐 원년 1314년) 갑인, 28세. 이때 정주(程朱)의 학설이 처음으로 중국에 퍼졌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파급되지 않았더니 백이정(白頤正)이 원(元)나라에서 배워 가지고 돌아왔으므로, 선생이 제일 먼저 그를 스승으로 하여 수학(受學)하였다. 처음에 충선왕(忠宣王)이 원나라의 인종(仁宗)을 도와 내란(內亂)을 평정하고 무종(武宗)을 영립(迎立)하였다. 그런 까닭에 양조(兩朝)의 충우(寵遇)가

누구에게보다도 두터웠다. 충선왕은 드디어 원나라 황제에게 청하여 자신의 왕위를 충숙왕(忠肅王)에게 전하고, 자신은 원나라의 태위(太尉)로 경사(京師)에 머물렀다. 관저(官邸) 안에 만권당(萬卷堂)을 짓고 학문을 고구(考究)하는 것으로써 스스로 즐기고 있었다. 이어 말하기를, “중국의 서울에 있는 문학하는 선비들은 다 천하에서 선택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인데, 나의 부중(府中)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나의 수치(羞耻)이다”고 하고 선생을 불러들여 중국의 수도(首都)에 오게 하였다. 원나라의 학사(學士) 요수(姚燧) · 염복(閔復) · 원명선(元明善) · 조맹부(趙孟頫) 등이 모두 왕의 문호(門戶)에 드나들었는데, 선생이 그들 사이에 추축(追逐)하여 학문이 더욱 진취(進就)하니, 제공(諸公)들이 찬탄하고 칭상함을 그치지 않았다. 상왕(上王)이 선생에게 묻기를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문물이 중화(中華)에 비견(比肩)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배우는 자들이 다 승려(僧侶)나 쫓아다니며, 장구(章句)나 익혀서 글귀나 아로새겨 꾸미는 무리가 매우 많아지고, 경서(經書)에 밝고 덕행(德行)을 닦는 선비는 아주 적게 되었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선생의 답은 대략 이러하였다. “전하께서 진실로 학교(學校)를 넓히고 상서(庠序)를 소중히 여기며, 육예(六藝)를 존중하고, 오교(五教)를 밝혀서 선왕(先王)의 도(道)를 천양(闡揚)하신다면 누가 참 선비를 저버리고 승려를 쫓아갈 것이며 실학(實學)을 버리고 장구(章句)를 익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장차 장구나 아로새겨 꾸미는 무리들이 다 경서(經書)에 밝고 덕행을 닦는 선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그 말을 가납(嘉納)하였다.

2년(延祐 2년 1315년) 을묘, 29세. 선부의랑(選部議郎)에 전임(轉任), 가을에 성균(成均)에 제주(祭酒)를 겸임하다.

3년(延祐 3년 1316년) 병진, 30세.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임명되다. 4월에 진현관제학(進賢冠提學)에 전임되다.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서촉에 다녀오다. 가는 곳마다 지은 글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되다.

4년(延祐 4년 1317년) 정사, 31세. 선부전서(選部典書)에 임명되다. 9월에 왕명을 받들고 원(元)나라에 가서 상왕(上王)의 탄일(誕日)을 축하하다.

5년(延祐 5년 1318년) 무오, 32세.

6년(延祐 6년 1319년) 기미, 33세. 상왕(上王)이 강남(江南)에 강향(降香)하는 데에 호종하다. 상왕이 누대(樓臺)와 풍물(風物)이 좋은 곳에 이르러 흥을 일으키고, 회포를 풀 때면 번번이 조용히 말하기를, “이런 곳에 이생(李生)이 없을 수 없다” 하였다. 왕이 고향(古杭) 오수산(吳壽山)을 불러서 선생의 초상을 그리게 하고, 북촌(北村) 탕선생(湯先生)이 찬(贊)을 썼다. 그 뒤 32년이 지난 뒤에 선생이 국왕의 표문(表文)을 받들고 중국의 서울에 갔다가 그 초상화를 보게 되었다. 선생의 시(詩)에 내가 예전에 형영(形影)을 남긴 것이 있다(我昔留形影)고 한 글귀가 있다.

7년(延祐 7년 1320년) 경신, 34세. 7월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임명되다. 단성익찬공신호(端誠翊贊功臣號)를 하사하고 또 토전(土田)과 노비(奴婢)를 하사하여 연(燕)·오(吳)에 시종(侍從)한 공을 상사(賞賜)하다. 주청(奏請)하여 고려왕부단사관(高麗王府斷事官)을 제수(除授)하다. 9월에 지공거(知貢舉)가 되어 최용갑(崔龍甲)·이곡(李穀) 등을 뽑으니, 임금이 인재를 얻은 것을 가상(嘉賞)하여 은병(銀瓶) 50개와 쌀 백 석(百石)을 주어서 학사연(學士宴)을 베풀게 하다. 겨울에 원(元)나라에 가다가 황토점(黃土店)에 이르러 상왕(上王)이 참소(讒訴)를 입고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근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시 세 편을 짓고, 또 〈명이행(明夷行)〉 한 편을 짓다.

8년(至治 원년 1321년) 신유, 35세. 이때에 상왕이 토번(吐蕃)의 살사결(撒思結)의 땅에 귀양살이를 하였는데, 경사(京師)와의 거리가 1만 5천 리나 되었다. 선생이 경사의 왕저(王邸)를 지키면서 시를 지어 유청신(柳淸臣)·오잠(吳潛)에게 보내어 분하고 성나는 마음을 토로(吐露)하였다. 동암(東菴) 문정공(文定公)의 상(喪)을 당하다.

9년(至治 2년 1322년) 임술, 36세.

10년(至治 3년 1323년) 계해, 37세.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정동성(征東省)을 설치하여 중국 내지(內地)와 같게 할 것을 논의하므로 선생이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의 도당(都堂)에 글을 올려 《중용(中庸)》〈구경장(九經章)〉 속에 나오는 먼 곳의 사람들을 진정시켜 편안하게 하라고 한 천하 국가의 치리(治理)를 설명하여 그 나라를 그대로 그 나라로 하고 그곳의 인민(人民)을 그대로 그곳의 인민으로 할 것을 청

(請)하니 행성설치론(行省設置論)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이때 상왕(上王)은 아직 토번(吐蕃) 땅에 그대로 있었으므로 선생이 원나라의 낭중(郎中)과 승상(丞相) 백주(伯住)에게 글을 올려 용서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기를 청하였는데, 말의 뜻이 간절하고 슬프고 분격(憤激)하고, 절실하였다. 백주(伯住)가 황제에게 청하여 상왕을 타사마(朵思麻)의 땅에 옮기게 하였다. 선생이 상왕을 가서 뵈니, 농산(隴山)을 넘고 조수(洮水)에 다달아 죽음을 무릅쓰는 위험한 지대를 지나갔었다. 도중에서 읊은 시가(詩歌)에는 충성심과 분노(憤怒)가 가득하였다. 이 여행길에 측천무후(則天武后)의 무덤을 지나다가 시 한 편을 남겼는데 그중 한 구에 말하기를, “어찌 주(周)나라의 찌꺼기를 가져다가 우리 당나라의 일월(日月)²을 더럽힌단 말인가”라고 하였으며, 또 짧은 서문(序文)을 지어서 구양공(歐陽公)의 잘못을 꾸짖었다. 뒤에 주자(朱子)의 감흥시(感興詩), “어찌다 구양자(歐陽子)는 사필(史筆)을 잡고서 지극히 공정한 것을 잘못 판단하였는가(如何歐陽子秉筆迷至公)”라는 글귀를 얻어 보고 스스로 자신의 견식(見識)이 바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11년(泰定 원년 1324년) 갑자, 38세. 광정대부밀직사사(匡靖大夫密直司事)로 가자(加資)되다.

12년(泰定 2년 1325년) 을축, 39세. 고쳐 추성양절공신(惟誠亮節功臣)이라는 공신호를 하사하다. 거듭 첨의평리(僉議評理)와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전임되다. 김해군(金海君)에 봉군(封君)되다.

13년(泰定 3년 1326년) 병인, 40세. 삼사사(三司使)로 옮기다.

14년(泰定 4년 1327년) 정묘, 41세.

15년(致和 원년 1328년) 무진, 42세.

16년(天曆 2년 1329년) 기사, 43세.

17년(至順 원년 1330년) 경오, 44세. 충혜왕(忠惠王)이 임시로 국왕의 위에 오르다. 다시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벼슬을 그만두다.

충혜왕 원년(至順 2년 1331년) 신미, 45세.

2 일월(日月) : 임금과 후비(後妃)를 비유한 말.

충숙왕후 원년(至順 3년 1332년) 임신, 46세.

2년(元統 원년 1333년) 계유, 47세.

3년(元統 2년 1334년) 갑술, 48세.

4년(後至元 원년 1335년) 을해, 49세.

5년(後至元 2년 1336년) 병자, 50세.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에 임명되다.

6년(後至元 3년 1337년) 정축, 51세.

7년(後至元 4년 1338년) 무인, 52세.

8년(後至元 5년 1339년) 기묘, 53세. 2월에 충숙왕이 홍(薨)하다. 정승 조적(曹積)이 백관(百官)을 위협하고 군대를 영안궁(永安宮)에 주둔(駐屯)하여 임금의 측근에 있는 나쁜 소인(小人)들을 내쫓겠다고 선언(宣言)하면서 가만히 심왕(瀋王)을 위한 지반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충혜왕이 민첩한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조적을 쳐서 죽였다. 그 무리로서 중국의 서울에 있는 자가 매우 많아서 반드시 충혜왕을 죄(罪)에 끌어넣으려고 하였다. 원나라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왕을 부르니 사람들이 마음으로 위태하게 여겨 의심하였으며, 또 어떠한 화(禍)가 미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선생이 분하게 여겨 몸을 돌아보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내가 우리 임금의 신자(臣子)임을 알 뿐이다”고 하고 시종(侍從)하여 가다. 경사(京師)에 이르러서는 말로 하는 대신에 글을 올려 변박(辯駁)하여 일이 바르게 판별됨을 얻었다.

충혜왕후원년(後至元 6년 1340년) 경진, 54세. 4월에 우리나라에 돌아오다가 제화문 주루(齋化門酒樓)에서 읊은 시가 있다. 선생이 돌아오니 못 소인들이 더욱 치성하게 굴었다. 선생은 자취를 숨기고 세상에 나오지 아니하다.

2년(至正 원년 1341년) 신사, 55세.

3년(至正 2년 1342년) 임오, 56세. 여름에 《櫟翁稗說》을 저술하다.

4년(至正 3년 1343년) 계미, 57세. 11월에 원나라 사신 타적(朶赤) 등이 와서 교천사조(郊天赦詔)를 반포(頒布)한다고 하므로 왕이 성 밖에 나가서 영접하였는데, 타적(朶赤)이 그 기회를 타서 칼을 휘두르며 왕을 붙잡아 말에 태워가지고 돌아갔다.

일이 창졸간에 일어났으므로 모든 신하들은 마음이 몹시 급하여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선생이 글을 올려 석방하기를 청하였다.

5년(至正 4년 1344년) 갑신, 58세. 겨울에 충목왕(忠穆王)이 즉위(即位)하니 나이 8세였다. 선생을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임명하고 부원군(府院君)으로 승진시켰으며, 영효사관사(領孝思觀事)를 명하였다. 서연(書筵)을 설치하고, 선생을 스승으로 삼다. 선생이 진언(進言)하기를, “옥(玉)에 흠이 있는 것은 반드시 훌륭한 공장(工匠)을 기다려서 쪼고 다듬은 뒤에라야 보배스러운 기물(器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임금이라고 하여 어찌 다 과실(過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훌륭한 신하의 계옥(啓沃)을 기다린 뒤라야 그 성덕(聖德)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고 하고 이어 말하기를, “신(臣) 등이 시강(侍講)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마땅히 원송수(元松壽)로 하여금 항상 좌우(左右)에 있어서 도의(道義)를 강마(講磨)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또 도당(都堂)에 글을 올려 청하기를, “다시 착한 선비 두 사람을 선택하여 《효경(孝經)》·《논어》·《맹자》·《대학》·《중용》을 강의하게 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지도(誠意正心之道)를 익히게 하고, 또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후덕(厚德)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예(禮)를 사랑하는 자 여남은 명을 모아서 임금의 좌우(左右)에서 보도(輔導)하여 재상(宰相)과 친근하게 하고 외설(猥褻)하고 친압(親狎)한 일을 배척하며 성색(聲色)과 좋은 구경거리 같은 것을 눈과 귀에 접촉하지 않게 하여 습관과 성격을 이루게 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덕(德)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정방(政房)을 폐지하여 청알(請謁)을 없애버리고, 공과(功過)의 표준을 세워서 요행(僥倖)을 바라는 마음들을 방지하며, 금·은·금수(金銀錦繡)의 사용을 금지하여 검소(儉素)한 것이 덕행(德行)임을 밝히고 포흠(逋欠)을 감면하여 주고 공부(貢賦)를 줄여서 민생(民生)을 안정시키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뒷날 금성군(錦城君) 나익희(羅益禧)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 두세 가지 계책으로 집정자(執政者)를 깨우쳤으나 아직 시행되는 것을 보지 못하여 항상 용퇴(勇退)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하고 드디어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청하였다.

충목왕 원년(至正 5년 1345년) 을유, 59세.

2년(至正 6년 1346년) 병술, 60세. 전문(箋文)을 올려 서연강설(書筵講說)의 직임(職任)을 해면하도록 빌고, 찬성사(贊成事) 안축(安軸)과 밀직부사(密直副使) 이곡(李穀)을 천거하여 자신에 대신하게 하였다. 5월에 《효행록(孝行錄)》 62효찬(孝贊)을 찬술(撰述)하고 또 서문을 지어 책의 첫머리에 실었다. 11월에 임금이 민지(閔漬)의 찬수(撰修)한 본조(本朝)의 《편년강목(編年綱目)》은 빠진 것이 많다고 하여 선생에게 다시 찬정(撰定)하라고 명령하다. 또 충렬왕(忠烈王)·충선왕(忠宣王)·충숙왕(忠肅王) 세 임금의 실록(實錄)을 찬수(撰修)하라고 명령하다. 문정공(文定公) 국재(菊齋)의 부고(訃告)를 받다.

3년(至正 7년 1347년) 정해, 61세.

4년(至正 8년 1348년) 무자, 62세. 3월에 제조경사도감(提調經史都監)에 임명되다. 12월에 충목왕(忠穆王)이 홍(薨)하다. 선생이 표문(表文)을 받들고 원(元)나라에 가서 충정왕(忠定王)을 세울 것을 주청(奏請)하다.

충정왕 원년(至正 9년 1349년) 기축, 63세.

2년(至正 10년 1350년) 경인, 64세.

3년(至正 11년 1351년) 신묘, 65세. 겨울에 공민왕(恭愍王)이 즉위(即位)하다. 아직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않은 채 선생을 우정승 권단정동성사(右政丞權斷征東省事)에 임명하였다. 선생이 글을 올려 고사(固辭)하였으나 임금이 허가하지 아니하고 또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을 임명하였다. 선생이 법사(法司)로 하여금 각 도의 존무사(存撫使)·안렴사(安廉使)의 공적과 죄과(罪過)를 고핵(考覈)하게 하고 홍원철(洪元哲)을 보내어 평양도(平壤道)를 순문(巡問)하게 하였으며, 김용(金鏞)으로 왜적(倭賊)을 방지하게 하고, 허유(許猷)로 서북면찰방(西北面察訪)을 삼았으며, 배전(裴全)·박수명(朴守明)을 행정(行省)의 감옥에 가두고, 노영서(盧英瑞)·윤시우(尹時遇)를 귀양 보냈으며, 한대순(韓大淳)·정천기(鄭天起)의 벼슬을 낮추었다. 그때 임금이 원나라에 있어서 두어 달 동안 나라가 비어 있었으나 선생이 처리하는 일이 마땅하였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그 힘을 입어 안정할 수 있었다.

공민왕원년(至正 12년 1352년) 임진, 66세. 서연(書筵)을 열고 선생에게 다시 시강(侍講)을 명하다. 조일신(趙日新)이 왕을 모시고 다닌 공로를 믿고 횡포하고, 교만하고, 방자(放恣)하였다. 선생이 자기보다 윗자리에 있음을 시기하므로 선생이 그것을 알고 임금께 사죄하기를, “신은 감히 정승의 지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굳이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말에서 떨어져 발을 부상한 것을 이유로 하여 전문(箋文)을 올려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더욱 추성양절동덕협의찬화공신(推誠亮節同德協義贊化功臣)의 호를 하사하였다. 선생이 또 전문을 올려 고사(固辭)하니 임금이 특별히 좌부대언(左副代言) 유숙(柳淑)과 응양상장군(鷹揚上將軍) 김용(金鏞)을 보내어 나아가 교지(教旨)를 내리고 사직하려는 청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선생이 또다시 전문(箋文)을 올려 기어코 사양함을 말지 아니하여 드디어 치사(致仕)하였다. 그 해 겨울에 일신(日新)이 여러 불량배(不良輩)를 모아가지고 밤에 궁중에 들어가서 평소에 자신이 시기하던 사람들을 살해하였으나 선생은 그때 벼슬을 사임하였으므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일신이 복주(伏誅)한 뒤에 선생을 기용하여 우정승을 삼고, 순성직절동덕찬화공신(純誠直節同德贊化功臣)의 호를 내리다.

2년(至正 13년 1353년) 계사, 67세. 정월에 정승을 사임하다. 부원군(府院君)으로서 지공거(知貢舉)가 되어 이색(李穡) 등을 뽑다. 동지공거(同知貢舉) 홍이상(洪二相)에게 준 시(詩) 두 수가 있다.

3년(至正 14년 1354년) 갑오, 68세. 12월에 다시 우정승이 되다.

4년(至正 15년 1355년) 을미, 69세. 정승을 사임하다.

5년(至正 16년 1356년) 병신, 70세. 역신(逆臣) 기철(寄轍) 등이 복주(伏誅)하다. 임금이 철(轍) 등의 재물을 양부(兩府)에 내려주니 선생은 공(功)이 없다고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12월에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다.

6년(至正 17년 1357년) 정유, 71세. 5월에 본직(本職) 그대로 치사(致仕)하기를 비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국법(國法)에 봉군(封君)하여 치사(致仕)하면 반사(頒賜)하는 녹봉이 더 많은 것이었다. 이미 늙어서 오히려 후한 봉록을 받는 것은 도리에 미안하다고 하여 이렇게 청한 것이다. 조정의 논의가 본직으로 치사하게 하는 것

은 대신(大臣)을 존경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선생이 이미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하게 지내게 되면서, 손을 상대로 하여 술을 준비하고 고금(古今)의 일을 비교 토론하여 게을리함이 없었다. 나라에 큰 정사가 있으면 임금이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와서 자문하여 결정하였다. 어떤 때에는 인견(引見)하여 경사(經史)를 강론하고 정치하는 길을 물으면 선생이 전례(典例)를 끌어다 비유하고, 부연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하기 어려운 일을 힘써 하도록 간절히 권면(勸勉)하니 임금이 더욱 존경하고 중하게 여기었다. 집에서 《국사(國史)》를 편찬하니, 사관(史官)과 삼관(三館)이 다 모였다. 뒤에 《국사(國史)》는 병화(兵火)에 잃어버렸다. 또 《금경록(金鏡錄)》을 찬선(撰選)하다. 또 《국사(國史)》가 정비되지 못함을 병되게 여겨 《기년전지(紀年傳志)》를 찬수(撰修)하였으나 뒤에 홍적(紅賊)의 난(亂) 때에 흩어져 없어지고, 오직 태조로부터 숙종(肅宗)에 이르기까지의 기년(紀年)만이 남아 있다. 임금이 선생에게 명하여 종묘의 소목(昭穆)의 차례를 정하게 하니, 선생이 헌의(獻議)하다.

7년(至正 18년 1358년) 무술, 72세. 임금이 왕도의 성(城)을 수축하는 일에 대한 의견을 대신·기로(耆老)들에게 물었다. 선생이 글을 올려 의견을 말하였으니 대략 이러하다. “삼대(三代) 이상은 알 수 없으나 삼대 이하에서는 수도(首都)를 세우고도 성곽이 없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태조께서 동쪽을 정벌하고 서쪽을 토벌하며 참람하고 어지러운 것을 제거하고 삼한을 통일한 뒤에 7년 만에 흥(薨)하셨습니다. 태조께서는 전쟁에 부상한 백성들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의 부역을 일으키는 것을 차마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송경(松京)에 성을 쌓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세(事勢)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고 하였다. 박대양(朴大陽) 안렴사를 보내는 증별시(贈別詩)가 있다. 또 정조(正朝)의 시가 있다.

8년(至正 19년 1359년) 기해, 73세. 손자 보림(寶林)을 위하여 집정(執政)에게 보낸 시(詩)가 있다.

9년(至正 20년 1360년) 경자, 74세.

10년(至正 21년 1361년) 신축, 75세. 2월에 임금이 선생에게 《서경(書經)》〈무일편(無逸篇)〉의 강의를 명하다.

11년(至正 22년 1362년) 임인, 76세. 홍건적(紅巾賊)이 서울을 함락시키니, 여가(御駕)가 남쪽으로 파천하였다. 선생이 달려가 상주(尙州)에서 임금을 뵈옵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오늘날 파천(播遷)하심이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안록산(安祿山)의 반란을 만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홍언박(洪彦博)에게 말하기를, “옛 사람은 ‘장(壯)하도다. 이 산하(山河)는 위국(魏國)의 보배로구나’라고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처음에 험난한 곳에 진지(陣地)를 설치하고, 좁고 막힌 곳을 지켰다면 기필코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일찍 대비(對備)하지 않은 것이 한스럽습니다. 적(賊)이 만약 들에서 전투를 하였다면 아군(我軍)은 반드시 패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비와 눈으로 인하여 적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때를 타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산천(山川) 신령의 보우에 힘입은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어 거가(車駕)에 호종(扈從)하여 청주(淸州)에 이르다. 공북루(拱北樓)에 올라서 선생은 어제시(御製詩)에 응답하여 판상(板上)에 있는 시를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렸다. 다시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을 봉하다.

12년(至正 23년 1363년) 계묘, 77세. 임금이 청주(淸州)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환도(還都)하지 아니하니 선생이 여러 재상들을 인솔하고 진언(進言)하기를, “송도는 종묘가 있는 곳으로서 국가의 근본입니다. 마땅히 빨리 환가(還駕)하셔서 백성들의 바라는 마음을 위안하여야 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서운관(書雲觀)에서 음양설(陰陽說)에 구애하여 꺼리므로 먼저 성남(城南)의 흥왕사(興王寺)에 거가(車駕)를 멈추고 강안전(康安殿)의 수리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다.

13년(至正 24년 1364년) 갑진, 78세.

14년(至正 25년 1365년) 을사, 79세. 임금이 신돈(辛旽)을 총애하여 너무 가깝게 하므로 선생이 왕에게 사퇴기를, “신(臣)이 일찍이 한 번 신돈을 보았더니, 그 사람의 골상(骨相)이 옛날의 흉악한 사람과 비슷합니다. 반드시 뒤에 근심을 끼칠 자이니 청컨대 임금께서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신돈이 이 말에 깊이 원한을 품고 온갖 방법으로 헐뜯었으나 선생이 늙은 까닭에 가해(加害)하지

못하고 드디어 임금께 아뢰기를, “유자(儒者)는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하고 일컬으면서 안과 밖에 퍼져 있으면서 서로 간청(干請)하여서 그들의 하고 싶은 바를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현(李齊賢)과 같은 자는 문생이 문하(門下)가 있고 문하가 또 문생을 보게 되어 드디어 나라에 가득찬 도둑이 되었습니다. 유자(儒者)라는 것이 나라에 유해(有害)함이 이와 같습니다”고 하였다. 신돈이 패망한 뒤에 임금이 말하기를, “익재의 선견지명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이 사이에서 함부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반드시 익재(益齋)라고 부르더니 재상이 된 뒤로는 사람들은 귀천(貴賤)의 구별 없이 다 익재라고 일컬었다. 그가 세상에서 존경받음이 이와 같았다. 조마(照磨) 호약해(胡若海)가 명주사도(明州司徒) 방국진(方國珍)의 사자로 와서 방물(方物)을 바치고 돌아갈 때에 선생에게 시(詩)를 청하였다. 이때 선생은 노쇠(老衰)하였기 때문에 글 짓는 것을 꺼렸으나 부지런히 청탁하므로 드디어 오언시(五言) 한 편을 지어 주었다. 그 뒤로는 다시 저술한 것이 없다.

15년(至正 26년 1366년) 병오, 80세.

16년(至正 27년 1367년) 정미, 81세. 7월에 병으로 본제(本第)에서 졸(卒)하다. 태상(太常)에서 시호를 문충공(文忠公)이라고 하다. 겨울 10월에 관(官)에서 의위(儀衛)를 갖추어 우봉현(牛峯縣) 도리촌(桃李村)에 있는 선영(先塋)에 장사하다.

우왕 2년(洪武 9년 1367년) 병진, 공민왕의 묘정(廟廷)에 배향(配享)하다.

익재(益齋)선생 묘지명(墓誌銘)

지정(至定) 27년 정미년 7월 간지(干支), 추성양절동덕협의찬화공신(推誠亮節同德協義贊化功臣) 벽상삼한삼중대광계림부원군(壁上三韓三重大匡鷄林府院君) 영예 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 익재선생 이공(益齋先生李公)이 병으로 사저(私邸)에서 졸(卒)하니 나이가 81세였다. 태상(太常)에서 시호를 문충공(文忠公)이라고 하였다. 10월 간지(干支)에 담당관사(擔當官司)에서 의위(儀衛)를 갖추어 우봉현 도리촌(牛峯縣桃李村)의 선영(先塋)에 장사하였다. 병진년 겨울 10월 간지에 공민왕의 묘정(廟廷)에 배향하였다. 공의 휘는 제현(齊賢), 자(字)는 중사(仲思)이고, 아버지의 성(姓)은 이씨(李氏)이다. 신라시조 혁거세(赫居世)에게 좌명대신(佐命大臣)이 있었으니, 이알평(李諲平)이라고 한다. 그 후손인 소판(蘇判) 거명(居明)이 병부령(兵部令) 김현(金現)을 낳고, 병부령이 삼한공신(三韓功臣) 태수(太守) 김서(金書)를 낳았다. 신라왕(新羅王) 김부(金溥)가 이미 국토를 바치고, 고려조에 들어와서 고려 태조의 딸 낙랑공주(樂浪公主)에게 장가들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김서(金書)의 아내가 되어 윤홍(潤弘)을 낳았다. 윤홍이 승훈(承訓)을 낳고, 승훈이 주복(周復)을 낳았으며, 주복이 재(倅)를 낳고, 재가 치련(侈連)을 낳았으며, 치련이 충섬(寵暹)을 낳았다. 충섬은 춘정(春貞)을 낳고, 춘정은 현복(玄福)을 낳았으며, 현복은 선용(宣用)을 낳고, 선용은 승고(升高)를 낳았으며, 승고는 문림랑상의 직장동정(文林郎尙衣直長同正) 휘(諱) 득견(得堅)을 낳았다. 상의(尙衣)가 증좌복야(贈左僕射) 휘(諱) 핵(翺)을 낳고, 복야(復射)가 검교정승(檢校政丞) 시(諡) 문정(文正), 휘(諱) 진(璡)을 낳았으니, 대릉직(戴陵直) 박인육(朴仁育)의 딸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에게 장가들어 지원(至元) 정해년 12월 경진일에 공(公)을 낳았다. 공은 어릴 때부터 우뚝이 뛰어나서 성인(成人)과 같았으며 글짓기를 알게 된 때에는 이미 작가(作家)다운 기풍(氣風)이 있었다.

대덕(大德) 신축년에 공의 나이는 15세였다. 정상시(鄭常侍) 선(僖)이 성균시(成均試)의 시관(試官)이 되었다. 응시자(應試者)들이 각기 자기의 재능을 자부(自負)하여 서로 우열(優劣)을 다투다가 공의 지은 글을 듣고는 의기가 소침하고 위축되어

감히 앞을 다투지 못하더니 공이 과연 장원하였다. 이 해에 국재(菊齋) 권공(權公) 부(溥)와 열현(悅軒) 조공(趙公) 간(簡)이 문과(文科)의 시관이 되었는데, 공이 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권공이 자기의 딸로 공의 아내를 삼았다. 공이 말하기를, “과거를 보는 것은 작은 재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으로는 나의 덕(德)을 크게 기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전(經典)을 토론하였다. 널리 알고 깊이 연구하여서 절충(折衷)하여 정당한 것에 도달하니, 문정공(文定公)이 매우 기뻐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혹시 우리 가문(家門)을 더욱 큰 것으로 만들어 주려는 것일까”라고 하였다.

계묘년에 권무봉선고판관(權務奉先庫判官)·연경궁녹사(延慶宮錄事)에 임명되었다. 무신년에 뽑히어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 들어가니 관중(館中)의 사람들이 미루어 사양하고 감히 글을 평론하지 못하였다. 그 해 겨울에 제안부직강(齊安府直講)에 전임하고, 기유년에는 발탁되어 사헌규정(司憲糾正)이 되었으며, 경술년에는 선부산랑(選部散郎)으로 옮기고 신해년에는 전교시승(典校寺丞)·삼사판관(三司判官)으로 두 번 전임하였다. 어느 벼슬자리에 있어도 있는 곳마다 직무에 적임(適任)이었다.

황경(皇慶) 임자년에 뽑혀 서해도안렴사(西海道按廉事)가 되니 옛날 지부(持斧)의 풍모(風貌)가 있었다. 성균악정(成均樂正)에 승진하였다. 겨울에 제거풍저창사(提舉豐儲倉事)가 되고 계축년에는 내부부령(內府副令)이 되었다. 풍저창에서 두곡(斗斛)을 감림(監臨)하고, 내부(內府)에서 세밀(細密)한 척촌(尺寸)의 계산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공이 척척 해내고 어려워하는 빛이 없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공(李公)은 재덕(才德)이 완비하여서 어떤 일에도 능통하다. 그야말로 그릇이 국한되지 않은 군자(君子)이다”라고 하였다.

충선왕(忠宣王)이 원나라의 인종(仁宗)을 도와 내란(內亂)을 평정하고, 무종(武宗)을 영립(迎立)하였기 때문에 양조(兩朝)의 총우(寵遇)가 비할 데 없었다. 왕이 드디어 주청하여 왕위(王位)를 충숙왕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태위(太尉)로 중궁의 서열에 머물렀다. 왕저(王邸)에 만권당(萬卷堂)을 짓고 학문을 고구(考究)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했다. 인하여 말하기를, “경사(京師)에 있는 문학하는 선비들은 다 천하

에서 선택된 자들인데 나의 부중(府中)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나의 수치이다”고 하고 공을 불러 중국의 도성(都城)에 이르게 하였으니 바로 연우(延祐) 갑인년 정월이었다. 요목암(姚牧菴) · 엄자정(閔子靜) · 원복초(元復初) · 조자양(趙子昂) 등이 다 왕의 문호에 출입(出入)하였으므로 공이 그들 사이에 종유(從遊)하여 학문이 더욱 진취하니, 여러 사람들이 칭찬하고 감탄함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을묘년에 옮겨서 선부의랑(選部義郎)에 뽑히고, 가을에는 성균궐주(成均祭酒)에 임명된 채, 그냥 의랑(議郎)을 겸직하였다. 병진년에는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서촉(西蜀)에 갔으니 도중 이르는 곳마다 시를 지어 사람들의 입에 애송(愛誦)되고 있다. 이 해에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가 되고, 정사년에는 선부전서(選部典書)에 임명되었다.

기미년에 왕이 강남(江南)에 강향사(降香使)로 가면서 누대(樓臺)와 경치가 좋은 곳을 만나 감흥(感興)이 일어나며, 회포를 풀게 되는 때에는 번번이 조용히 말하기를, “이러한 곳에 이생(李生)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경신년에는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임명되고, 단성익찬공신(端誠翊贊功臣)의 호를 내렸다. 지공거(知貢舉)가 되어서는 훌륭한 선비를 뽑아 인재를 얻었다고 그 때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그때 공의 나이는 34세였다. 아버지 문정공(文定公)과 어머니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과 장인 · 장모와 삼좌주(三座主)가 다 건강하였다. 공이 잔을 들어 헌수(獻壽)하니, 온 세상이 흠선(欽羨)하였다. 이 해에 주청하여 고려왕부단사관(高麗王府斷事官)을 제수하다.

지치(至治) 임술년 겨울에 경사(京師)로 돌아가는데, 도착하기 전에 충선왕이 참소를 입고 서번(西蕃)으로 유배(流配)되었다. 이듬해에 공이 충선왕을 가 뵈었는데, 도중에서 노래하여 읊은 시는 충성과 분격(憤激)으로 가득차 있었다.

태정(泰定) 갑자년에는 광정대부밀직사사(匡靖大夫密直司事)로 가자(加資)되고, 을축년에 공신표(推誠亮節)이라고 고쳐 하사하였다. 첨의평리(僉議評理),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두 번 전임하였다. 병인년에는 삼사사(三司使)로 옮겨졌고, 천역(天曆) 경오년에 충혜왕(忠惠王)이 왕위에 오르매 공이 다시 정당문학이

되었다가 얼마 안 가서 그만두었다. 그 뒤 지원(至元) 병자년에는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김해군(金海君)에 봉군되고,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에 임명되었다.

기묘년 봄 2월에 충숙왕이 홍(薨)하였다. 그해 가을에 정승 조적(曹頤)이 백관(百官)을 위협하여 영안궁(永安宮)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임금의 측근에 있는 나쁜 소인(小人)들을 쫓아낸다고 선언(宣言)하였다. 그리고는 몰래 심왕(審王)을 위한 지반(地盤)을 만들고 있으므로 충혜왕이 정예한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조적을 쳐서 죽였다. 그러나 그의 같은 무리로서 중국의 경도(京都)에 있는 자가 매우 많아서 기어코 왕을 죄에 얹어 넣고자 하니, 국민의 인심이 의심하고 위태롭게 여겼으며 화(禍)도 또한 예측할 수 없었다. 공이 분격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으며 말하기를, “나는 내가 우리 임금의 신자(臣子)임을 알 뿐이다”고 하고 왕에게 시종(侍從)하여 경사(京師)에 가서 말 대신 글을 올려 일이 바르게 판정(判定)되게 하였다. 공(功)이 1등에 있었다.

돌아오니 못 소인(小人)들이 더욱 치열(熾熱)하게 날뛰었다. 공이 자취를 감추고 나오지 않은 채 《櫟翁稗說》을 저술하였다. 지정(至正) 갑신년 겨울에 충목왕(忠穆王)이 즉위(即位)하여 공을 부원군(府院君)에 승진시키고, 영효사관사(領孝思觀事)로 임명하였으며 서연(書筵)에 공을 스승으로 삼았다.

병술년에는 《충렬왕 실록》을 찬수(撰修)하였다. 무자년에는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임명되었다.

신묘년에 공민왕이 즉위하여 중국에 있으면서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채 공에게 우정승권서정동성사(右政丞權署征東省事)를 명하였다. 두어 달 동안 나라가 비어 있었으나 공의 처리하는 일이 적절하여 나라 사람들이 그 힘을 입어 안정할 수 있었다.

임진년에 추성양절동덕협의찬화 공신(推誠亮節同德協義贊化功臣)의 호를 내리다. 원종공신(元從功臣) 조일신(趙日新)이 공이 자기보다 윗자리에 있는 것을 시기하였다. 공이 그것을 알고 세 번 표전(表箋)을 올려 군이 사양하였다. 그해 겨울 10월 일신(日新)이 여러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밤에 궁궐 안에 들어가 포위한 채, 평소 에 자기가 꺼려하던 사람을 해(害)쳐서 베어 죽였다. 공은 벼슬을 사퇴(辭退)하였

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일신(日新)이 복주(伏誅)한 뒤에 공을 기용하여 우정승을 삼았다. 계사년 정월에 사직하였다. 5월에 부원군(府院君)으로 지공거(知貢舉)가 되고, 갑오년 12월에 다시 우정승이 되었다가 다음해에 또 사직하였다. 공의 나이 70세에 김해후(金海侯)에 피봉(被封)되고, 12월에 문하시중이 되었다.

정유년 5월에 본직(本職) 그대로 치사(致仕)하기를 비니 임금의 허락하였다. 나라의 제도에 봉군(封君)하여 치사(致仕)하면 반사(頒賜)하는 녹봉이 더 많은 것이다. 이미 노퇴(老退)하여서 오히려 국가의 후한 녹(祿)을 받는 것이 도리에 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하였던 것이다. 조정의 논의가 본직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는 것은 대신을 존경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임인년에 다시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을 봉하였다.

공은 15세에 과거에 급제한 때로부터 이름이 한 세상을 덮었으며 조정에 서게 된 이래로 오로지 문서(文書)에 관계되는 일을 전담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서 외제(外制)의 일을 역임(歷任)하였다. 속관(屬官)으로부터 양부(兩府) 봉군(封君)에 이르기까지 관직에서 떠난 일이 없다. 다만 충정왕(忠定王)이 재위(在位)한 3년 동안만은 벼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공(公)이 일찍이 표문을 받들어 공민왕을 세울 것을 청하였기 때문이다.

공은 타고난 자질(資質)이 뛰어난 위에 학문으로 보익(輔益)하여 고명(高明)하고 정대(正大)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의논(議論)으로 나타나는 것과 사업 처리에 드러나는 것이 빛이 나서 볼 만한 것이 있었다.

처음에 공이 《사기(史記)》를 읽을 때 필삭(筆削)의 대의(大義)를 반드시 《춘추(春秋)》의 필법(筆法)을 법으로 여기더니 측천(則天)의 기년(紀年)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어찌 주(周)나라의 찌꺼기를 가져다가 우리 당(唐)나라의 일월(日月)을 더럽히는가”라고 하였다.

뒤에 주자(朱子)의 《강목(綱目)》을 보고 스스로 자신의 견식(見識)이 정당한 것을 입증하였다.

남에게 조그마한 선행이 있어도 그것을 칭찬하고 기려서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를 두려워하였으며, 선배(先輩)의 끼친 일이면 비록 미세한 것이라도 자신은 거기에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평소애 일찍이 침착하지 못하게 빨리 말하거나, 갑자기 당황하는 얼굴빛을 짓는 일이 없었으며, 낮고 더러운 말을 하는 일이 없었다. 손을 대접하기 위하여 술을 준비하여 두고 고금(古今)의 일을 자세히 토론하여 게을리하는 일이 없었다. 최죽옹(崔拙翁) 해(灌)가 감탄하며 말하기를, “선비가 사흘 동안을 만나지 않으면 그 동안에 학문이 부쩍 진취(進就)하였기 때문에 만날 때에는 반드시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고 하더니 나는 익재에게서 그런 상태를 본다”고 하였다.

공은 애써 옛 법을 준수(遵守)하고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나의 뜻인들 어찌 옛 사람과 같지 않겠는가. 다만 나의 재덕(才德)이 옛사람에 미치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공의 손자가 기씨(寄氏) 집안과 인척(姻戚) 관계가 생겼으나 공은 기씨일가(寄氏一家)의 성만(盛滿)한 것을 꺼리더니 그가 평장(平章)이 되었을 때에 공민왕은 양제(兩制)에 칙명(勅命)을 내려 시를 지어 축하하게 하고, 또 공에게 명령하여 그 일을 글로 서술(敍述)하라고 하였으나 공이 사양하고 하지 아니하였다.

스스로 호(號)를 익재(益齋)라고 하였다. 신돈(辛旽)이 패망하니, 공민왕이 말하기를, “익재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공이 일찍이 신돈은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과연 입증(立證)되었기 때문이다.

공은 젊었을 때부터 제배(儕輩)들이 감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반드시 익재(益齋)라고 하더니 공이 재상(宰相)이 된 뒤로는 사람들은 귀천의 구별없이 다 익재라고 일컬었다. 그가 세상에서 존중됨이 이와 같았다. 공이 저술한 문집 약간이 세상에 전하고 있다.

공은 모두 세 번 장가를 들었다. 길창국부인(吉昌國夫人) 권씨(權氏)가 2남 3녀를 낳았으니, 장남(長男)의 이름은 서종(瑞種)이다. 봉상대부(奉常大夫) 종부부령(宗簿副令)이다. 차남의 이름은 달존(達尊)이니, 봉상대부 전리총랑 보문각직제학지제교(奉常大夫典理摠郎寶文閣直提學知製敎)이다. 장녀(長女)는 정순대부 판사복시사(正順大夫判司僕侍事) 임덕수(任德壽)에게 출가하였다. 차녀(次女) 중정대부

전농정(中正大夫典農正) 이계손(李係孫)에게 출가하였다. 그 다음은 은청광록대부 첨서 추밀원사 한림원대학사(銀靑光祿大夫 簽書 樞密院事 翰林院大學事) 김희조(金希祖)에게 출가하여 의화택주(義和宅主)에 봉작(封爵)되었다.

수춘국부인(壽春國夫人) 박씨(朴氏)는 선수서경등처만호부부만호 중현대부 사복정(宣授西京等處萬戶府副萬戶中顯大夫司僕正) 휘(諱) 거실(居實)의 딸이다. 1남 3녀를 낳았으니 아들의 이름은 창로(彰路), 봉익대부 개성윤(奉翊大夫開城尹)이다. 장녀는 정순대부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박동생(朴東生)에게 출가하였다. 다음은 봉순대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송무(宋懋)에게 출가하였다. 그 다음은 혜비(惠妃)니 지금은 여승(女僧)이 되었다.

서원군부인(瑞原郡夫人) 서씨(徐氏)는 통직랑 지서주사(通直郎知瑞州事) 휘 중린(仲麟)의 딸이다. 딸 두 사람을 낳았으니, 장녀는 중정대부 삼사우윤(中正大夫三司右尹) 김남우(金南雨)에게 출가하였다. 차녀는 봉선대부 전의부정(奉善大夫典醫副正) 이유방(李有芳)에게 출가하였다.

측실(側室)에서 딸 두 사람을 낳았으니, 장녀는 중랑장(中郎將) 임부양(林富陽)에게 출가하였다. 다음은 아직 어리다.

종부(宗簿) 서종(瑞種)이 밀직사겸감찰대부(密直司兼監察大夫) 홍유(洪侑)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2녀를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보림(寶林)이니 광정대부 정당문학 상의회의 도감사진현관대제학 상호군(匡靖大夫 正堂文學 商議會議都監事 進賢館大提學 上護軍)이다. 장녀(長女)는 통헌대부 판위위시사(通憲大夫 判衛慰寺事) 조무(趙茂)에게 출가하였다. 차녀(次女)는 중헌대부 순흥부사(中顯大夫順興府使) 이원직(李元) 출가하였다.

검교중랑장(檢校中郎將) 김송주(金松柱)의 딸에게 재취(再娶)하여 아들 한 사람을 낳았으니, 이름을 원익(元益)이라고 한다. 밀직(密直) 최항(崔沆)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한 사람을 낳았으니, 아직 어리다.

총랑(摠郎) 달존(達尊)이 상당군(上黨君) 백이정(白頤正)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1녀를 낳았다. 장남의 이름은 덕림(德林)이니, 조봉랑 여흥군사(朝奉郎驪興郡事)이다. 차남의 이름은 수림(壽林)이니, 봉익대부 동지밀직사사(奉翊大夫同知密直司

事)이다. 원(元)나라 조정에 벼슬하여 한림학사 자선대부(翰林學士 資善大夫)가 되었다. 그 관계로 공(公)에게 원나라에서 대상경(大常卿)을 증직(贈職)하고 훈(勳)과 품계(品階)와 작위(爵位)를 갖추었다. 그 다음은 학림(學林)이니, 중현대부 소부윤(中顯大夫 小府尹)이다. 딸은 봉익대부 개성윤, 광록대부 동지추밀원사(奉翊大夫 開城尹, 光祿大夫 同知樞密院事) 김인걸(金仁傑)에게 출가하였다.

개성윤(開城尹) 장로(章路)가 중대광 청성군(重大匡淸城君) 시호 평간(平簡) 휘 공의(公義)의 딸 한씨(韓氏)에게 장가들어 딸 한 사람을 낳았으니, 춘추검열(春秋檢閱) 원서(元序)에게 시집갔다. 계실(繼室)은 정순대부 판전객시사(正順大夫 判典客寺事) 김양(金昂)의 딸이다. 2남 1녀를 낳았으니, 장남의 이름은 반(蟠)이니, 산정도감판관(刪定都監判官)이다. 차남의 이름은 곤(袞)이니, 경선묘록사(慶仙廟錄事)이다. 딸은 어리다.

사위 판사복(判司僕) 임덕수(任德壽)가 2남 4녀를 낳았다. 장남의 이름은 순의(純義)니 봉선대부 군기소윤(奉善大夫 軍器小尹)이다. 차남의 이름은 순례(純禮)니 중랑장(中郎將)이다. 장녀는 통직랑 기거랑 지제교(通直郎 起居郎 知製敎) 신흔(申渾)에게 출가하였다. 차녀는 중정대부 친어군 대호군(中正大夫 親衛軍大護軍) 박영충(朴永忠)에게 출가하였다. 그 다음은 봉선대부 소부윤(奉先大夫 小府尹) 황간(黃侃)에게 출가하였다. 또 그 다음은 중랑장 김추(金鍾)에게 출가하였다.

사위 전농정(典農正) 이계손(李係孫)이 2남 1녀를 낳았다. 장남의 이름은 즐(鷺)이니 낭장(郎將)이다. 차남의 이름은 양(亮)이니, 중랑장(中郎將)이다. 딸은 통헌대부 판선공시사(通憲大夫 判繕工寺事) 안익(安翊)에게 출가하였다.

사위 판전농(判典農) 박동생(朴東生)이 3남 1녀를 낳았다. 장남의 이름은 경(經)이니 봉선대부 군기소윤(奉善大夫 軍器小尹)이다. 차남의 이름은 위(緯)인데 별장(別將)이다. 삼남의 이름은 수문(殊文)이니, 별장(別將)이다. 딸은 어리다.

사위 판전교(判典校) 송무(宋懋)가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어리다.

사위 우윤(右尹) 김남우(金南雨)가 2남을 낳았다. 장남의 이름은 상좌(上佐), 차남의 이름은 광대(廣大)이다. 딸은 다 어리다.

증손(曾孫)이 남녀 합하여 약간 명이 있다.

조위위(趙衛尉)가 2남 2녀를 낳았다. 장남의 이름은 종선(從善)이니, 중랑장(中郎將)이다. 차남의 이름은 유선(遊善)이니, 권무(權務)이다. 딸은 다 어리다.

이순흥(李順興)이 1녀를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유희(有喜)니, 숭은전직(崇恩殿直)이다. 딸은 어리다.

여흥(驪興)이 2남 2녀를 낳았다. 장남의 이름은 신(申)이니, 승봉랑 공조서령(承奉郎 供造署令)이다. 차남의 이름은 밀(密)이다. 장녀는 정순대부 판위위시사(正順大夫 判衛尉寺事) 이승원(李承源)에게 출가하였다. 차녀(次女)는 선덕랑 통례문지후(宣德郎 通禮門祗候) 곽유례(郭游禮)에게 출가하였다.

밀직(密直)이 2남 2녀를 낳았다. 장남의 이름은 숭의(崇義)이다. 차남의 이름은 숭도(崇道)이니, 전객록사(典客錄事)이다. 딸은 다 어리다.

소부(小府)가 1남 2녀를 낳았다. 아들은 어리다. 장녀는 사헌지평(司憲持平) 김만구(金萬具)에게 출가하였다. 다음은 어리다.

기개성(奇開城)이 아들 한 사람을 낳았으니, 이름은 신(愼)이다.

순의(純義)가 1녀를 낳았는데, 어리다.

순례(純禮)가 1남을 낳았으니, 이름은 자(滋)이다. 1녀는 어리다.

신혼(申渾)이 1남 2녀를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호(浩)이니, 대전지유 중랑장(大殿指諭 中郎將)이다. 장녀는 낭장(郎將) 황윤기(黃允奇)에게 출가하였다. 차녀는 어리다.

대호군이 3남 3녀를 낳았다. 장남의 이름은 용수(龍守)이니, 별장(別將)이다. 나머지는 다 어리다.

황소부(黃小府)가 1남 2녀를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약노(藥奴). 나머지는 다 어리다. 즐(鷲)이 1남 1녀를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효노(孝奴), 딸은 어리다. 양(亮)이 3남 1녀를 낳았으니, 장남의 이름은 백공(伯恭)이고, 차남의 이름은 백겸(伯謙)이다. 나머지는 어리다.

명(銘)에 말하기를,

천지(天地)가 정기(精氣)를 축적(蓄積)하여 공이 이에 뛰어난 자질(資質)로 탄생하였네.

규벽(奎壁)이 공채를 뿜어냄이여, 공이 이에 천품을 발휘하여 드날렸도다.
이름은 천하에 넘치고 몸은 해동(海東)에 있었네.
도덕은 유자(儒者)의 수령(首領)이었고, 문장은 선비들의 종장(宗匠)이었네.
북두(北斗)와 태산처럼 세상이 우러러봄은 한퇴지(韓退之)와 같고, 광풍제월(光風霽月) 같은 유도자(有道者)의 기상은 주돈이(周敦頤)와 같았네.
네 번이나 나라의 정권(正權)을 잡았으며, 나이는 80세를 넘었도다.
성인이 나아 나타난다는 기린과 봉황이 상서(祥瑞)를 보였으며, 천하의 길흉(吉凶)을 점치는 신령한 시귀(蓍龜)처럼 인심(人心)의 호의(狐疑)을 안정시켰네.
공덕(功德)은 사직(社稷)에 머물러 있고, 은택(恩澤)은 생민(生民)에게 흘러내리네.
묘정(廟廷)에 배향(配享)하시니, 애도(哀悼) 속의 영화 비길 데 없네.
너희 자손들아, 충(忠)과 효(孝)를 공에게 따를지어다. 공이 안 계시니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공의 신령이 구원(九原)에서 보고 계시리라.

추충보절동덕찬화공신삼중대광한산군영예문춘추관사겸성균대사성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三重大匡韓山君領藝文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

이색(李穡)은 찬술(撰述)한다.

지은이 소개 | **이제현**(李齊賢) (1287~1367)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학자. 본관 경주, 호는 익재(益齋)·역옹(櫟翁). 15세에 성균시에 장원급제하고, 이어 대과에 합격하였다.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친 후 28세에 원나라 연경(燕京)의 만권당(萬卷堂)에 가서 조맹부(趙孟頫) 등 일류 학자들과 교유(交遊)하였다. 당대의 명문장가로 칭송받았으며 정주학(程朱學)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충선왕대부터 공민왕대까지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원나라의 부당한 처사를 해결하는 등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다. 81세에 졸(卒)하였고, 공민왕 묘정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익재집》 《효행록》 《서정록》 등이 있다.

옮긴이 소개 | **남만성**(南晩星) (1905~1986)

경상북도 영양 출생. 연희전문학교 문과에서 수학하고 법제처 법령정리위원회 및 법제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및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번역위원을 역임했다. 역서로는 《경국대전》 《대명률직해》 《역경》 《징비록》 《손자병법》 《노자 도덕경》 《동경대전》 외 다수가 있다.

역옹패설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4년 12월 15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편집 | 이상민 김지훈

편집디자인 | 황인정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36-5

*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